

포르노 문화를 통해 본 청소년
섹슈얼리티 연구

- 남자 고등학생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엄 기 호

여성의 총 여학생회에.

보다 ^{나은} ~~많은~~ 미주지역
보다 많은 활동을 위해.
각자 삶 지위를 위해
연생히 살아보세.

오기영
90. 9. 16.

포르노 문화를 통해 본 청소년
섹슈얼리티 연구

- 남자 고등학생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

지도 조 한 혜 정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1998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엄 기 호

엄기호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8년 6월 일

<제 목 차 례>

우리말 줄임글	iii
I. 서론	1
1. 문제 제기와 논문의 목적	1
2. 논문의 구성	4
2. 연구 대상과 방법	6
II. 연구의 이론적 맥락	11
1. 포르노가 재현하는 섹슈얼리티의 근대성과 남성중심성	11
1) 포르노 : 근대적 성의 파국적 양상	12
2) 남성 시선에 따른 재현	18
2. 텍스트 해독에 대한 문화 이론적 접근	21
III. 청소년들의 포르노 이용 실태와 실천적 의미	27
1. 일상화된 포르노 문화	27
1) 포르노의 수용 과정	28
2) 일상적인 시-공간속의 포르노	34
2. 포르노의 구입과 유통 방식	40
1) 포르노의 구입 형태	40
2) 포르노의 유통 방식	42
3. 아이들에게 있어서 포르노의 의미	46
1) 성적 쾌락과 스트레스 해소	46
2) 빠기기과 말걸기	51

VI. 포르노의 교섭적 수용과 분열적 주체 형성	56
1. 포르노 '텍스트'에 대한 교섭적 수용 양상	58
1) 여성 이미지에 대한 교섭적 수용	58
2) 남성 이미지에 대한 교섭적 수용	64
3) 포르노적인 성행위에 대한 교섭적 수용	67
2. 청소년의 성적 지향성	73
1) 이야기가 구성된 성	73
2) 친밀감이 구성된 성	78
3. 모순적으로 구성된 섹슈얼리티의 혼종 양상	82
1) 성기중심주의와 에로티시즘	82
2) 쾌락 추구하고 관계 형성	90
3) '규범적 관계'와 '순수한 관계'	95
V 마무리 : 분열된 주체, 과편화된 삶의 공간의 극복을 위하여	101
참고 문헌	108
Abstract	117

<표차례>

<표 1> 포르노를 본 경험에 대한 조사(단위는 %)	27
<표 2> 이 글의 이론적-해석적 과정	57

우리말 줄임글

포르노 문화를 통해 본 청소년 섹슈얼리티 연구
- 남자 고등학생들의 성문화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엄기호

이 글의 목적은 포르노를 중심으로 하여 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청소년들이 모순적이고 분열적인 성적 주체로 형성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포르노는 흔히 성에 대한 사실적 재현으로 이해된다. 그것은 포르노가 욕망이라는 에너지가 실현되는 공간인 몸, 특히 성기를 보다 더 '사실같이', '세밀하게' 재현하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르노는 단순 반영을 넘어, 성을 '사실보다 더 사실같은' 것으로 구성하는 하이퍼리얼리즘이다. 따라서 포르노는 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과학화한 근대적 섹슈얼리티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다. 이 글에서는 포르노의 이런 이미지와 메시지를 아이들의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한국에서 십대 청소년들은 무성적인 존재로 취급된다. 그들의 성은 부정되며, 단지 공부하는 학생으로만 다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문화적 자원들을 통하여 이미 성적인 존재로 스스로를 구성해가고 있으며 그것을 삶의 다양한 맥락속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에게 성은 쾌락을 추구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집과 학교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푸는 탈출구이기도 하며, 별로 이야기거리가 없는 아이들이 '웃고 떠들고 빠질수 있는' 소재이기도 했다. 포르노는 이런 성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문화적 자원의 하나가 되었으며,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또래집단을 통해서 구해 볼 수 있

을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었다.

포르노는 성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과 결합하면서 청소년들의 성적인 환상과 지식을 구성한다. 이런 이야기들에는 성에 대한 자신과 주변의 경험이나, 책과 대중 매체 등을 통해 얻은 이미지, 음담패설 등이 있다. 이 이야기들은 때로는 서로 갈등하고 타협하면서 청소년들의 섹슈얼리티를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으로 구성한다.

아이들은 성을 한편에서는 성기를 중심으로 몸에 대한 자극-반응을 통해 쾌락을 얻는 본능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친밀감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소통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의미의 성이 통합적인 것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상호 갈등적이고 모순되는 것으로 아이들은 이해하고 있었다. 아이들속에서도 성은 쾌락과 관계로 이분화되어 있었으며, 낭만적인 에로티시즘과 포르노적인 성기중심주의, 도덕과 규범 등 성과 사랑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모순적으로 접합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자기와 타자의 관계를 윤리화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이들의 성적 주체성은 상당히 분열적이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알파한 성기중심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어른들의 언어와 이미지를 오려붙여 자신들의 몸을 구성해 갈 수 밖에 없다. 청소년들의 몸이 속해 있는 학교와 가정이라는 '장소'와 그들의 몸을 구성하는 대중 문화, 포르노 등의 담론적 '공간'은 단절되어 있다. 그런대도 학교와 가정은 단지 '입시생으로서의 동원'하는 공간으로만 존재할 뿐, 이런 분열과 단절을 극복하고 아이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부정되기만 하던 자신들이 몸과 성을 발견하여 기존 지배적 성문화에 균열을 내는 데까지는 이르렀지만, 새로운 성적 주체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어 : 포르노, 섹슈얼리티, 청소년, 담론 분석, 하이퍼리얼리즘, 결합과
접합, 몸, 쾌락과 친밀성, 교섭적 해독, 모순적 구성

I. 서론

1. 문제 제기와 논문의 목적

1997년 봄에 터진 '빨간마후라'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의 청소년 성문화가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기억¹⁾된다. 대다수 보수적인 어른들뿐만 아니라 진보적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까지도 이 '경악할만한' 사건을 바라보며 청소년들의 성문화가 '갈 때까지' 갔다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 단지 그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전자는 아이들에게 주된 책임을 뒤집어씌우면서 '즉각적인' 보수적 정책을 입안할 것을 주장²⁾하였고, 후자는 보다 신중하게 사회와 '어른들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약간 더 조심스러웠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반대되는 정치적 입장은 사실은 '청소년'들의 섹슈얼리티를 부정하는 담론적 지평 위에 나란히 서 있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어떻게든 성을 다루고 있음을 보지 않으려 한다. 단지 이들은 자신들의 편협한 '성기 중심적인 섹슈얼리티'로만 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위험한' 선을 넘었다고 판단할 뿐이다. 때문에 이들은 아이들의 섹슈얼리티가 형성되어 가는 맥락의 사회적,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빨간마후라' 사건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지극히 비정치적인 대책 없는 자유주의적 견해(참조: 이재현, 1998)가 있었다. 이들 역시 청소년들의 섹슈얼리티가 형성되는 맥락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은채, 단지 '표현의 자유'와 욕망의 해방에 대한 구호만 남발하였을 뿐이다. '아이들이라고 보면 안되나?'라거나 '검열하는

1) 우리 사회 포르노 논쟁의 중심은 문학 작품의 음란성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공방이었다. 마광수(1992; 1994; 1997)나 장정일(1992a; 1992b) 필화 사건은 최근에 벌어진 가장 치열한 공방이었다. 마광수를 둘러싼 공방과 옹호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생회(1995)를 참조하라.

2) 최근 한국간행물윤리 위원회에서는 "음란 폭력성 간행물과 청소년 보호"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고학성(1998), 이태동(1998)등이 주제 발표에서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함을 중심으로 논지를 펼쳤고,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였다.

손'에 대한 항변만 있었지, 아이들이 성을 다루는 방식과 맥락에 대해서는 이들 역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빨간마후라'를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들은 거의 대부분 청소년들의 섹슈얼리티가 형성되고 의미화 되는 맥락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빨간마후라' 사건은 사실 한국에서 청소년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기보다는 역으로 청소년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무관심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 글이 아이들의 섹슈얼리티를 분석하기 위해서 '포르노'에 대한 이야기를 선택한 것은 두 가지 이유이다. 첫 번째로는 '포르노'가 일반적으로 가장 적나라한 성에 대한 재현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포르노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을 둘러싼 아이들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와 같이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정보와 접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제한된 사회에서 포르노는 섹슈얼리티를 형성해 나가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성폭력 상담소의 조사(김지혜, 1996: 10-11)에 의하면 다수의 청소년들은 '궁금증과 호기심'(52.26%) 때문에 음란물을 보며 '기회가 닿을 때마다'(36.0%) 본다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그만큼 청소년들의 섹슈얼리티 형성에 포르노가 깊게 관여하고 있으며, 성과 성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를 획득하는 매체로 자리잡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포르노³⁾는 단지 현실의 성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포르노는 '특정한 방식'으로 성을 재현해 낸 것이다. 따라서 포르노의 성은 '특정한' 방식으로 양식화되어져 있다. 포르노는 성행위를 성기 중심적 행위로 제한하여 재현하며, 남성적 시각에서 해석된 성행위를 재현하는 경향이 있다.

3) 어디서 어디까지를 '포르노'라고 할 것이냐는 그 자체로 논쟁의 대상이다. 보통 성기를 보여주거나 실제 성행위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포르노'라고 정의하지만 이것 또한 매우 부족하고 험거운 정의이다.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포르노란 아이들 속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일반적인 포르노를 말한다. 아이들 속에서 유통되는 포르노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서양이나 일본에서 만들어졌고, 남성이 소비의 대상이며, 성행위를 성기 중심으로 재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하드코어 Hard-Core 포르노이다.

대부분의 포르노는 남성의 발기와 삽입에서 사정에 이르는 과정을 하나의 완결된 성행위 과정으로 재현해 낸다. 또한 포르노는 여성과 남성의 이미지를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한다. 대개의 경우 여성은 성에 굴주린 게걸스러운 존재로 묘사되며 남성은 언제 어디서든 여성을 만족시켜주는 존재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포르노가 성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청소년들 역시 포르노 재현물을 있는 그대로 해독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은 포르노에 재현되어진 성을 자신을 둘러싼 경험과 이야기들(narrative)에 따라 평가하고 분류하며, 재해석해낸다. 포르노에 재현된 어떤 이미지들은 경험과 이야기에 의해 재강화되며, 어떤 것들은 의미의 영역에서 탈락하여 허구와 과장으로 취급된다. 청소년들의 섹슈얼리티⁴⁾는 이렇게 다양한 성적 경험과 여기저기의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재현물들속의 이미지들을 통하여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미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되어 가는 것이다. 이때 아이들이 주로 참조하는 문헌(reference)은 '해부도'만 있는 공식적인 성교육 교과서보다는 포르노나 음담패설, 자신과 주변의 경험과 소문들, 그리고 대중 문화 매체가 쏟아내는 이미지와 언어들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참조하는 이런 다양한 이미지와 언어는 단일한 것이 아니고 잘 통합되어 있지도 않다. 아이들이 참조하는 이미지와 언어안에는 성과 사랑에 대한 낭만주의와 도덕적 당위, 에로티시즘과 포르노적인 이미지, 성기중심적인 언어와 친밀성에 대한 갈구 등 상호대립적이고 모순적인 이야기들이 서로 갈등하며 접합되어 있다. 따라서 아이들의 이야기는 분열적이고 모순적이다.

이 글의 목적은 아이들의 섹슈얼리티를 구성하고 있는 성에 대한 시나리오/담론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이 결합하고 접합되어 있는 양상을 포르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아울러 이것을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의 섹슈얼리티가 구성되는 담론적/비담론적 조건을 조건을 입시문화와 교육 환경 등 아이들의 삶의 맥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이 분석하고자하는 텍스트

4) 이 논문에서 섹슈얼리티는 성적 욕망을 창조하고, 구성하고, 표현하고, 방향 지우는 사회적 과정으로, 그리고 성역할, 성행위, 성적 감수성, 성적 지향, 성적 환상과 쾌락, 성적 정체성을 정의, 재생산하는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Humm, 1990). 특히 이 글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성적 타자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드러나는 실천의 양태와 상상, 지향, 그리고 인식간의 균열과 모순적 접합 양상이다.

트는 '포르노'안의 텍스트가 아니라, 포르노에 대한 '아이들의 이야기'라는 텍스트이다.

2. 논문의 구성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2장 1절에서는 포르노에 대한 이야기가 섹슈얼리티의 분석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포르노가 성을 재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보드리야르의 논의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것이다. 포르노는 근대 성과학 담론의 이야기에 아주 충실하다. 포르노에 이야기⁵⁾가 없고, 성이 하이퍼리얼리즘으로 재현되는 것은 근대적 섹슈얼리티를 극대화한 결과이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포르노에 재현된 성이야말로 욕망이라는 문제 설정과 가시화의 힘을 통하여 근대가 섹슈얼리티를 다루는 방식의 파국적 양상이라고 파악한다. 또한 포르노 내에 재현된 이미지들을 다루는 시선의 권력을 페미니즘의 논의를 통해서 문제삼고자 한다. 다음으로 2장 2절에서는 포르노가 해독되어지는 과정을 스토리트 홀을 중심으로 기호학이론과 문화 이론을 통해서 이론화하겠다.

3장은 청소년들의 포르노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들과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 문화기술지이다. 여기서는 포르노가 아이들에게 일상화된 문화라는 점을 보여 주면서 그 의미를 살펴본다. 그리고 '포르노 보기'가 아이들의 삶에서 가지는 실천적 의미를 아이들의 삶의 맥락속에서 살펴보겠다. 이 글에서는 이것을 1)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2) 대화할 언어도 소재도 별로 없는 아이들의 말걸기 수단이자, '사나이됨'을 빼기고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4장에서는 포르노가 교섭적으로 수용되고 평가되는 과정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섹슈얼리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이들이 포르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자위

5) 특히 포르노의 매체적 특성과 관련한 내용에서 '이야기'는 내러티브의 번역어이다. 내러티브는 이야기(서사), 이야기 구조(스토리를 전개시켜 나가는 방식), 스토리 등등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다. 이 글에서 내러티브는 주로 스토리나 이야기(서사)의 의미로 쓰이며 이야기 구조의 의미가 꼭 필요할 때는 '이야기 구조'로 번역하였다.

행위나 기타 다른 성적 실천과정에서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어떤 성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4장 1절에서는 포르노에 나타난 남성과 여성, 성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아이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봄, 그것을 자위 행위 때의 상상력⁶⁾과 비교해 보며 모순점을 살펴볼 것이다. 4장 2절에서는 포르노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아이들이 성에 대해 어떠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본다. 이를 바탕으로 3절에서는 아이들의 섹슈얼리티가 1) 자극-반응 모델에 따른 포르노적 성기중심주의와 교과서적 낭만주의에 따른 에로티시즘의 모순적 접합, 2) 쾌락 추구로서의 성과 관계 만들기로서의 성 사이의 갈등이 성적 대상을 위계화하는 방식으로 접합되어 있으며, 3) 성-사랑의 대상과의 관계가 순결과 부부간의 신뢰라는 규범적 언어와 사랑하는 두 사람사이의 합의와 배려라는 순수한 관계의 언어사이에서 모순적으로 접합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마무리에서 이 글은 아이들의 성이 이렇게 이분법적이고 모순적인 것은 성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언어가 너무나 피상적이며 교육현장에서의 의사소통 체계가 심하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할 것이다. 특히 살인적인 입시문화와 집단 수용소같은 교육 현장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주체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여 아이들이 자신들의 성을 성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공간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의 성은 분열적이고 단편적일 수 밖에 없으며 타자와 자신을 다룰 줄도 배려할 줄도 모르는 성기중심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어른들의 성문화로 편입되어 가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6) 실제로 아이들에게 허용된 유일한 성적 쾌락의 실천 방식은 자위행위이다. 때문에 아이들이 자위행위시에 어떠한 상상을 하는지는 아이들의 섹슈얼리티에서 실천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남자아이에 있어서의 초기 자위 행위 행태는 대부분 신체적 행동에 불과하지만, 점진적으로 자위행위시에 환상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들이 갖는 환상은 처음에는 가학적인 것이나 나중에는 이성애적 환상이 증가하고 청소년기에 들어와서는 사정에 대한 신체적 기술과 성교의 경험을 통합하는 환상들로 발달한다." (김혜숙, 1995: 73) 이 글에서는 청소년기의 자위 행위의 환상의 양상이 어떠한가를 아이들의 성적 지향성과 포르노와 각각 비교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대상과 방법

이 연구는 1998년 3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졌다. 연구는 크게 4번의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우선 고등학생들을 인터뷰하기 전에 문제 설정을 위하여 연세대학교에 다니는 1-2학년생 10여명의 대학생들에 대한 예비조사가 있었다. 본 연구에 들어가서는 구로 지역에 사는 고등학생 20여명과 집단 토론을 통하여 예비 조사를 통해 작성한 문제 설정을 수정하여 34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 이를 토대로 만났던 고등학생들 중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주었던 아이들 10명7을 집중적으로 만나 심층면접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자료의 객관성과 한계를 분명히 하고, 보다 심층적인 자료를 위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연세대학교 대학생 10여명을 세 차례에 만나 집단토론을 하며 아이들의 이야기를 해석해 보고, 또 자신들의 경험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학생들의 비교와 해석을 다시 고등학생에게 들려주며 그들의 재비교, 재해석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논문이 개략적으로 완성된 후 아이들과 다시 만나 그들의 feed back을 들었다.

이 아이들을 만난 것은 '입시 보습 학원'을 통해서이다. 이들이 대학 가기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여전히 이들이 '학원'다니기를 계속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 수궁을 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아이들에게 좀 특이한 것이 있다면 이 학원의 분위기가 '아이들의 해방구' 비슷하다는 것이다. 학원 강사들도 자유스러운 사고를 하고 있으며, 교육 방침이나 아이들과의 관계도 단순히 지식만을 주고 받는 학원 강사와 수강생들의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인생의 동반자 비슷한 류의 관계를 맺

7) 여기에 나오는 아이들의 이름은 (가명)이라는 꼬리표를 뒤에 달고 있지 않는 한 다 실명이다. 이것은 아이들 스스로가 '강력히' 원했는데, 자기 이름이 어디에 실린다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였다. 한겨레21(1998. 5. 21일자: 44)에서도 망월동에 온 아이들을 인터뷰하였을 때 그 아이들이 "제 이름 꼭 넣어주세요"라고 말했다는 대목을 적어놓은 것이 있다. 이전에 될 수 있는 한 '자기 이름을 숨기려고'하던 것과 비교하여 흥미로운 현상이었다. 인터뷰 대상 중 (대)라는 꼬리표가 붙은 아이들은 대학생임을 의미한다.

고 있었다.

이 아이들은 말 그대로 그야말로 '보통 범주'의 아이들이다. 공부를 그리 썩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학을 못 갈 정도로 못하는 것도 아니며, '노는 부류'의 아이들도 아니며, 그렇다고 완전한 '범생'들도 아니다. 성과 관련해서도 '여자 친구'를 사귀기도 하지만, '성행위'에 대한 경험은 아예 없거나 거의 없는 편이며, '성행위'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며, 순결하고 순수해야 한다는 낭만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다. 또한 이 아이들은 주변에 학교가 거의 없는 관계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비교적 '동네 친구'로 지내 왔으며, 일종의 '또래 집단'적인 성격이 강하여, 같이 몰려다니는 편이다.

연구자 : 자기네들은 어떤 사람이죠? 범생? 날라리? 딱중간?

재신 : 딱중간이라고 보면 된다.

종태 : 아이들에게는 날라리라고 알려져 있고 선생에게는 범생처럼 노력

준우, 인상, 준영, 상석 : 범생이다.

종훈 : 학교에서는 엄청난 범생, 학교 밖에서는 측정 불가능(범생은 아님)

일건 : 범생도 날라리도 딱중간도 아니고,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사람.

형석 : 학교 안에서는 범생. 밖에서는 날라리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양아치.

물론 일건이나 몇몇 아이들은 자기네들을 '범생', '날라리', '딱중간'이라는 식으로 구분하는 것을 못마땅해하였다. 두부모 자르듯이 딱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런 기준이 기분 나쁘다는 것이며 누구의 잣대로 나누어지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아이들은 자신들이 학교에선 범생이고 밖에서는 범생이가 아닌 존재라고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듯 하였다.

아이들과의 이야기, 사례 연구는 한 명의 이야기를 쫓 들으며 사례별로 집중적인 분석을 끌어내기보다는 집단 면접의 형태로 연구자가 질문하면 아이들이 대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사례별로 집중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지만 연구자는 고등학생들과의 심층면접을 하면서 많이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고, 접근 방향

과 서술 방식을 바꾸어야겠다고 느꼈다. 그것은 연구자의 인터뷰 미숙이 원인도 되겠지만, 아이들의 입을 통해 '해석적인 언어'를 기대한다는 것이 한국의 교육 현실상 상당히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한마디로 아이들 역시 피상적이고 상투적인 언어로 자신들의 삶에서 곁돌고 있었다. 아이들은 웃고 떠들고 고함치는데는 익숙했지만 그것을 자기 언어로 풀어내는 데는 익숙하지 못했다. '재밌잖아요'와 '썰렁해요' 사이에서 뱀도는 그들의 언어를 들으면서, 좀 더 해석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질문자의 의도로 아이들의 이야기가 한정되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연구자가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이 대답하고 연구자가 그것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얘기하면 아이들이 평가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연구자의 의도가 지나치게 개입되는 위험부담이 있고, 또 이 아이들의 이야기가 한국 사회나 서울 지역 전체 고등학생들의 경험을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비교연구가 필요하였다.

이 비교 연구를 위해 선택한 것은 대학에 들어온 아이들 중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1-2학년들이었다. 연구자는 비교-성찰을 위해서 아이들과의 인터뷰를 대학교 1-2학년생 5-7명에게 보여준 후 그들로 하여금 아이들의 언어와 상황을 평가하고 비교하게 하였다. 대학 1-2학년생들은 비교적 생생하게 자신들의 고등학교 생활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이미 고등학교 생활을 '졸업'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더 '해석적'으로 말해줄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지역적 차이를 고려해서 강남 8학군 출신들을 주로 인터뷰하였다. 이것은 구로 지역이 서울에서는 보다 주변부 지역이라는 점 때문이다.

8) 실제로 이 인터뷰에서 '용산'에서 '강남'으로 전학을 한 경험이 있는 인터뷰 대상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포르노 보기'의 빈도와 방식에서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친구에 따르면 '용산'에서는 이태원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절대 다수'가 포르노를 보았으며, 학교에서 포르노를 돌리는 방식도 아주 공공연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강남'의 경우에는 이미 학생들 내에 '또래 집단'의 문화가 거의 확실하게 되어, 놀던 친구들과끼리 놀기 때문에 포르노도 같은 또래 집단들 내에서만 비교적 폐쇄적인 방식으로 돌아다니며, 이리저리한 이유로 '아예 안보는 친구'들도 꽤 많은 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인터뷰 자체가 고등학생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지그재그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례 연구는 고등학생들과의 문답식 인터뷰 위주로 실행되고, 간간히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실으며 분석하고자 한 것의 특징적인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대신 사례 인용다움의 분석과 토론은 연구자의 생각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과 평가, 그리고 비교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이야기하고 평가한 것을 종합하여 서술하였다.

이 글은 이제까지의 기술에서 드러나듯이 '민속지학'적 방법과 '담론 분석', 두 가지 연구 방법을 이용한다. 민속지학이 가진 장점은 연구의 대상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의 맥락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자신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아주 다양하게 해석한다. 이를 통하여 민속지학은 이 행위자가 스스로를 어떻게 맥락화하고 세계를 의미화하는지를 들어볼 수 있어 '이해와 소통'의 가능성을 드러내며, 생활 세계에 대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⁹⁾

아이들의 성적 실천이 형성되는 맥락을 드러내는 것과 아울러 '포르노 보기'가 형성하는 성적 세계에 대한 분할과 그 효과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담론 분석의 방법론을 차용하고자 한다. 물론 이때의 담론 분석의 대상으로서의 텍스트는 결코 '포르노'라는 개별적인 텍스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푸코에 따르면 담론은 언어화된 텍스트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담론 체계로 존재하면서 담론적/비담론적 효과를 생산해 낸다. 본 연구가 주목하자 하는 방법론은 바로 이 담론이 다른 담론들과 형성하는 망을 통하여 형성되는 담론이 어떻게 세계를 분할하고 위계화하며 그 각각에 어떤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윤리적 실천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9) 기어츠(Geertz, 1973)는 문화를 '의미의 그물망'으로 이해하며, '인간이란 그 의미의 그물망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문화 기술이란 이 의미를 드러내고 이해한다는 것이며 일종의 '심층묘사(thick description)'라고 이야기한다. 문화 기술자와 문화인류학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문화인류학 현지조사 방법」(Crane & Angrosino, 1996)을 참조하라.

담론 분석이 가진 큰 장점은 인식과 행동간의 인과론적인 설명 모델을 피하고, 대신 포괄적으로 담론이 가진 구성력이라는 개념으로 상상과 인식, 실천 모두를 포괄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담론 분석은 담론 자체를 단일한 차원으로 설명하지 않고, 담론의 장내에 여러 가지의 담론들이 서로 경합하며 균열된 형태로 접합되어 있다고 이야기한다. 텍스트 분석이 단지 텍스트내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면, 담론 분석은 텍스트 내에 어떠한 담론들이 뒤엉켜있으며, 이 뒤엉킴을 통하여 의미는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 경합과 접합을 통한 의미의 흐름이 바로 권력의 작동방식이며, 담론 분석이 텍스트 분석과는 달리 권력의 작동방식을 드러내주는 것은 이런 점 때문이다. 이 권력의 효과가 주체 형성 과정이다.

II. 연구의 이론적 맥락

1. 포르노가 재현하는 섹슈얼리티의 근대성과 남성중심성

포르노는 아이들의 섹슈얼리티에 담론적 구성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포르노를 본 아이들이 포르노를 모방하는가 안 하는가의 문제를 넘어서서 포르노가 성에 대한 아이들의 상상과 이야기 속으로 어떻게 관계해 들어가는가를 질문하는 것이다. 포르노는 성을 어떻게 재현해 내는가? 그리고 포르노의 재현 방식은 어떻게 아이들 속에서 담론적 구성력을 가지게 되는가? 또한 포르노 내부에는 어떤 권력이 작동하고 있는가?

성을 재현하는 방식에서 이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포르노의 재현 양식이 하이퍼리얼리즘이라는 것이다. 이야기를 삭제하고 오로지 성을 사실 같은 이미지-하이퍼리얼리티로 보여줌으로서 포르노는 성을 신경학적인 자극-반응 모델로 환원시킨다. 따라서 포르노에 재현되어진 성은 몸을 통해서 욕망의 에너지가 실현되는 과정이다. 근대적 성의 언어는 쾌락과 몸, 욕망의 일체화 속에 묶여 있다. 포르노는 그런 근대적 성의 가장 파국적인 양상(Baudrillard, 1996: 48-53)인 것이다.

포르노는 하이퍼리얼리즘을 통하여 성에 대한 특정한 언어들 - 욕망과 몸, 쾌락 -을 연결hyper시키며 성에 대한 현실realism을 구축한다. 이때의 현실은 '사실적' 담론과 이미지들의 연결과 접합으로 이루어진 사실보다 더 사실 같은 현실Hyperealism이다. 포르노의 언어 또한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 이미지들이 담론적 구성력을 가진다. 때문에 포르노에 재현되어진 이미지의 시선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포르노 내에서 작동하는 시선의 권력이 '누구'의 시선인가를 문제삼는 것이다. 포르노에 대한 페미니즘의 논의는 이 이미지 파워의 성격, 즉 시선의 권력을 문제삼는 것이다.

1) 포르노 : 근대적 성의 과묵적 양상

흔히 포르노는 '성'을 지저분한 점까지 남김없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이야기한다. 사실 포르노에는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삽입과 사정,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의 성애술이 적나라하게 묘사된다. 포르노는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성행위 모습을 그 자체로 보여주고 있는 듯 하다.

사람들이 포르노를 보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에로틱한 비포르노가 보여줄 듯 하다가 그만 보여주지 못하는 선 그 너머의 모습이다. 그런데 포르노는 비포르노의 러브신이 보여주지 못하는 그것 - 즉 성기의 접촉이라는 형태의 성'행위' - 을 보여주자 말자, 사실은 비포르노가 느낄 수는 있게 하였던 '그것'을 보여주는 커녕 지나쳐 버린다(Zizek, 1995: 222).

왜냐하면 사람들은 비포르노 러브신이 성행위를 보여주지 않을 때 '성기간의 접촉'과 그 느낌을 상상하면서 '성기간의 접촉'이라는 '행위'만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면화된 욕망'으로써의 환상을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Lapsley & Westlake, 1995: 129). 그러나 그 환상은 시각적으로 재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무엇¹⁰⁾이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은 포르노에서 성에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모습은 결코 보지 못한다.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 '성'을 남김없이 보여주는 포르노는 '성'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것'을 보여주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욕망할 것인가를 배우면서 '욕망 하는 주체'로 구성되는 '환상'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단지 사람들은 눈앞

10) 룬파르는 이것을 숭엄에 대한 논의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그에 따르면 근대 예술이란 현시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데에 할애하는 예술이다. 즉 '생각할 수는 있으나 볼 수 없는, 그리고 보이게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 바로 여기에 근대회화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는 것'(Lyotard, 1993: 33)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바로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인가?'(Lyotard, 1993: 33)라고 질문을 던진다. 이것을 포르노에 적용해 보면 '성'은 인식할 수 있으나 현시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포르노는 바로 이 현시할 수 없는 것을 가시화한다. 그리고 가시화한 그것을 진짜 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포르노의 담론적 근거가 바로 근대 성 과학이기 때문이다.

에 펼쳐지는 지루한 단순 반복 행동만을 '그저' 지켜볼 따름이다.

이것은 순수한 '섹스'의 재현이 가능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포르노의 이데올로기는 '섹스를 위한 섹스', '섹스만의 섹스'라는 섹스의 순수함, 그리고 그것의 순수한 재현이다. 하지만 이런 순수한 섹스란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나 섹스는 사건속에 존재하며, 사건화된다. 그것은 섹스라고 불리우는 것 자체가 담론이며, 담론적 구성물이기 때문이다.

강간의 경우와 같이 불평등한 권력이든, 사랑하는 이와 섹스와 같이 '소통'이든 모든 성행위에는 '사건'이 존재한다. 때문에 '성행위'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 그것이 순간이든, 오랜 시간이든 - 사건을 이루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 narratives에 둘러 쌓여 있고 이야기를 구성한다. 이야기는 성행위에서 관계의 의미¹¹⁾를 드러내며 맥락context을 제공한다. 그리고 성행위는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실재화함으로써 사건을 보증한다. 그러나 포르노는 성'행위'를 구성해 나가는 이 이야기를 파괴하고 오로지 성'행위'만을 보여줄 뿐인 것이다.

영화에서 이야기는 욕망의 순간을 끊임없이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는 사건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유예시키면서 욕망의 '순간이 일어날 방식과 시기의 문제를 불확정상태로 남겨두면서도 도달할 수 없는 그 순간을 향해 욕박할 때' 생겨난다(Lapsley & Westlake, 1995: 130). 이야기는 욕망의 순간이 어느 한 곳에 고정되지 못하게 하여 지속적으로 이야기내에서 미끄러지게 한다. '환상은 욕망의 물음에 결코 확답을 제공할 수 없으며 단지 그 물음을 재차 제시할 뿐이다'(Lapsley & Westlake, 1995: 130)

11) 배종훈(1997: 20-31)은 [파리에서의 마지막 탕고]에서 두 남녀가 과묵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를 '이름'을 통해서 분석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성적 대상으로 삼은 한 인간의 전인적 성격구조와 맞닥뜨려 사랑하고 성교할 내면적 자신이 없는 사람만이 상대방의 무생물적 일부분에 집착하거나, 또는 자신이 상대하기 좋은 성상대에 집착한다. 다시 말해서 한 여성, 한 남성을 사랑함에 있어서, 또는 성적으로 관계 맺는 행위에 있어서, 단순히 상대를 하나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녀)가 그 관계의 의미를 추구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관계의 문제는 '의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권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권력과 의미를 통하여 성행위는 이야기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포르노는 이 욕망의 순간을 성'행위'로 가시화 함으로써 이 미끄러짐을 중단시켜버린다. 다 보여주자 말자 이야기는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단지 성교로 이끄는 행위들의 구실로서만 기능하기 시작하기 때문¹²⁾이다 (Žižek, 1995: 224). 더구나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행위를 수평적으로 배열하고 똑같은 행위를 반복해서 보여줌 - 이것이 포르노의 목적이다 - 으으로써 영화를 '평평한 것'으로 만든다. 중단과 평면화를 통해 욕망의 미끄러짐, 즉 이야기의 가능성은 파괴된다. 즉 성행위를 보여주는 순간 성에 대한 이야기는 성'행위'로 전환되어 버리고 '성'행위의 이야기는 파괴되어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포르노에서 성은 사건이 아니라 해프닝에 불과한 것처럼 그려진다. 사건은 이야기를 통해 해석되고 의미화됨으로써 사건이 된다. 하지만 포르노는 이런 해석과 의미화없이 성이 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성을 사건이 아닌 해프닝으로 만들고자하는 것이다. 돈을 들여서 스토리를 갖추었다는 포르노조차 대부분 코미디로 전락하기 일쑤인 것¹³⁾은 포르노에서 성은 끊임없이 '사건'이 아닌 '해프닝'으로 추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수한 섹스'란 '이야기를 파괴하는' 포르노의 담론적 효과일 따름이다.

이야기가 파괴된 '순수한 섹스'는 실제보다도 더 실제같은 하이퍼리얼리티¹⁴⁾로

12) '주제는 언제나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르며 결코 자신의 욕망의 대상과 보조를 맞출 수가 없다. '정상적인' 리브스토리-성적인 것이 작동하는-가 접근은 하지만 결코 도달할 수 없는/금지된 대상은 오직 은폐된 채로, 암시된 채로, 위조된 채로만 존재한다.....이는 성적인 행위를 직접 보여주는 것과 영화적 이야기(스토리를 펼쳐 가는 것)간의 조화와 일치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필연적으로 잃어버리게 된다.' (Žižek, 1995: 223)

13) 한국의 예로비디오들은 사실 제목으로 한몫을 하고 있다. 주로 패러디를 많이 하는데 [용의 눈물]을 패러디한 [용의 국물]부터 시작해서 [젓소부인 바람났네]를 패러디한 [빠빠부인 진동 왔네]를 비롯한 수많은 부인 시리즈 등등이 있다. 이 대부분의 예로비디오들은 원작의 스토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스토리는 억지추행식으로 '섹스'에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하다. 물론 [목구멍 깊숙이]라던가 [All Ladies Do It]같은 아주 훌륭하다고 평가되는 것들도 있지만 외국의 경우에도 [에로틱 타잔]등과 같이 이전의 텍스트를 우스꽝스럽게 끼워 맞춘 것이 대부분이다.

14) 하이퍼리얼리티가 보드리야르의 이론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상당히 높다. 보드리야르에게 있어 최근 사회의 하이퍼리얼리티는 시뮬라시옹에 의해 새로이 만들어

재현된다. 보드리야르는 포르노가 해부학적인 중환영의 효과를 통하여 실제의 차원을 소멸시킨다고 말을 한다(Baudrillard, 1996: 48). 사실 포르노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부분과 움직임을 낱알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포르노는 성의 영역에서의 리얼리즘의 대항연이다(Baudrillard, 1996: 53) 포르노는 성을 명백한 것으로 만들어 구체화시킨다. 포르노는 성에 육체와 욕망이라는 실체를 부여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들은 이제 육체와 욕망을 통하여 '성'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으며, 보여줄 수 있게 된다. 즉 성은 거짓없이 재현될 수 있으며, 그 재현의 기호의 권력 하에 놓이게 된다(Baudrillard, 1996: 53-54).

그러나 포르노는 결코 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없다. 사람들은 포르노를 통해 너무 가깝기 때문에 보지 못하던 것이나, 결코 본 적이 없던 것을 보게 된다. 포르노는 성에 대해 '지나치게' 많이 반환된 것이다(Baudrillard, 1996: 47-48) 기술적 장치에 의해, 그리고 기술적 장치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실재를 구성하며 실재를 압도한다. 따라서 포르노는 '거리'를 통해서만 감지될 수 있는 '아우라'가 상실된다(Baudrillard, 1992: 69 역주 참조) 카메라를 성기에, 성기 속에, 육체 속에 지나치게 가깝게 들이대어 이 '거리'를 소멸시키기 때문이다. 포르노에 재현된 성은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하이퍼리얼리티이다. 아니 포르노가 역으로 성을 실제로 만들어낸다.¹⁵⁾

진 실재이다. 이 실재는 시뮬라크르적인데 그것은 있는 실재를 왜곡해서 반영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척하는 것이고 그 스스로가 실재가 된다. 시뮬라크르와 실재의 회전관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들의 자전'을 참조하라. 시뮬라크르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는 '시뮬라크르와 공상과학'을 참조하라.

15)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를 포르노에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다(Baudrillard, 1992: 39-43). 시뮬라크르로서의 포르노의 성은 이중적인 기능을 한다. 하나는 성을 가시화 함으로써, 욕망이 육체에서 쾌락으로 실현되는 것을 '성'으로 이야기한다. 두 번째로 포르노는 그 스스로가 성에 대한 가짜임을 밝혀내어 그 어딘가에 진실한 성욕, 진실한 오르가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사람들은 포르노에 의해 이중적으로 속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포르노가 왜 '성'을 하이퍼리얼리즘으로 구성해내는가이다. 그것은 포르노의 숙명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의 포르노로의 결집은 있는가? 그러나 이 '거리'의 소멸은 근대적 시선이 사물을 다루는 방식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숙명이다. 기술복제시대에 예술작품이 '아우라'를 상실하는 것처럼 성을 다루는 근대적 시선에서 성을 포르노적으로 다루는 것은 숙명이다. 그것은 포르노가 근대에서 '가시성'의 힘이 정점에 이른 서구의 현존의 형이상학의 향연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포르노는 어떻게 해서 성을 가시화 시키는가? 그것은 근대 서구 성과학에서 성을 구성하는 '쾌락-욕망-육체'의 삼위일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욕망은 '성'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로 존재하며, 육체는 욕망이 작동하는 장소이고 쾌락은 욕망이 육체를 통하여 해소되고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가 폐쇄적인 순환고리를 만들어서 근대 서구의 '성'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 서구의 성은 이 세 가지의 고리 속에 갇혀 있다.¹⁶⁾ 이런 점에서 포르노는 모든 것을 자명하게 만들어 눈앞에 펼쳐 보이려고 노력하는 서구의 현존의 형이상학¹⁷⁾과 긴밀히 맞닿아 있으며 동시에 성이 다른 담론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자체로 하나의 실체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근대적 산물¹⁸⁾이다.

다시 말하면 포르노 문화는 구체적인 것의 이데올로기, 사실성의 이데올로기, 용도의 이데올로기이고, 사용가치 우위의 이데올로기, 상황의 실제적인 하부 구조의 이데올로기, 욕망의 실제적인 하부구조로서의 육체의 이데올로기이다. 게다가

16) 이 점에 대해서 푸코는 『자기의 테크놀로지』에서 그리스-로마 시대가 보통 상상하 있던 것만큼 성적으로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었음을 밝혀내고 있었다. 그리스-로마 시대에 성은 '자기애의 배려'나 '자기의 테크놀로지'라는 윤리적, 미학적 문제설정의 하위 범주였지, 결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어떤 것이 아니었다. 또한 『포르노의 발명』에서도 이 점은 잘 지적되고 있다. 근대 이전까지 포르노는 정치와 종교에 대한 가장 신랄한 조롱의 무기였지, 결코 성에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17) '포르노는 숨은 진리와 이러한 진리의 폭로에 대한 환각만으로 유지되는, 그리고 '억압된' 에너지와 그 에너지 생산에 대한 환각만으로 지탱되는 형이상학의 연장선 상에 있다.'(Baudrillard, 1992: 51)

18) '섹스의 실재를 믿는 환상, 그리고 간단히 섹스를 말할 수 있다고 믿는 환상, 투명성을 믿는 모든 담론의 환상은 기능적인 담론, 과학적인 담론, 진리에 대한 모든 담론이 지니는 환상이다.'(Baudrillard, 1992: 66)

포르노 문화는 일차원적인 문화이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는 모든 것이 생산의 구체성이나 쾌락의 구체성 속에서 고양된다. 이 세계의 외설스러운 그 어떤 것도 가상에 맡겨지거나 우연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필연적인 기호이다(Baudrillard, 1996: 55).

때문에 포르노는 라캉식으로 이야기하면 영원히 거북이와 조우할 수 없는 아킬레스의 운명과도 같다(Zizek, 1995: 223).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거나 - 에로영화 - 순식간에 지나쳐버리는 - 포르노 - 것밖에 없다. 따라서 포르노는 쾌락-육체-욕망이라는 고리로 만들어진 근대의 성을 '무한반복'해서 보여줄 수 있을 뿐이다. 포르노는 성에 대한 성의 동어반복이다. 왜 대부분의 포르노들이 백력이 없는지는 이렇게 자명해진다. 그것이 가장 포르노다운 성의 재현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근대의 성은 리비도의 경제학에 대한 충실한 반영이다. 성행위에 이르는 다른 '절차', 아니 '성행위'를 수반하는 다른 절차는 무시된다. 성적인 것은 욕망이 쾌락 속에서 실현되는 순환고리속으로 엄밀하게 한정된다. 그것이 성이고 성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그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것은 성은 쾌락-욕망-육체의 순환고리 속에서 오르가즘으로 놀랄 만큼 구체화된다. '성적 쾌락'의 실체는 오르가즘이고 성행위는 그것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며, 욕망은 '오르가즘'을 통하여 해소된다. 이것이 근대적 시선의 '성'의 요체이다. 때문에 근대에서 성은 욕망이 오르가즘으로 즉각적이고도 강제적으로 실현된/되는 것이다. 근대에서 성의 중심은 욕망의 자연화를 통하여 리비도적인 경제학 쪽으로 이동한다. 성은 '생산적인 형태'의 과정, 성의 경제학 - 성욕의 생산과 순환, 그리고 에너지 - 의 과정'(Baudrillard, 1996: 61)이다.

포르노는 이런 점들 때문에 성행위장면만을 무한 반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다. 성행위만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포르노들은 가장 포르노다운 포르노인 것이다. 더구나 포르노가 그 장면들을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하이퍼리얼리티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포르노가 성을 다루는 방식, 즉 근대가 성을 다루는 방식 그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다. 포르노는 '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근대가 성을 다루는 방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포르노에서 하이퍼리얼리티는 근대적 시선의 숙명이다. 보이지 않는, 보일 수 없는 것에 대한 재현이 하이퍼리얼리즘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근대의 파국적 결말인 것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포르노에는 상호 교섭적인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포르노에는 사물과 사물의 부딪침, 욕망의 에너지의 발산과 해소라는 일방적인 과정만이 그려질 따름이다. 포르노에 타자에 대한 고려나, 자기자신에 대한 배려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얼굴 없는 대상들이기 때문이다. 포르노는 '이야기'의 제거를 통해 관계가 형성되는 맥락을 제거하며, 성행위에 대한 하이퍼리얼리티의 구축을 통해 교감의 과정을 '욕망'의 해소로 치환시켜 버린다. 따라서 자기와 상대에 대한 배려와 교감이라는 재현할 수 없는 '얼굴 표정'과 '놀이'의 삭제는 욕망-쾌락-육체라는 설정 속에서 섹슈얼리티를 구축한 근대가 성을 다루는 방식의 숙명적 결과이다.

2) 남성 시선에 따른 재현

포르노가 근대적 시선에 따라 성을 맥락 없이 '성' 그 자체만으로 다루고 있다고 해서 포르노의 남성중심성을 비판하는 여성주의자들의 노력이 의미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성주의자들은 포르노에 대한 연구에서 포르노가 성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이해를 돕는다. 그것은 포르노 내부에 재현되어 있는 남성과 여성의 권력관계에 대한 문제이며, 이 권력관계는 단지 '포르노내부에서만' 재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포르노 안/밖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보드리야르는 포르노가 남성 중심적인 성욕을 재현해내고 있다는 여성주의자들의 공격을 그 자체가 바로 성욕을 자연화하며,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생물학적인 본질주의로 환원시킨다며 공격한다. 물론 여성주의 내부에서 포르노의 남성성을 본질주의적으로 다루는 그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노가 '남성과 여성'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한에 있어서는 '권력'의 문제가 개입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문제는 포르노에 재현되어 있는 남성과

여성의 권력관계를 본질주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분석해내는 일일 것이다.

'Pornography, Pleasure of Men'(Itzin ed., 1992)이라는 수사가 말하듯이,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대부분의 포르노들은 성을 남성적 시선으로 구성해낸 재현물이다. 그러나 포르노의 남성성에 대한 논의에서 여성주의자들의 시각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성주의자 내부에서도 '포르노'의 남성성에 대해서는 수많은 시각이 존재하며, 그 각각의 시각들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사실 그 논점들은 '여성적 성욕' 혹은 '성에서 여성적이라는 것의 의미'등등 여성주의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포괄하는 미묘하고 복잡한 논쟁거리¹⁹⁾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포르노가 남성 시선에 의한 성의 재현이라는 것에는 별로 이견이 없어 보인다.

첫째, 성행위 과정에 대한 남성적 이해이다.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포르노의

19) 포르노를 둘러싼 여성주의자들의 공방은 1980년대 반포르노 입법 추진 운동과 맞물려서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논쟁중의 하나가 되었다. 논쟁의 현상적인 모습은 포르노에 대한 검열의 문제였다. 드워킨과 매키논을 중심으로 한 반섹스파들은 포르노 자체가 남성에 의한 여성의 폭력이라는 남성성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반포르노입법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심지어 가부장제 하에서 섹스는 그 자체로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재생산하는 기제에 지나지 않으며, 여성의 시민권을 침해하는, 그 자체로 여성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폭력행위라고 지적한다. 때문에 그런 섹스의 모습을 구경거리화한 포르노는 거의 남성들에 의해 소비되기 때문에 남성적 성욕을 만족시켜주는 것으로만 여성의 모습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친섹스파, 특히 '사도마조히즘' 레즈비언 그룹들은 드워킨의 주장이 성에 대한 우파의 도덕주의와 차별성이 없다며 반발한다.

그러나 논쟁은 사실 내부에 보다 복잡하고 미묘한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들을 내장하고 있었다. 그것은 욕망의 본질, 여성의 쾌락, 성관계 등(윤자영, 1998: 12)의 문제이다. '사도마조히즘' 레즈비언들에게는 가학적-피학적 성관계 모델이 일방적으로 '남성성'의 산물이며, 남성성에 의해 오염된 성관계방식이라는 주장은 참을 수 없는 문제였다. 또한 탈근대주의자들로서는 욕망의 본질을 운운하는 것은 그들의 철학적 기반 자체를 허무는 도전이었으며, 이성애 여성주의자들에게 반섹스파의 주장은 '모든 여자가 레즈비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닌 것으로 비춰졌다. 이리면서 포르노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비판은 가부장제 하에서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한 문제에서 섹스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라는 전혀 엉뚱한 문제로 넘어가 버렸다(윤자영, 1998: 12).

대부분은 '발기-삽입-사정'에 이르는 남성 성기의 움직임에 카메라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부분의 포르노들은 남성의 사정 행위를 극대화하여 보여줌으로써 사실상 '성행위'의 종료를 선언한다. 즉 남성이 쾌감에 도달함과 동시에 성행위는 끝나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의 성적 쾌감이 남성의 성욕 해소와 더불어 해결된다는 지극히 남성 중심적인 성애관이다.

둘째, 여성의 모습이 성에 굴주된 '게걸스러운' 존재로 묘사(Itzin, 1992a: 66; Arcand, 1993: 103)된다는 점이다. 여성이 성에 굴주된 카오스와 같은 존재라는 것은 남성들 속에 숨겨져 있는 여성들에 대한 공포(Arcand, 1993: 108)의 반영이다. 남성들은 한편에서는 여성들에게는 성욕이 없을 것이라라고 상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밀도 끝도 없는 무한한 성욕을 가진 존재일 것이라는 사실에 두려워한다. 포르노에 그려져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성의 화신'인 것처럼 묘사되는 것은 여성의 성욕에 대한 남성적 재현인 것이다.

셋째, 남성은 여성을 언제라도 성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존재로 묘사된다. 이것은 남성이 자기자신에게 원하는 환상의 반영이다. 많은 남자들은 성은 남성이 리드하는 것이며, 여성의 성욕은 남성에 의해 충족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남성들은 자신이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공포스러워한다. 포르노에 그려져 있는 '슈퍼맨'과 같은 남성들은 이런 공포의 역반영인 것이다.

이것은 일견 위의 능동적인 여성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성은 '성에 대해 게걸스러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여성 혼자 힘으로는 채울 수 없는'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되는 것이다. 여성의 성욕은 항상 남성을 필요로 한다. 여성의 성감을 움켜쥐지 않는 '질'로 한정시키는 것이 포르노의 전형적인 재현 방식이고 이것은 명백히 남성적인 시선에서의 여성의 성욕의 반영이다. 결국 여성의 성욕에 대한 능동적 묘사는 남성에 의할 때에만 충족 가능한 다른 이데올로기와 짝을 이루는 것으로 명백히 제한된다.

넷째, 포르노는 주로 남성들에 의해 소비되며, 남성들의 연결망을 통해서 유통된다는 점이다. 남자 청소년들에게 포르노를 보는 것은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서 일반화되어 있는 편이며(윤자영, 1997: 34), 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더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위에서 많이 제공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포르노 산업의 주 고객은 남성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당연히 포르노에서는 남성적 시선에 의한 성의 재현이 압도적인 숫자로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포르노에 대한 페미니즘의 논의는 이 네 가지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왜 대다수의 포르노에 재현되어 있는 성에 대한 이미지가 남성 중심적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다수의 포르노는 성을 남성 성기 중심적 성행위 모델로 제한적으로 재현하는 일정한 경향성이 있다. 때문에 지배적인 포르노에서는 여성의 느낌과 생각은 거의 배제되어 있다. 거기에 재현된 여성의 이미지는 대부분 남성의 욕망과 공포에 의한 재현이기 때문에 재현 그 자체도 허구이지만, 재현하는 시선에서도 여성은 제거되어 있다. 따라서 포르노에는 '남성의 시선에 의해 재현된 여성과 남성'이라는 허구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만이 설정된다.

2. 텍스트 해독에 대한 문화 이론적 접근

포르노와 청소년의 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 가장 논쟁적인 지점중의 하나는 청소년들이 포르노를 보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가의 문제이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성범죄와의 상관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다수의 성범죄 가해 청소년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음란물'을 통해 성지식을 형성한다는 분석²⁰⁾이나 '음란물을 보고 모방 심리 충동을 느꼈는가'에 대해서도 가해 청소년들이 35%이상 높은 수치(김지혜, 1996: 11)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대표적인 것이다. 성폭력 상담소의 연구는 '음란물이 이들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이들 간에 상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김지혜, 1996: 12)며 청소년과 음란물의 상관 관계에 대해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비록 상관관계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리고 있기는 하지만²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할 것이라는

20) 청소년들의 성지식의 통로 중 서적, 잡지나 음란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0.03%이지만, 가해 경험자의 경우는 31.82%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지혜, 1996: 3).

21) '비행 친구의 영향이 음란물 접촉보다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에 있어서 친

점을 선형적으로 확산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힘들다.²²⁾ 도덕적 엄숙주의자들이건 페미니스트들이건 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음란물이 청소년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비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확산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포르노가 어떤 그대로 수용되고, 성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행동으로 이끈다는 주장은 수용되기 힘들다. 이것은 미디어의 메시지에 대한 전달 이론적 관점으로써, 미디어가 생산되고 해독되는 과정에 개입하는 수많은 과정과 계기들을 무시하는 이론적 가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포르노의 내용이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러저러한 영향을 직, 간접적으로 받을 것이다'²³⁾라는 주장은 메시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오히려 만약에 포르노가 아이들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면, 청소년들을 둘러싼 어떠한 사회적 환경이 그 메시지를 어떤 그대로 수용하게끔 하는가라는 문제로 대체될 때만이 유의미한 분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들의 어떠한 사회적 조건이 성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포르노적인 담론'을 성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가의 문제이다. 그것은 역으로 아이들은 어떠한

구의 영향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으나, 배경 변인의 영향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음란물 접촉의 영향력이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음란물이 여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김준호·김혜원, 1997: 42)

22) '중다 회귀 분석은 본질적으로 상관성을 보여주는 것이지 인과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음란물을 통해 여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가 형성되는 것인지, 여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접촉이 많아지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음란물 접촉을 통해 왜곡된 가치가 형성되며, 왜곡된 가치는 음란물을 더욱 탐닉하게 되어 결국은 비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김준호·김혜원, 1997: 42-43) 강조는 연구자가 한 것이다.

23) 그러나 사실 이러한 주장은 아무 것도 말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고 문제 설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아이들이 포르노를 접하면서 성적인 흥분을 느끼고, 성적 충동을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어른들의 경우와도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향'이라는 말보다는 '구성'이라는 말이 이론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포르노를 통하여 아이들이 자신들의 섹슈얼리티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설정 자체가 왜 유독 포르노만이 아이들의 섹슈얼리티를 구성하는데 과도하게 의미화 되는가로 전환되어야 한다.

담론적/비담론적 조건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섹슈얼리티를 구성하는 적극적인 담론으로 포르노를 활용하게 되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미디어의 메시지는 해독자의 해독 환경의 차이와 변화에 따라 다층적으로 해독된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

텍스트와 수용자의 능동성의 문제는 문화이론에서 제법 오랜 세월동안 핵심적인 논쟁거리중의 하나였다. 초기 문화 연구가 사회적 실천과 문화 상품, 제도들을 하나의 텍스트로 해독해 내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론적 전략(Turner, 1995: 107)이었다. 그러나 문화 연구에서 텍스트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는 텍스트가 만들어지고 해독되는 장으로서의 일상 생활과 수용자의 능동성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이다(Turner, 1995: 155). 이에 대한 반성에서 기인한 수용자에 대한 문화 연구는 물리의 네이션와이드의 분석(Morley, 1980)에서 출발하여, 스튜어트 홀(Hall, 1980), 드 세르토(Certeau, 1996), 존 피스크(Fiske, 1989; 1993; 1996), 이엔 앙(Ang, 1985)등의 연구로 이어졌다. 이 중에서 스튜어트 홀은 '기호화와 기호해독 encoding and decoding'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텍스트와 수용자의 관계에 대한 기호학적/구조주의적 경향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인물로 평가된다(Turner, 1995: 109).

홀은 의미가 생산되고 메시지가 기호화되는 의미구조와 수용자에 의해 해독되는 의미 구조가 결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Hall, 1996: 281)하며 생산, 순환, 배포/소비, 재생산 등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각 지점들을 인과적으로 연결해적이기보다는 '접합articulation'되어 있는 구조(Hall, 1996: 287)로 파악하고자 한다. 일단 홀은 '메시지의 담론 형태는 커뮤니케이션 교환 행위에서 특권적인 위치'(Hall, 1996: 289)를 가지고 있어서 '기호화와 기호 해독은 상대적인 자율성'(Hall, 1996: 289)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기존의 구조주의 이론 모델을 수용한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기호화와 기호해독을 지배하는 의미 규칙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지 않을[즉 똑같지 않을] 수도'(Hall, 1996: 290)있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조적 위치들 사이의 차이²⁴⁾때문이고 두

24) 홀은 수용자의 위치와 코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계급'의 문제라고 상정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물리는 특정 계급과 특정 해독의 연결이

번째는 생산자와 수신자의 의미 규칙의 차이때문이다.

이는 미디어의 메시지의 외연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가 분석적으로는 자명하게 구분되지만 실천적으로는 모든 메시지는 '내포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기호의 내포적 의미는 '의미와 연상이 발생하는 다양한 담론의 장에서 기호가 어떠한 맥락에 있고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의미의 수준'(Hall, 1996: 296)이다. 때문에 기호화는 수용자가 기호해독의 과정에서 기호화가 의도하는 특정한 '의미 있는 사회적 실천'을 채택되도록 시도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시도가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호해독은 '그 나름대로의 존재조건'을 가지면서 기호화 과정도 '접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과정의 접합의 양식을 분류하는 것인데 홀은 이런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해독 위치를 1) 지배적-헤게모니적(dominant-hegemonic) 해독, 2) 타협된(교섭된)(negotiated) 해독 3) 대항적(oppositional) 해독 등 세 가지로 범주화하였다(Hall, 1996: 301-304; Turner, 1995: 109-115).

지배적-헤게모니적 해독이란 수용자가 메시지에 코드화 되어 있는 내포적 의미를 그대로 수용하며 기호화될 때의 틀에 맞추어 메시지를 해독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는 수용자가 '지배적인 의미 규칙 내에서 움직인다'(Hall, 1996: 301)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교섭적 해독이란 기호화된 메시지에 대해서 수용자가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환경과 관련하여 해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해독은 기호화되어 있는 지배적이 정의에 일차적인 의미를 부여하지만 국지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황적 논리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Hall, 1996: 304). 따라서 교섭적 해독은 순응적 요소와 저항적 요소가 뒤섞여 있으며, 모순으로 점철된 것이다. 마치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밝혀냈다(Turner, 1995: 133). 따라서 이 글에서는 홀의 해독 위치라는 개념을 보다 더 확장하여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확실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요인들(성, 인종, 직업 등등)들에 의해 형성된 주체의 입장들도 예측할 수 없고,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때로는 내적으로 모순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물리는 - 다른 수용자 연구자들도 - 텍스트가 소비되는 맥락의 중요성과 수용자들에게 부과되는 상이한 사회적 상황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였다'(Turner, 1995: 133) - 강조는 본 연구자.

막으로 대항적 해독은 메시지를 완전히 반대로 해독하며 대안적인 준거틀에 따라 메시지를 재구성하고 지배적인 코드를 해체한다. 홀은 이중에서 타협적 방식으로 의미 작용과 기호 해독이 이루어지던 사건들에 대해 수용자들이 대항적 해독을 하기 시작하는 때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때라고(Hall, 1996: 304) 이야기한다.

홀의 기호화/해독 모델보다 더 급진적으로 수용자에게 능동적인 권한을 부여한 인물로는 피스크를 들 수 있다. 피스크는 '시청자들은 시청 당시 자신의 사회적 상황과의 관련을 통해 텔레비전에 대해 의미와 쾌락을 부여하며, 연계성의 범주는 시청 상황에 앞선 개념'(Fiske, 1988: 247; Turner, 1995: 175에서 재인용)²⁵⁾이라고 이를 통해 '수용자'의 범주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무언가 텍스트를 접하고 있는 사람을 단지 그 텍스트를 접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적으로 범주화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자를 둘러싼 실제의 일상 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드러내어야함(Radway, 1988: 367)을 주장하는 것이다. 때문에 피스크의 논의는 방법론적으로 민속지학ethnography으로 귀결되고 있다.

홀과 피스크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홀의 기호화/기호 해독 논리는 여전히 이론적, 방법론적 타당성을 많이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피스크가 비록 민속지학으로의 선회를 통하여 대중들의 복잡한 일상이 텍스트 해독에서 갖는 의미를 확장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읽히고 있는 텍스트가 무제한적으로 열려있는 무정부적인 공간이기보다는 해석의 가능성이 불완전하게 한계 지워져 있다고 보는 것²⁶⁾이 더

25) 이에 대해서 피스크는 『Power Plays, Power Works』 1장에서 Homeless들이 Die Hard를 보고 있는 것의 묘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홈리스들은 통합된 부와 권력의 상징이 스펙타클하게 붕괴되는 것에서 커다란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그가 그 영화의 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하는 것은 그가 혼자이고, 또 권총 한 자루만 준비되어 있으며 오로지 자신의 물리적 힘과 재주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영화 후반부에서 주인공이 경찰과 연대하기 시작하면서 홈리스들의 영화에 대한 집중은 떨어져 버린다.'(Fiske, 1993: 5) 결국 피스크는 '문화란 우리들의 사회적 경험으로부터, 사회적 경험의 의미들을 생산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다'(Fiske, 1989, 1)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는 『Reading the Popular』를 통하여 쇼팽, 해변, 비디오 보기 등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읽고 있다.

26) 예코는 그의 저서 『해석의 한계』와 『해석이란 무엇인가』, 『소설 속의 독자』를 통하여 해석이 열려있기는 하지만 무정부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공동

타당해 보인다. 즉 텍스트를 해독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 세계에 의해 텍스트 자체를 평평하게 해독하기보다는 굴곡적으로 해독하는 것처럼, 텍스트를 생산하는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일상 세계와 맥락에 의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텍스트를 기호화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수용자의 해독 위치에 대한 홀의 견해는 계급이나 몇 가지의 한정적인 사회적 지표로부터 피스크가 이야기하는 일상 세계라는 맥락으로 보다 확장될 때 더 유의미해진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홀의 미디어 해독 논의를 민속지학적으로 확장하여 청소년들의 포르노 해독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포르노라는 텍스트에는 특정한 이데올로기와 가치 체계가 특정한 방식으로 기호화되어 있다. 그러나 그 텍스트는 청소년이라는 수용자가 평소에 접하는 성의 영역 안팎의 다양한 경험과 담론들 속에서 선택적이고 교섭적으로 수용한다. 더구나 이 수용의 과정은 상황 논리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포르노 내에 기호화된 것이 자신들의 경험과 이야기들과 충돌하며 해독되기 때문에 포르노 텍스트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는 일관되기보다는 모순적이고 분열적일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체가 특정한 해석에 합의하는 순간부터 비록 객관적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상호 주관적인) 시니피에가 생겨나고, 이랬든 이 시니피에는 공동체의 합의 없이 일어난 어떠한 해석보다도 우선권을 가진다. 그리고 보편적인 탐색 과정의 결과는 공통적인 개념의 핵을 지향한다.(Eco, 1995: 446) 이러한 바탕 위에서 예코는 무한정한 기호현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러한 흐름에서 해석자들은 그들의 목적에 쓸 만한 형태를 얻어낼 때까지 텍스트를 - 로티의 온유를 벌리자면 - 마구 주무르고 파헤치기 때 문.....적어도 무한한 기호현상은 <될 수 없는 것>을 밝히는데 있다'(Eco, 1995: 448)

III. 청소년들의 포르노 이용 실태와 실천적 의미

1. 일상화된 포르노 문화

여러 가지 조사 기관에서 이루어진 지난 10여년 동안의 청소년들의 포르노이용에 대한 조사 결과들은 고등학교 남자 학생에게 포르노는 이미 '별 것' 아닐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거의 대다수의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소프트웨어 포르노나 포르노에 가까운 에로물을 접하고 있으며, 하드 코어 포르노에 대한 접근 역시 많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포르노를 본 경험에 대한 조사(단위는 %)

음란물의 종류	경험 여부		전체
	경험이 없다	경험이 있다	
성인용 비디오 영화	73(14.0%)	450(86.0%)	523(100.0%)
포르노 비디오	82(15.7%)	441(84.3%)	523(100.0%)
성인용 주간지	210(40.2%)	313(59.8%)	523(100.0%)
포르노 잡지	193(36.9%)	330(63.1%)	523(100.0%)
포르노 사진첩	255(48.8%)	268(51.2%)	523(100.0%)
성인용 만화	52(9.9%)	471(90.1%)	523(100.0%)
음란 컴퓨터 프로그램	115(22.2%)	408(78.0%)	523(100.0%)
없다	511(97.7%)	12(2.3%)	523(100.0%)

출처 : 김준호·김해원(1997: 26)

그러나 인터뷰에서 드러난 아이들의 이야기 맥락은 이것이 단지 양적인 의미에서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더 나아가서 포르노는 아이들의 일상 공간인 교실, 학원 등에서 유통되고, 친구나 선배 등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으며,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자기 스스로도 포르노의 배포자가 되며, 소비 역시 일상 공간인 자신의 집이나 친구의 집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포르노는 아이들의 일상에 가까이 위치해 있는 - 따라서 일상'밖'에 위치한 - 것이 아니라 일상'속'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포르노가 아이들의 섹슈얼리티에 강력한 담론적 구성력을 가지는 것은 다른 매체에 비해 월등하게 성을 '생생하게' 재현한다는 점과 아울러 그것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이미지라는 데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절에서는 1) 포르노를 처음 본 때와 느낌 2) 포르노를 주로 보는 장소와 빈도에 대한 기초적인 민속지학ethnography을 통하여 포르노가 이미 일상 문화가 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1) 포르노의 수용 과정

포르노를 처음 본 시기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아이들은 중학교 때를 즈음하여 처음으로 포르노를 접하였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포르노를 본 장소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친구의 집에서 보거나 친구에게 빌려와서 자기네 집에서 보았다는 경우가 대다수이다.²⁷⁾

연구자 : 포르노를 처음 본 것은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서 언제 봤니?

재신 : 고 1때 집에서, 친구들을 통해서 처음 봤다.

중태 : '원초적 본능'을 중 1때, 그리고 1년에 한번 정도 고등학교 오기전 포르노. 빨간마후라를 몇 일전에 보았다.

준우 : 초등학교 5학년때, 집에서 형과 함께 봤어요.

27) 김준호와 김혜원(1997: 26)에 따르면 포르노 비디오의 경우 중학교때 처음 봤다는 아이는 61.2%이며 초등학교는 15.8%, 고등학교는 14.6%이다. 다른 매체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 조금씩 분포가 다르지만 대체로 중학교때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상 : 중학교 3학년때 학교에서 친구에게 빌려서 봤어요.

준영 : 중학교 3학년때 집에서 친구에게 빌려서요.

종훈 : 중 2때 친구네 집에서 야설을 처음 봤어요.

일건 : 초등학교 3-4학년때, 집에서 집에 있는 것을 봤어요.

형석 : 중 3 말 때, 친구가 학교에 가져온 것을 '내 차례'가 되어서 봤어요.

상석 :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상석의 경우는 아직 포르노를 접해본 적이 없지만, 초등학교때 처음 접해 봤다고 말한 일건과 준우의 경우는 '친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집'에서 '형'과 함께 보거나 우연히 부모님이 감추어둔 것을 발견해서 봤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초등학교때 포르노를 접하는 것은 대부분 집에서 '우연히' 보게되는 경우가 지배적이지만 중학교를 올라가면서부터는 친구집단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것과 큰 상관관계가 있다. 물론 중학교 때가 되어서 보게되는 경우에도 자기가 직접 찾아서 보는 경우는 드물며 친구를 통해서 '우연히' 보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미 포르노가 청소년 또래 집단 내부에 '들어와 있다'는 점에서 초등학교의 경우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다.²⁸⁾

중학교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이유

영대(대) : 사춘기가 시작되고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뭐 그런 것이 가장 왕성할 때기 때문에 중학교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 같다.

호연(대) : 포르노를 구할 수 있을 여건이 마련되는 때가 중학교 때인 것 같다. 직접 가지고 있으면서 유통되는 것 같은 포르노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중학교 때부터 생기는 것 아닐까한다. 용돈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상인들이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28) 김준호와 김혜원(1997: 27)에 따르면 포르노 비디오의 경우 친구를 통해 구했거나 학교에서 친구를 통해 봤다는 응답은 무려 85.8%로 압도적이다. 다른 매체 역시 친구를 통해 구했다는 응답이 50%이상을 차지한다.

동훈(대) :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초등학교 때에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것...
뭐 그런 것을 보게되는 것이지 친구들 사이에서 들고 그런 경우는 드물
다. 중학교 때가 되어야 사고, 돌리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 같다.

왜 중학교 때 처음으로 포르노를 접하게 되는가에 대한 대학생들과의 인터뷰
에서 이들은 첫 번째로는 아이들의 몸이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가 주로 중학교
때라는 점과 경제적으로 포르노를 살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생기는 때가 중학교
때라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이들은 포르노를 구할 수 있는 루트나 방법을 배우
는 것도 주로 중학교 때이며 파는 사람 역시 이들을 포르노의 '소비자'로 쳐주는
때가 중학교 때부터라는 점을 들고 있다.

연구자가 보기에는 이런 이유들에 더하여 중학생이 된다는 것이 '아이child'라
는 것에서 졸업하고 '청소년youth'이라는 범주에 편입되는 때로 통상 구분된다는
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포르
노'를 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고, '독자적인 주체'로 인정받지는 않지만 그
렇다고 해서 완전히 부모나 교사의 품에 안기는 것도 아닌 시기가 바로 중학생이
된다는 경험이다. 때문에 또래집단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하위 문화가 독자적인
영역으로 출현하고 구조화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중학교'라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포르노를 처음 접할 때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지식은 상
당히 모호하거나 단편적이다. 단지 성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는 것이지 성이 무엇
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포르노를 접하게 된다.

연구자 : 그때 자신이 생각하기에 알고 있던 성지식의 정도와 이미지는 어떠했
어요?

재신 : 그냥 남자와 여자가 자는 정도...서로 만지면서...

중태 : '원초적 본능' 빼고 포르노를 봤을 때는 그냥 sex라는 개념만을 알고 있
었다.

준우 : 실제적으로 보지 못했을 뿐이지 거의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인상 :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

준영 : 잘 몰랐고 그냥 포르노에 대해 아이들에게 들은 내용이 전부였는데 포
르노를 보고 매우 실망했다.

종훈 : 잘 몰랐다.

일건 : 성이라는 것을 그저 남자가 성기를 통해 여자를 기쁘게 해주는 것만으
로 알고 있었다.

형석 : 성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다.

상석 : 별로 성에 대해 아는 것은 없지만, 책이나 선생님들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성은 깨끗하고 순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준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던 아이들은 거의 없
다. 이것은 초등학교 때에 성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지식조차 알려주지 않기 때
문에 성에 대해 아이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공식적으로는 없기 때문이다. 대신에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에로 영화 포스터나 잡지들, 텔레비전 등의 대중 매체를 통
해서 나오는 이미지들을 통해서 '성'을 접해간다(조한혜정, 1996: 223) 모호하지만
남녀간의 성과 사랑에 대한 이미지는 획득하였지만 그에 대한 개념이나 지식은
공식적으로 접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성에 대한 지식이나 언어를
획득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적인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초등학교 때 처음 포르노를 봤다는 준우의 경우가 성에
대한 지식을 오히려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준우는 성에 대해 임신이나 출
산, 그리고 성행위의 과정이나 모습에 대해서 형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상태였다. 준우의 형은 포르노 컬렉션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을 수집하고 있다고 한다. '포르노'에 관한 한, 그리고 '포르노'와 '미디어'에 관한
한 준우의 형은 '빠삭한' 수준이다. 준우는 이렇게 형이라는 자기 자신의 사적인
자원에서부터 성과 포르노에 대해 '자연스럽게' 정보를 가질 수 있었다. 결국 아이
들이 포르노를 보기 이전에 얼마만큼의 성지식과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거의 개인들의 사적인 조건의 문제이다.

성지식이나 언어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성에 대한 이미지가 모호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아이들은 포르노에 그려지는 성의 이미지에 대해 처음부터 그리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한다.

연구자 : 포르노를 처음 본 느낌? 더럽던가? 어떤 아이들은 더럽다고 하던데.

재신 :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마다 자기의 특색이 있으니까.

종태 : 더럽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 너무 내 머리 속에 sex라는 개념 외에는 소리를 지른다든지...등등...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그 후에는 거의 모든 걸 알게 되니 생각이 나는 것 같다.

준우 : 이미 사전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럽다는 생각보다는 말로만 듣던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인상 :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도 커서 다해 볼 것이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는 더럽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은데 더럽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은 사회적인 성에 대한 탄압이 만들어 낸 것 같다. 근데 사실 종종 진짜로 더러운 것도 있긴 하더라. 동물이나...그런....

준영 : 더러웠다. 성이나 포르노에 대해 잘 모르고 처음 봤을 때는 정말로 더러웠다.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장면들이 나와서...오렐이라든가....

종훈 : 더러웠다는 생각은 안 한 것 같다. 그냥 처음 봐서 흥분만 했던 것 같다.

일건 : 먼저 그런 친구들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적나라하다. 끌린다 등등...모두가 다 포르노를 그들만의 여가생활로 즐기는 것 같았다. 나 또한, 저렇게 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다. 나도 커서 저런 배우나 되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형석 : 포르노를 보고 더럽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신이 그래도 윤리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친구가 포르노를 보고 '죽인다. 나도 해봐야겠다'는 말을 한다면 다른 친구들이 그를 어떤 눈으로 볼까? 아마 전에 갖고 있던 좋은 이미지마저 버리고 싶어할 것이다.

상석 : 보지는 못했지만 나 역시 더럽다는 생각을 할 것 같다. 너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상석과 준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르노에 대한 거부감이나 혐오감은 별로 없으며 이것은 사전 성지식의 유무와도 큰 상관은 없다. 상석과 준영이 포르노를 '더럽다'고 말하면서 그 근거로 '책이나 선생님의 이야기'라고 말한 부분에서 아이들이 성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구성해갈 때 포르노와 함께 경합하고 있는 성에 대한 담론의 정체는 잘 드러난다. 이것은 '성은 순수한 것이고, 깨끗한 것이며,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성기'는 거세되고 '키스'만 남은 낭만적 신화에 근거한 교과서적인 이야기이다. 비록 아이들은 이런 낭만적이고 교과서적인 이야기에 대해 전 체하며 '따분해요'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강력한 담론적 구성력을 가지고 포르노적인 이미지와 경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준우의 경우에는 '알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았다고 말을 하고 있으며, 다른 아이들의 경우에도 '잘 몰랐지만' 포르노를 통해서 '그냥 그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에 별다른 거부감과 혐오감은 느끼지 않은 듯하다.²⁹⁾ 이것은 '동물이 된 듯한 느낌'이라며 거부감을 느꼈다는 여성들의 경우와 비교해보면(윤자영, 1997: 57) 상당히 대조적이다. 윤자영은 이런 여성들의 반응이 성에 대한 전통적인 여성적 '도덕'과 감수성에서 비롯된 것(윤자영, 1997: 57)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것은 역으로 남자아이들은 성을 본능과 쾌락의 수준에서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 과정에서 지속적인 인터뷰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일영(가명)이의 경우에는 포르노를 처음 접한 것이 초등학교 2학년때 이웃 아저씨

29) 그러나 그렇다고 이들이 성에 대해 도덕주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위의 두 아이들과 달리 성에 대한 낭만주의적인 신화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교과서적인 낭만주의는 강력한 담론적 구성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4장에서 자세히 분석하겠다. 또한 포르노를 한번도 본 적이 없고, 보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상석이나 준영이 성에 대해 포르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들은 단지 포르노만 보지 않은 것이지, 사실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담론은 포르노적이다. 이점 역시 4장에서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의 자취방에서였다고 한다.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봤는데 그때 느낌이 뭔지는 모르지만 황홀했었다고 한다. 일영(가명)이는 자기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적나라한 성행위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이랑 동물이랑 본능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성은 사실 본능 아니냐'며 성을 자연화하였다.

일영(가명)이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포르노를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여성과 남성이 다르게 길러진다는 사실에서부터 생기는 차이이다. 여자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정숙과 양전함 등을 교육받으며 그것을 훌륭한 여성의 이미지로 받아들인다. 여자들은 '욕망'에 대해서는 아예 안 배우거나 낭만적으로만 배운다.

이에 반해 남자아이들은 거친 운동 경기나 짓궂은 놀이 등을 통해 물리적 에너지를 발산하며 몸으로 '욕망'과 그것을 분출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운다. 게다가 텔레비전 등과 같은 대중매체에서 그리는 멋있는 남성의 모습은 '근육질'이거나 물리적 힘과 연관되어 이미지화되어 있다. '타잔'이나 '람보'의 예에서 보이듯이 남성은 여성의 모습보다 훨씬 더 '자연적인 동물의 상태'에 가까운 모습이다. 따라서 남자아이들은 인간이 동물과 별로 다른 존재가 아니며, 성욕이나 성행위 또한 그렇게 본능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이며, 쾌락은 발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남자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욕망을 몸과 관련지으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몸'이라는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들의 연결을 통하여 자기 몸을 상상하며 구성해 간다. 포르노는 아이들이 욕망을 몸과 관련지으며 성이라는 특정한 형태로 이름짓고 양식화하는 강력한 담론적 구성력을 가진 장치로서 아이들의 일상 속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2) 일상적인 시-공간속의 포르노

얼마나 자주 포르노를 보는가라는 것은 아이들이 조건과 성과 사랑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편이며 분포 자체도 일년에 한 두 번 본다는

아이들과 서너번 보는 아이들, 그리고 자주 보는 아이들이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편이다.³⁰⁾ 이것은 본 연구에서 인터뷰한 아이들의 경우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 얼마나 포르노를 자주 보는가?

재신 : 한 달에 두세번정도? 친구들이 빌려주면.

종태 : 있으면 보고 없으면 안 본다.

준우 : 일주일에 2번 정도? 불규칙하다. 어떨 때는 매일. 이틀이나 사흘에 한번. 1-2주간 안 볼 때도 있고.

인상 : 처음에는 많이 봤는데 지금은 생기면 보고 안 생기면 안 본다.

준영 : 이제까지 딱 두 번 봤다.

종훈 : 생길 때마다 본다. 1년에 5번 정도?

일건 : 테이프가 있을 때마다 봤다. 사실 처음에는 하루가 멀다하게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통달'한 이상 그것은 단지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았다.

형석 : 중3말과 고1초때 딱 두 번 봤다. 그 이후로는 친구들이 빌려줘도 안 본다. 성교하는 장면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보긴 했지만,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싶은 성과는 달라서 보고 싶지 않았다.

상식 : 안 봤지만 본다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볼 것 같다.

포르노는 '친구집단'의 강압에 의해 별로 보고 싶지 않더라도 보게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 '보고 안 보고'를 선택할 수 있다. 아이들은 포르노를 보는 것에 대해 이미 나름대로 가치 평가를 하고 있었다.

30) 김준호와 김혜원(1997: 29)에 따르면 포르노 비디오의 경우 1년에 한번 본다는 응답이 49.6%, 일년에 3-4번이 21.6%, 한달에 1-2번이 22.7%, 일주일에 1-2번 본다는 응답은 6.0%이다. 일주일에 1-2번 볼 경우에는 음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24.3%) 이는 각 매체를 가족과 공유하는 정도와 그것이 놓인 공간이 어디인가라는 것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연구자 : 주로 어디서, 어떻게 포르노를 구하나. 적극적으로 구하고 그러나?

재신 : 친구들이 재밌다고 하면.

종태 : 모든 것을 친구들을 통해 구한다. 난 친구들이 빌려주면 본다. '적극적'이지 않음.

준우 : 형에게, 청계천, 용산, 시청 뒷골목 등등...

인상 :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준영 : 우연히 친구들에게 얻는다. 애들 사이에서 다 돌고 빌릴 사람 없을 때 내 스케줄과 가족들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집에 혼자 있을 시간에 빌린다.

중훈 : 친구들을 통해서 본다.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포르노는 봐도 그만이고 안 봐도 그만이다.

일건 : 계속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돈을 들어서 테이프를 장만하지는 않는다.

형석 : 학교에서 친구들이 보라고 가져다준다.

상석 : 들은 바에 따르면 용산이나 청계천에서 구한다고 한다.

중훈, 인상, 종태, 재신의 경우처럼 한 달에 2-3번이나 일년에 2-3정도 본다고 대답한 친구들의 경우는 자기네가 직접 포르노를 구해서 보거나 소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친구들은 대부분 친구들이 빌려주면 보고, 안 빌려주면 안 보는 편이라고 대답하였으며, 볼 기회가 생기면 일부러 피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포르노와 접촉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은 친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b: 106)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포르노를 구할 수 있는 '소스'들과 친한 아이들일수록 포르노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높아지고, 강압 또한 높아지는 것이 사실(윤자영, 1998: 31-45)이다.

그러나 이것을 친구 관계의 특징 문제로 개념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접근³¹⁾은 친구를 '통해' 포르노를 구한 바로 그 아이가 다음 사람에게

31) '두 번째로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친구의 역할이라는 사실이다. 처음으로 음란물을 접하게 되는 것도, 음란물을 주

는 포르노를 배포하는 바로 그 '친구'가 된다는 맥락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누구에 의해서건 포르노가 일단 아이들의 또래집단들내로 들어오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그것은 아이들 스스로에 의해 또래집단들내에서 돌아다닌다.

또한 포르노를 접촉하는 빈도가 자기가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또래 집단'의 성격이 어떠냐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통의 경우 아이들의 또래집단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로 존재한다. 즉 대부분의 아이들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공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 노는 애와 잘 놀 줄 모르는 애 등등 다양한 또래집단과 연결되어 있는 편이다. 따라서 '구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대다수의 아이들은 '포르노'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포르노가 특정한 청소년들이나 특정한 또래집단의 문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언제든 '맘만 먹으면' 동원가능한 문화적 기제라는 점을 이야기한다. 때문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친구 관계'라는 개념은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문화적 장치' 중의 하나라는 개념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포르노는 이미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쉽게', '선택적으로' 구할 수 있는 '일상'이다.

때문에 아이들은 포르노를 자신의 성과 사람에 대한 평가와 인식의 문제에 의해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여기고 있다. 준영이나 형석의 경우에는 자기 또래 집단 내에서 포르노가 일상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자주 볼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포르노 보기를 거부하고 있다. 아예 한번도 보지 않았다고 말하는 상석의 경우조차 '포르노를 즐겨 보는 아이들'에게서 포르노를 볼 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소외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것은 '포르노 보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남자답지 않다'고 이야기(윤자영, 1998: 42-45)되거나 '또래집단에서 소외'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을 의미한다.

로 시청하는 장소도 친구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다. 따라서 이 결과는 일차적으로 음란물을 접촉하는 것이 어떤 개인적 성향때문이라기 보다는 그 사람의 친구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측면이 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106-107) 하지만 연구자가 보기에 이런 주장은 '친구를 통해서'라는 말이 포르노를 구하는 방향만을 보여주었지, 포르노를 '돌리는' 연속적 방향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연구자 : 포르노를 안보는 애들을 소외시키고 그러니?

준영 : 따돌리기는 누구 따돌려요? 지가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건데. 그런 건 없어요. 범생이라고 놀리는 것도 거의 없구요. 억지로 보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보고 싶은 애들끼리 모여서 보는 거죠.

상섭 : 안 본다고 따돌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내가 보기 싫어서 안 보는데 억지로 보라고 그러는 애들도 없고.

동우(가명, 대) : 전 중학교 때 책으로 된 것 말고 본적이 없는데 따돌림당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그냥 보는 애들끼리 모여서 보는 거고,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보고 그런 거죠 뭐.

준영(대) : 포르노를 안 보는 애들이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왕따(완전히 따돌림당하는 애들)들이 안보거나 못 보죠. 왕따들한테는 안 빌려주니까요. 왕따들은 또 개네들대로 '못 본다'고 안하고 '안 본다'고 말하죠.

성준(가명, 대) : 학교에 그걸 보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에 끼거나 친하면 보는 거고, 친한 애도 없고 끼지 않으면 안 보는 거죠 뭐. 종교적인 이유로 안 보는 애들도 있지만요.

옛날처럼 포르노를 구하기도 힘들고, 청소년들이 성에 접근하는 것을 스스로 많이 제한하던 때에는 포르노는 상당히 일탈적인 그룹들이 즐겨 봤고, 그들의 하위 문화로서 '사나이됨'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포르노를 보는 것이 특별한 그룹이 보고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 되면서 아이들은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요즘은 아이들 사이에서 '대단한 놈이 되는 것'은 '실전 경험'이다(준영의 말).

다른 아이들에 비해 준우와 일건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구해서 보는 편이다. 준우의 경우에는 형이 소스이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포르노를 볼 수 있게 하는데 아주 적극적인 경우이다. 형이라는 주변적 조건이 준우를 적극화한 것이다. 이에 반해 일건은 스스로 적극화된 경우이다. 처음 포르노를 본 후에 '황홀하고' 또 계속 호기심이 들고 궁금하였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자기가 보다

적극적으로 포르노를 구해서 본다고 한다. 그러나 일건의 경우에도 자기가 직접 청계천이나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는 한 달에 2-3번 정도 본다고 이야기한 친구들과 비슷하지만 친구들 속에서 돌고 있는 것을 '놓치지 놓고', '적극적으로' 구해서 본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이렇게 볼 때 포르노를 적극적으로 구해 본다는 것은 두 가지 양상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준우의 경우처럼 자기가 또래집단 외부로부터 직접 적극적으로 포르노를 구해서 보고 아이들에게 빌려주는 '소스'의 역할까지 하는 경우이다. 이에 반해 일건의 경우에는 또래집단 외부로부터 포르노를 적극적으로 구한다기 보다는 자기 주위의 친구들, 즉 소스가 되거나 일시적으로 포르노를 소유하고 있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일건의 경우는 아이들이 언제든지 자기만 마음을 먹으면 청소년집단 내에서 포르노를 구할 수 있으며 이것은 포르노가 이미 아이들 내에 내재화된 '환경'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포르노를 주로 보는 곳은 '자기집'에 혼자 있을 때이며, 가끔 '친구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본다고 이야기한다. 여관이나 만화방 등 소위 청소년 '유해' 환경에서 본다는 이들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집에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³²⁾

연구자 : 주로 어디서 포르노를 보니?

형석 :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거실에서.

상석 : 안보지만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볼 것이다.

32) '한편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이 흔히 우려하듯이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그것이 비행에의 상승효과를 가지지는 않는가의 문제를 살펴보면, 만화가게, 여관 등 여타 유흥장소에서 처음 보았다는 응답이 매우 낮아 한편으로는 이러한 유흥업소들이 음란물 접촉을 매개하는 역할을 크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이 자신의 일상과 떨어져 있는 특수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적으로 학교나 가정 등의 자기 주변, 혹은 자신의 정상적 생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b: 73)

인상 :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준영 : 집에 혼자 있을 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포르노를 보는 장소에 대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를 비교하여 중학생들이 친구 집에서 본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자기 집에서 더 많이 본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이 응답결과를 포르노를 보는 방식의 시간적 변화 양상으로 유추하여 고등학생들이 보는 장소가 자기 집이라는 것은 주로 혼자 보는 것을 의미하며, 이럴 경우에는 음란물 접촉이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져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보다 강화될 것(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b: 78)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매우 긴밀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영향이 보다 강화'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포르노는 이미 아이들 속에서 하나의 일상적인 문화적 장치가 되어 있다. 포르노는 아이들이 욕망을 몸과 관련 지우는 특정한 양식의 언어와 문법을 제공하는 일종의 문헌참고reference이다. 그것은 일상'밖'에 존재하는 것도, 일상'밖'에서 일탈적으로 유통되는 것도 아닌, 일상'안'에서 구해지고, 유통되고, 소비되며 이야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포르노를 보는 것이 아이들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충격으로서 아이들의 섹슈얼리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아이들이 접하는 문화적 장치로서 성에 대한 다른 이러저러한 담론들과 결합하며 담론적 구성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2. 포르노의 구입과 유통 방식

1) 포르노의 구입 형태

비록 포르노가 아이들의 내부 문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빨간마후라'와 같이 자기네들이 직접 찍어서 또래집단에 돌리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다. 아이들이 보는 대부분의 포르노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만든 것이다. 따라

서 포르노가 청소년들에게 일상적인 어떤 문화가 되었다는 것은 어디에서든 포르노를 구해오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아이들이 포르노를 구해 오는 것은 주로 청계천이나 용산 같은 곳이다.

연구자 : 보통 포르노를 구해오는 친구들은 어디서 구하니?

준우 : 형에게, 청계천 세운상가에서 구한다.

일건 : 보통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청계천, 세운상가 등에서 구입했다는 친구들도 있고, 선배들이 물려줬다는 친구들도 몇몇 보았다.

종태 : 어떤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구한다. 청계천, 세운상가 등등에 가서 사온다고도 한다. 그리고 거의 복사를 해서 돌려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준우의 경우만 형이나 용산이나 청계천 등으로 자신이 직접 구하러 다니고 나머지는 친구들을 통해서 포르노를 구하고 있다. 많은 한 반에 한 두명 정도씩 준우처럼 포르노를 또래집단내로 들어오는 '소스'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나머지는 그 소스가 구해온 것을 돌려보는 방식으로 포르노는 또래집단 내에서 유통된다. 소스의 역할을 하는 아이들은 형이나 친구한테서 물려받는 경우와 자기가 직접 청계천 같은 곳에서 구해오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준우 : 누가 오늘 나 청계천에 갈 일이 있다고 하면 뜻이 맞는 몇몇 친구들이 '어 그럼 잘됐다. 나도 뭐 좀 구하려고 했는데, 좀 구해다주라'해서 사오는 경우가 많다. 혼자 가서 진짜로 구해오면 '야 넌 정말 대단한 놈이야'라고 말하고, 못 구해오면 하지도 못할게 병만 치고 다닌다고 욕만 먹는다. 어떨 때는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몇 명이서 같이 가는 경우도 있다.

연구자 : 아무나 다 그러니?

준우 : 그런 것은 아니죠. 보통은 양아치들이 그렇게 하죠. 나머지는 개네가 그렇게 구해온 걸 돌려보는 것이구요. 양아치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요. 뭐랄까...질 낮은 놈이랑 좋은 놈이 있죠. 말하자면 질 낮은 놈들은 지네들끼리 돌려보고 물어버려요. 주먹 좀 쓴다고 자기네들끼리만 돌려다니는 애들요. 근데 질 좋은 놈들은 다른 아이들하고도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죠. 같이 타락하자는 애긴지...

다른 아이들 : 그게 왜 타락이냐?

준우 : 아무튼 그런 애들이 구해와서는 반에 돌려요.

연구자 : 그럼 그 친구들은 어디서 구해?

준우 : 아까 말한 것처럼 청계천에서 구하기도 하고, 지네 노는 선배나 저처럼 형한테서 구하기도 하구요.

그러나 대부분 포르노를 돌리는 아이들이 '소스'의 노릇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 한 아이가 지속적으로 포르노를 또래집단에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청계천이나 용산에서 하나 구해오면 그게 전교에 도는 것이다. 다른 친구들 것을 빌려서 복사해서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현우(가명)에 따르면 그렇게만 해도 양이 제법 된다고 한다. 한 반에 한 두개씩만 구해져도 20반이면 벌써 20-30개 정도가 되는데 구태여 밖에서 계속 구해올 필요가 없다고 한다. 여기에 '착한' 양아치들이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돌고 하면 양은 훨씬 많아지는 것이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포르노만큼이나 아이들 내부에 '이미' 포르노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2) 포르노의 유통 방식

이렇게 일단 또래집단내부에 들어온 포르노는 또래집단 내부의 자체적인 서열에 따라 유통이 된다. 이 또래집단은 애초에 누가 돌리기 시작하였고, 어떻게 시작하였는가에 따라 하나의 또래집단일 수도 있고, 반일수도 있고, 전교일 수도 있다. 아이들은 '주먹'에 의해 위계나 서열이 잡혀 있는 상태라서 그 순서에 따라 포르노가 돌아가는 것이다. 여기서는 포르노를 구해온 아이가 별다른 힘을 쓰지는 못한다.

연구자 : 포르노를 구해 온 아이가 그럼 친한 순서대로 돌리겠네?

인걸 : 비공개적으로 쉬쉬하면서 돌때는요.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물구요. 보통은 소문이 다 나니까요. 일단 소문이 나면 주먹 좀 쓰는 애가 '나 먼저 좀 보자' 뭐 그러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반에서 보는 정해진 순서 따라 돌아가요. 주먹 순으로요. 다 순서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어쩌다가 다른 애 손에 먼저 들어가더라도 '내놔. 내가 먼저 볼게.'하면서 가져가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도는 거죠 뭐.

포르노를 돌릴 때 소문을 안 내고 그냥 친한 친구들하고만 볼 때는 그냥 또래 집단 내부에서만 유통된다. 그러나 청소년 또래 집단의 특성상 소문이 안 나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는 드물다. 일단 소문이 나면 그때부터는 서열에 따라 유통되는 것이다. 특히 '빨간마후라'같이 초미의 관심을 끄는 것이나 신작의 경우에는 주먹을 좀 쓰는 애가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는 '먼저 볼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 포르노가 이렇게 아이들 내부에서 은밀하게 유통되지 못하고 금방 공개적이 되어버리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기인한다. 첫 번째로 아이들의 또래집단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떤 또래집단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곧 다른 아이들에게도 소문이 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성에 대한 얘기는 유독 아이들을 쉽게 끌어모으며, 빨리 소문이 난다.

준우 : 왜 다들 남자고 하니깐 스포츠 쪽으로는 다들 많이 관심이 있죠. 뭐 박찬호가 몇 승을 거뒀다더라 같은. 근데 이것만하더라도 관심이 없는 애들은 안 듣는 편이거든요. 근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성에 대한 얘기만 하면 다 우 물리잖아요. 선생님들도 이걸 잘 아니깐 수업시간이나 이럴 때 줄리면 음담패설 같은 것을 들려줘서 애들 잠을 깨우구요. 오락이나 만화요? 그것도 물론 관심이 많죠. 하지만 그건 좋아하는 애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성에 대한 얘기는 우리 나이가 그럴 때라서 그런지 누구나 다 관심이 있잖아요. 반에서 1-2등하는 애들 말고는요. 개네들은 수능에 방해되는 것은 절대 안 하니깐. 또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던가 하는 애들 빼고, 진짜지 가짜지는 모르지만 양아치 같은 애들이 자기네가 여자 따먹은 애기 같은 것을 하면 다들 우와~하잖아요. 난 대단한 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속으로는 으이구. 저 양아치하면서 무시하지만 겉으로는 그러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때문에 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이들에게서 쉽게 전파가 된다³³⁾. 누가 어쨌더라도 같은 이야기는 본인 스스로가 써이기도 하고, 낄낄거리기 좋은 가십거리가 되기 때문에 빨리 도는 것이다. 포르노도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포르노를 구했다고 구한 애가 먼저 써겨서 소문이 전교에 나고 도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준우가 좋은 양아치라고 말한 애들이 포르노를 돌리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돌리지 않더라도 금방 소문이 나서 의도하지 않게 '소스'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준우는 자신이 그런 경우라고 하는데 자기네 집에 형이 구해놓은 포르노가 있다고 같이 가서 보자고 하다가 소문이 난 경우라고 한다. 자기는 돌릴 생각도 없었는데 그렇게 된 경우라는 것이다.

물론 반이나 학교내의 서열화가 포르노가 유통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내부에 서열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지역이나 공학여부, 인문계나 실업계나 하는 것에 따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또래집단을 구성하고, 또래집단간 교류하는 방식의 차이에 달라진다. 또한 아이들 내부에 서열화가 된 정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준영(대) : 우리는 거기하고 좀 달라요. 서열순으로 돌지는 않아요. 반에 왜 또

33) 왜 하필이면 성이 아이들 속에서 이런 특수한 위치와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가이다. 푸코 등의 논의를 빌리면 성이 이런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비록 그 양상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상당히 긴 역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특히, 한국 사회에서 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한국 사회 남성 문화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의 교실 문화에서 성은 '스트레스'를 주는 수단으로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으며(조한혜정, 1998: 26-28), 이것은 성인 남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장수입, 1995: 90-92)이다.

래들이 있잖아요. 보통은 그냥 거기서 돌고 끝나요. 좀 폐쇄적이죠. 물론 한 또래 내에서 돌다가 다른 또래로 넘어가곤 해요. 다른 반이나 아님 같은 반이라도 비록 그 또래는 아니더라도 친한 애가 빌려달라고 하면, 전 강남에 처음 이사가서 고생을 좀 했어요. 강남이라서 그런지 또래 또래 성격이 너무 감해서...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일단 뚫고 들어가면 나도 폐쇄적이 되더라고요. 그러기 싫었는데...아 참. 제가 빨간마후라는 못 봤는데...그거는 반에서 서열순으로 돌았어요. 주먹 쓰는 애가 중간에 낀 경우는 그게 처음이었고...또 마지막이었어요. 그거 빼고는 친한 애들끼리 돌았죠.

여기에 더하여 아이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포르노가 어떤 매체에 담겨 있는 가도 돌아가는 방식을 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³⁴⁾ 인터뷰에 응한 아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요즘 인기 있는 포르노 매체는 컴퓨터 동영상이라고 한다. CD-ROM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동영상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들릴 염려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비디오 매체는 소지품 검사 같은 것을 할 때 쉽게 발각되지만 CD-ROM은 감추기도 쉽고 또 들키더라도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위장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들은 컴퓨터 동영상 포르노가 집에서 볼 때도 간편하게 볼 수 있고, 부모님에게 들릴 염려가 적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아무래도 비디오는 거실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보다가 갑자기 부모님이 들어왔을 때 처리하기가 곤란한데 컴퓨터 동영상은 처리하기가 간편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디오 매체보다 화질이 훨씬 더 좋고 선택적으로 보거나 하는 유저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가 훨씬 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컴퓨터 게임도 마찬가지이다.

34) 컴퓨터포르노와 청소년들 사이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에서 1994년에 조사, 분석한 『컴퓨터와 청소년 문화 - 컴퓨터 음란영상물 접촉 실태 및 영향』이 있다. 지금과는 달리 가장 많이 보급된 컴퓨터가 286에서 386이던 시대였기 때문에 포르노 자체도 동영상보다는 그림화일책이 많고, 인터넷 쪽으로는 조사가 안되었다는 결점이 있지만, 가정형편 정도에 따라 컴퓨터보급율과 활용 정도를 조사한 대목 등은 눈여겨 볼만하다.

중태 : 근데 아이들이 집에 대부분 컴퓨터가 있기는 하지만 집안 형편 따라 다르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컴퓨터는 있는데 CD-ROM이 안 달려 있기도 하구요. 그런 애들은 못 보거나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봐야죠 뭐. 아예 컴퓨터가 없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요. 인터넷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모뎀이 후지거나 하면 접속해서 그림 찾아보기도 힘드니까요. 집에 있는 컴퓨터 사양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결국 포르노가 돌아가는 방식만을 살펴봐도 청소년들의 하위 문화는 학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와 자신의 계급에 따른 문화적 환경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에 따라 아주 상이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지역과 계급, 성별에 따라 또래집단이 형성되는 과정과 운영되는 방식이 아주 상이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아이들에게 있어서 포르노의 의미

이 장에서는 포르노가 아이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어떤 실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기서는 포르노가 아이들의 삶에서 1) 성적 쾌락 - 말걸기 수단으로 이용되며, 2) 빠기기 -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겠다.

1) 성적 쾌락과 스트레스 해소

위에서 인용한 준우의 말처럼 청소년시기에 있어서 성은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이들은 자신의 몸이 성숙해감에 따라 이성과의 관계에 점차 큰 관심을 가지게 되지만, 사회의 법과 질서 체계에 의해 가장 강력하게 금기시되는 것이 바로 성이다. 성은 아이들에게 가장 호기심 있는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가장 접근해서는 안되는 금기이기도 한 것이다.

때문에 포르노가 아이들에게서 차지하는 첫 번째의 실천적 기능은 성행위를 생생하게 알아가고, 자극 받으면서 성적 쾌감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맺는 것은 법률적, 도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아이들은 포르노를 보면서 자위 행위를 하며³⁵⁾ 보다 실제적인 성적 쾌감 - 진짜로 성관계를 갖는 것과 같은 환상을 추구한다.

연구자 : 어떤 때 주로 포르노를 보나?

재신 : 성적으로 흥분될 때.(가끔 TV나 소설에서 야한 장면이 나올 때)

중태 : 친구들이 빌려준 뒤 집에 혼자 있거나 공부하기 싫을 때, 그리고 계속 생각이 날 때.

준우 : 자위행위를 할 때.

일건 : 혼자 있을 때, 답답하고,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할 때, 딸딸이(자위행위)를 치고 싶을 때, 특히 길거리에서 죽이는 여자를 봤을 때.

중훈 : 친구들이 갖고 있다는 정보를 들으면 말을 해서 빌려서 본다. 언제라고 딱 정해서 보지는 않는다.

김준호와 김혜원의 조사 결과(1997)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4b)의 조사 결과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이들이 포르노를 보고 나서 강간이나 성추행과 같은 범죄적 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극히 적으며 또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대신 아이들은 청소년들이 성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행위인 자위 행위에 포르노를 활용한다.

연구자 : 어떤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포르노를 보고 흥분되어서 자위를 하는데 나중에는 자위를 할 때 포르노를 본다고 하더라. 너넨 어떠니?

35) 김준호·김혜원(1997: 34)에 따르면 음란물을 보고 따라하는 행위는 자위행위가 75.1%로 압도적이며, 사창가 출입이나 음란 전화, 성추행, 강간 등은 따라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거의 다 90%이상이다.

재신 : 상상은 계속 이어지기 힘들다. 그래서 좀더 자극적인 현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르노를 이용해도 좋을 듯 하다.

종태 : 처음엔 볼 때는 자위행위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나도 포르노를 도구로 이용하는 편...포르노뿐만 아니라 컴퓨터 야설이나 동영상도 도구의 하나 같다.

준우 :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무감각해졌다. 그래서 자위 행위를 할 때 매개체로 사용할 때가 많다.

인상 : 나도 그러는 편이다.

준영 : 나도 마찬가지이다. 가끔 머릿속에 생각이 난다. 학교에서 수업할 때나 자기 전에나.

종훈 :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별로 심하지는 않다.

일건 : 나 또한 '도구'로 이용한다. 최고 좋은 것이다.

형석 : 주로 상상을 한다. 포르노를 보면 한 명의 주인공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상상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상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신이나 종태, 준영이와 종훈이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포르노를 자주 보지 않는 편이다. 이 아이들은 자위 행위를 하기 위해 포르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편은 아니다. 형석은 포르노가 지나치게 반복적인 장면만 보여주기에 때문에 오히려 성적으로 흥분되는데 별로 도움이 안되고 상상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말한다. 이에 비해 포르노를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자주 보는 일건과 준우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자위 행위를 할 때 포르노를 이용한다.

준우 : 솔직히 이제는 포르노를 보지 않으면 자위가 잘 안될 때조차 있다. 집에 형이 갖고 있던 포르노가 많으니깐 자위생각이 날 때 보면서 한다. 그냥 자극이다. 그리고 꼭 자위를 성적 흥분이 될 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떨 때는 정말 심심한데 할 일 없어서 자위를 한다. 그럴 때는 포르노 같은 것이 있어야... 자위가 되니깐...그리고 뭐 그게 막 성적으로 흥분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뭐랄까 새로운 걸 봤으니...해야지...뭐 이런 것

이죠...

준우의 얘기는 피상적으로는 포르노를 자주 보는 아이들이 변태적이 되고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준우는 계속 '그냥 자극이다'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포르노에 나오는 행위들이 성적으로 더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을 한다. 단지 다른 성기만을 비춰주는 포르노가 '식상하기' 때문에 다른 못 보던 것을 '보는' 것이 자극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즉 변태적인 행위 자체가 자극적이라기 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고정 관념이 바뀌면서 그것이 확장되는 것에 더 큰 호기심과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성적으로 자극된 것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그것이 단지 성과 관련된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에게 성적으로 자극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점은 빨간마후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아이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빨간마후라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자기네 성관계를 찍는 경우는 극소수이긴 하지만 있다고 한다. 매체가 안돼는 아이들은 오디오로 녹음하기도 하고, 비디오 카메라가 있는 애들은 비디오로 찍기도 한다고 한다.

준우 : 저희 학교에서도 그렇게 찍은 것이 있어요. 그건 빨간마후라처럼 남자랑 여자가 합의해서 찍은 것이 아니구요...남자애가 몰래카메라를 해서 찍은 것이예요. 왜 찍냐고 물어보면, 주로 찍는 애들은 양아치들이고 또 여자애랑 한 접시 이상 해 본 (한 접시가 뭐지?) 보통 백명을 '한 접시'라고 해요. 여자애랑 백번정도 자본애들... 그런 애들이 주로 찍어요. 걔네들이 그러는데 자꾸하다보면 재미가 없대요. 더 재밌는게 없을까 그러다가 찍고 그런대요.

이 아이들 역시 자기네들의 성행위를 찍는 것이 보다 '더 재밌어지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재미'가 곧바로 성적 쾌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기네들이 하는 것을 '찍는' 것을 재미있어하고, 그것을 '보는' 것을 재미있어하는 것이

다. 때문에 아이들이 더 변태적인 포르노를 찾는 것이나, 자기네들의 성행위를 찍는 것이나 식상하고 진부한 삶에 뭔가 충격을 가하는 '애깃거리'를 찾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이들은 자기네들의 일상이 너무나 진부하고 식상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좀 더 재미있는 애깃거리를 찾고 있다.

진부하고 식상한 일상에서의 탈출로서 포르노가 아이들의 삶에서 가지는 의미는 스트레스 해소³⁶⁾이다. 꼭 눌린 입시문화속에서 아이들은 별반 달리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포르노를 보면서 '성적 욕구'와 '위반'이라는 은밀한 쾌락을 동시에 즐긴다. 아이들 속에서 포르노가 도는 것도 시험이 끝나고 난 이후가 많으며 자기들 스스로도 그걸 공부에 주는 중압감으로부터의 탈출이라고 생각한다.

상현(대): 서울역 근처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망치라는 포르노 틀어주는 만화방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평소에도 사람이 많지만...종로학원이나 다른 학원에서 애들이 많이 보러 갔지요. 특히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우~ 물려가서 보곤 했지요.

포르노 한 프로를 '땡기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비단 포르노뿐만 아니다. 자위행위나 기타 다른 성을 둘러싼 행위들이 '축제 문화'가 없는 상황에서 일상의 딱딱함으로부터 벗어나는 문화적 기제³⁷⁾로 작용하고 있는

36) 김지혜(1996: 11)에 따르면 음란물을 보는 이유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본다는 응답이 36.0%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을때가 15.0%이며, 동성 친구들을 만나서 놀때가 17.8%이다. 연구자가 볼 때 '기회가 닿을때마다 본다'는 것의 의미는 포르노를 볼 때 아이들이 특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김지혜의 연구에서는 '특별한 목적의식이 없는' 포르노 보기의 실천적인 의미가 아이들의 삶속에서 깊이있게 맥락화되지 못하고 있다.

37) 'YMCA성교육 상담실'에도 하루에 수십 번씩 전화를 하는 단골손님들이 있다. 어찌된 게 해가 갈수록 이런 아이들이 늘어가는 것 같다. 물론 단골 손님들의 목적은 폰섹스를 즐기기 위함이다.....이유를 물어본 결과 성적 호기심은 많고 심심하기도 하고 정말 미칠 지경이라는 것이다. 우리 나라 중고등학생들의 하루 일과는 정말 단순하다.....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운동과 취미생활을 할 시간이 없다. 그러나 성적인 욕구는 강렬하다.....그러니 비디오, 음성정보, 장난전화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게 되는 것

것³⁸⁾이다. '성'이 스트레스 해소의 강력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비단 아이들속에서만은 아니다. 장수업(1995)은 우리 나라 남성 문화의 큰 특징중의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를 '술과 여자'로 푼다는데 있다고 지적한다. 술과 여자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지만 사실상 지배 남성 문화에서는 늘 같이 움직여 왔으며 한국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따라서 '성'이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남성 문화 속에서는 아주 일반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빠기기와 말걸기

포르노의 두 번째 기능은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이다. 다수의 아이들은 포르노를 혼자서 볼 때는 성적 상상에 치중하고 자위를 하지만 친구들과 같이 볼 때는 금방 포르노 텍스트로부터 자기가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있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아이들은 포르노를 보면서 다른 친구에게 '가르쳐 주거나', '떠들거나', 같이 '낄낄거린다'.

연구자 : 포르노를 친구들과 같이 볼 때랑 혼자 볼 때랑 다르나요?

종태 : 친구들이랑 볼 때는 아한 것이 나와도 그냥 웃음으로 넘기고 저게 뭐냐? 저렇게도 하는구나...등등 웃음으로 많이 넘기고 혼자 있을 때는 거

아닐까?(이명화, 1998: 99)

38) 90년대 들어와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해방구같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곳은 노래방이라고 볼 수 있다. 아이들이 시험이 끝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노래방에 가서 '뭉'을 푼다. 노래방이 쉽게 아이들의 차지가 된 것은 대중 음악 자체가 이미 10대들의 전유물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니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애초에 가지 못하게 했어야죠.....노래방은 이제 완전히 우리 계(문화가) 되었는데요. 애들이 문란하다 하셨는데 그건 그만큼 우리가 노래방을 많이 가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사실 학교 안에서도 나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다구요.....그렇다고 학교를 못 가게 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애들한테 노래방까지 못 가게 하면 도대체 어딜 가라는 건지 모르겠어요'라고 노래방과 청소년 대책 토론회에서 입장을 가한 엄경미(구일고등학교 3학년)의 말(우리교육, 1998년 5월호: 184)은 '하지 말라'는 금지 외에는 아무런 관리능력도 없는 어른들에 대한 냉혹한 일침이다.

의 자위행위를 한다.

준우 : 친구들과 볼 때는 혼자 볼 때보다 좀 대담(?)해진다. 혼자 볼 때는 그냥 흥분하고 일치고(자위행위) 끝내면 되는데, 같이 볼 때는 영화 평론(?)까지 할 정도로 괜히 대단한 척 한다.

형석 : 친구들이랑 볼 때는 좀 유치하다는 말을 자주 썼다. 테크닉이 좀 단순해서가 아니라 불만한 게 못된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혼자 볼 때는 그냥 느낌 없이 본다. 워낙에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서...친구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한다.

일건 : 나는 주로 혼자 보는 편이다. 다른 친구들은 한 집에 모여 다 같이 '음미'해 가며 본다고 하던데, 나 같은 경우에는 혼자 보면서 그 속에 빠져든다. 친구들이랑 보게 되면 괜히 '저게 뭐야'는 등 하는 얘기에 재미없다. 괜히 좋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증오스럽기까지 하다.

아이들의 이런 태도는 한편으로는 자신이 성적으로 흥분하고 있음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미 포르노나 성을 별 것 아닌 것으로 여긴다는 점을 증명해 보이는 행위이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성을 '별 것 아닌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것은 성에 대해 '통달'했거나, 이미 갈 때까지 가봤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포르노를 보고 주체하지 못하고 몰입하는 것은 '중빠리'때나 하는 것이다. '고빠리' 정도가 되면 포르노를 거리를 두고 감상할 줄도 알아야 한다.

제법 새로운 포르노를 보고 얼이 빠지는 친구들에게는 '저런걸 처음 보냐'며 약간 편견하는 투로 말한 다음, 자기는 이미 옛날에 그걸 봤다고 떠벌린다. 그 다음 친구에게 시시콜콜 '가르쳐'주는 것이다. 늘 보던 포르노를 보거나 스토리가 없고 영성한 포르노를 볼 경우에는 '유치하고 재미없었다'는 말을 반복해서 말한다. 이를 통하여 자기는 이미 '그런 것쯤'은 통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자기는 이미 그런 '과정'은 졸업한 '몸'이라는 것을 온근히 과시하고 뽐낸다.

준우의 이야기에 따르면 '빨간마후라'류의 아이들이 직접 만든 포르노 역시 한편으로는 '과시'의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어제 내 여자 친구랑 같이 했는데

그걸 비디오로 찍어냈다. 언제 우리 집에 와서 봐라'며 빨간마후라 같은 것을 찍은 아이들이 자기와 같이 '노는' 아이들에게 자랑을 한다고 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이들은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다는 것을 한편에서는 갈 때까지 간 '양아치새끼'라고 비하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과감하고 용기 있는 일'로 부러워하기도 한다.

윌리스(1989)는 노동계급의 아이들이 자기가 학교에서 얼마나 개기고 있는가를 통해 자기를 과시하며 '사나이'로 자기 정체화self-identification한다는 것을 치밀하게 분석하였다. '사나이'들이 '암전'들에게 특히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성적인 영역'이며 '깍뎀기를 깨고 나오는 것', '두려움을 벗어나는 것' 등은 '사나이'중의 사나이가 되어 가는 과정(윌리스, 1989: 38)이다. 성에 대해 찢찢거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아이들에게 금지된 가장 은밀한 경계인 성을 깨쳐버렸다는 점에서 가장 큰 '규율 위반'이 되는 것이며, 그것은 자기가 학교나 부모의 '품안'으로부터 떠나 '독립'하였다는 징표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빨간마후라'같은 것을 찍어 놓고 친구들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은 '도덕적 수치심'의 부족 현상이라기 보다는 자기 과시의 수단이자 얘기의 수단으로 자기 몸을 이용하는 것일 뿐이다. 물론 처음부터 다른 아이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찍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몸을 굴리는 것 말고는 별반 '재미있는 애깃거리'를 만들 수 없는 아이들이 자기 몸을 애깃거리로 만들어서 다른 아이들에게 '말걸기'를 하는 것이다.

인터뷰 내용 중에서 흥미로운 것은 일건의 대답이다. 일건은 친구들이 같이 포르노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과시'라기보다는 '위선'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어떤 포르노를 보더라도 성적으로 흥분되고 좋으면서 괜히 아닌 척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그 포르노도 혼자 볼 때는 틀림없이 자위를 하는데 쓸 것이면서 괜히 친구들 앞에서 아닌 척 빼기는 것이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라는 것이다. 친구들의 태도에 대한 일건의 비판은 아이들의 색수열리티가 분열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장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다른 아이들이 '쾌락'과 '도덕'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는데 비해서 일건은 성과 사랑에 대

해 상당히 '쾌락'을 중심으로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이 포르노에 대해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이들만의 특징은 아니다. '음란한 사회, 근엄한 공권력'이라는 말과 같이 사실 우리 사회가 전반에 걸쳐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딱히 포르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생활세계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태도를 이중적으로 구조화해나갈 뿐이다.

물론 친구들과 같이 포르노를 볼 때 모든 아이들이 포르노를 자기 과시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보지 않는 친구들도 많으며, 같이 보더라도 조용히 보기만 하는 친구들도 있다.

준영 : 친구들이랑 본 적이 없다.

종훈 : 친구들이랑 같이 본 적이 없다.

재신 : 친구들과 볼 때는 별 말없이 본다. 나 혼자도 말없이, 나 혼자서 어떤 자세로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인상 : 친구들과 볼 때는 조용히 앉아서 보지만 혼자 볼 때는 자위행위를 한다.

준영과 종훈은 포르노 같은 것을 친구들이랑 어떻게 같이 보냐고 반문하였다. 그리고 구태여 친구들이랑 같이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일견의 이야기처럼 포르노가 영화도 아니고 이야기할만한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포르노'일뿐인데 그걸 같이 보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별로 생산적이지도 않고 재미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재신이나 인상의 경우를 볼 때는 포르노를 어느 정도보고 나서 친구들이랑 같이 보는가에 따라 태도는 아주 달라진다. 포르노를 처음 접했을 때는 다들 그냥 조용히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제법 포르노를 많이 보고 난 후에 같이 포르노를 보면 대부분 '낄낄거리면서' 본다. 포르노에 '화' 빠져버리기 보다는 '저 녀은 어떻게, 저 녀은 어떻게'하면서 포르노 자체를 대상화시켜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포르노에 대한 태도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즉 처음에는 포르노가 직접적인 성적 자극이며, 성에 대한 '거짓 없는' 이미지로 아이들에게 비춰지지만,

어느 정도 포르노를 보고 난 후에는 '포르노는 포르노일 뿐'이며 그것 또한 다른 '영화'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후자의 경우 대부분의 포르노가 '진지함'의 대상이기보다는 '낄낄거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아이들이 '포르노'를 일종의 코메디 비슷한 것으로 취급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이론적 맥락을 이야기할 때 살펴본 것처럼 포르노에서 성기와 성행위를 직접 보여주어 '얼굴'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영화의 이야기는 파괴되고 이야기내의 모든 장치들은 '우스운' 것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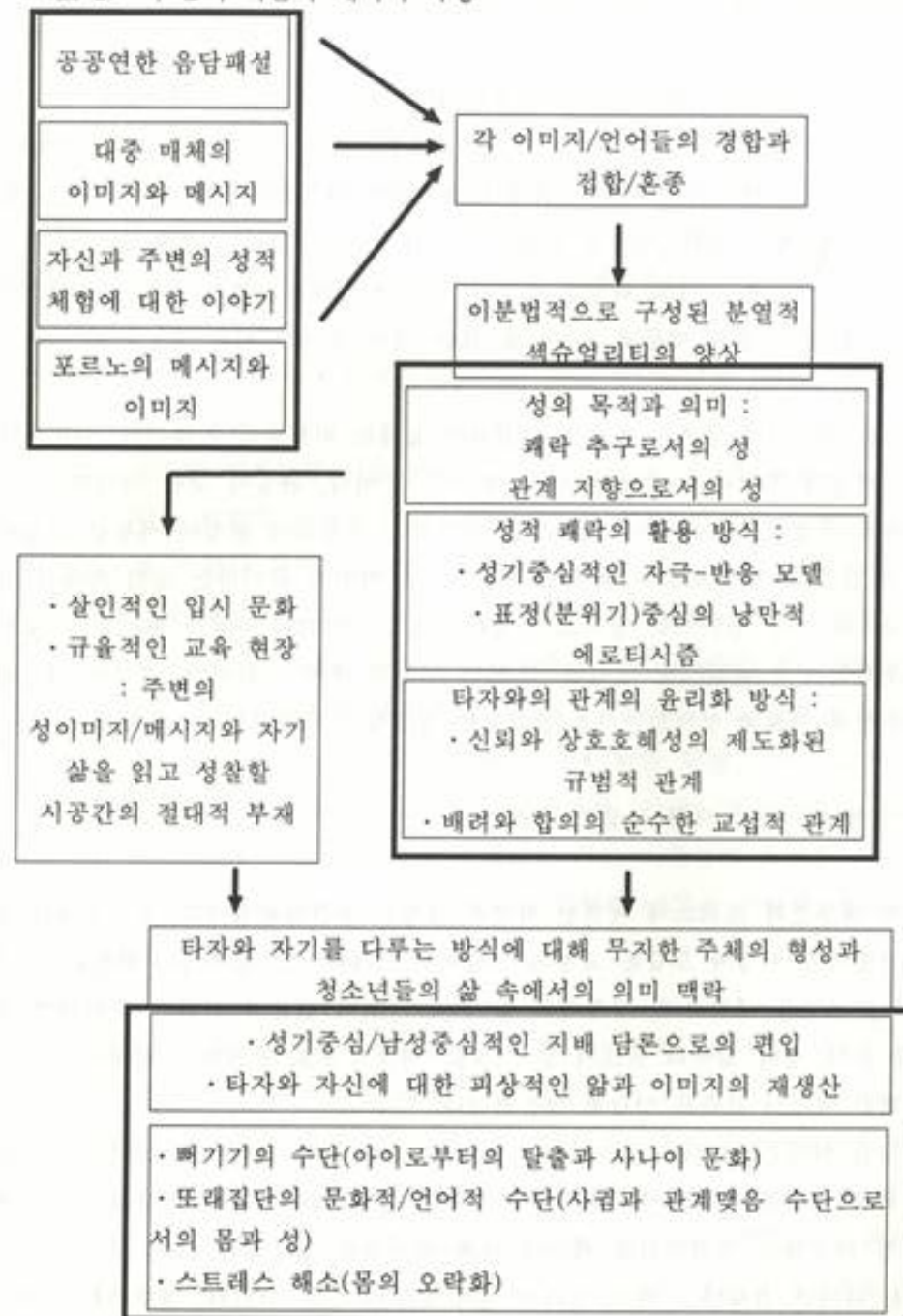
VI. 포르노의 교섭적 수용과 분열적 주체 형성

성에 대한 아이들의 이야기는 포르노를 통해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포르노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해 가는 '하나의' 참고문헌reference이지만, 동시에 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해독되는 하나의 텍스트text이기도 하다. 이것은 일종의 해석학적 순환이다. 이 순환 속에서 성에 대한 아이들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담론들이 경합하고 접합하면서 때로는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런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이기까지 한 성에 대한 이미지와 언어들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들의 몸을 구성해 간다. 특히 성과 관련하여 몸은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의 공간'으로 이미지화 된다. 몸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론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다. 성에 대한 이미지와 언어는 몸에 대해 담론적 구성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아이들의 몸에 담론적 구성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야기들의 모순되고 분열된 양상을 포르노를 해독하는 아이들의 언어에 대한 담론을 통해서 분석한다. 이 이야기에 대한 분석이 곧 아이들의 몸-섹슈얼리티에 대한 분석과 해석학적 순환을 이룬다. 또한 섹슈얼리티는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자기와 상대방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상대방을 다루는 방식과 자기 스스로를 다루는 양상은 달라진다. 따라서 섹슈얼리티는 타자를 다루는 특정한 방식을 실천하는 주체 형성의 문제이자, 주체가 자기 스스로를 다루는 윤리학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포르노에 대한 이야기의 해독에서부터 주체의 윤리학에 이르기까지 이 연구의 이론적-해석적 과정은 다음 페이지의 그림과 같은 흐름에 따르고 있다.

<표 2> 이 글의 이론적-해석적 과정



1. 포르노 '텍스트'에 대한 교섭적 수용 양상

아이들은 '포르노는 포르노일 뿐'이라고 말을 한다. 포르노는 쾌락으로서의 성이라는 성의 한쪽 면만을 과장하여 구경거리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포르노는 보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현실에서 불가능하거나 허용이 되지 않는 것들을 연출한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표정이나 행동, 그리고 성에 대한 포르노의 이미지는 연출된 것이고 과장된 것이다. 아이들은 포르노가 이렇게 연출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포르노를 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이미지나 담론이 현실과 단절되어 있다는 이분법적 논리이다. 이미지나 환상은 현실과 명확하게 구분이 가는 '별개의 것'이다. 환상이 갖는 이미지 파워, 즉 담론적 구성력은 부정된다. 포르노를 현실과는 단절되어 현실에 아무런 구성력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그것이 자신의 몸이라는 공간 속에서 어떻게 코드화 되고 있는지는 살펴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은 '포르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인지적 주체는 되지만, 그것이 자신의 몸-감수성과 어떻게 연결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성찰적 주체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1) 여성 이미지에 대한 교섭적 수용

거의 대부분의 포르노에 재현된 여성과 남성은 전편일물적이다. 포르노에서 재현된 전형적인 여성의 모습은 요부의 모습이다. 그녀는 늘 성에 굶주려있다. 언제 어디서나 성만을 생각하며, 성행위를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기회만 주어진다면 성행위를 한다. 성에 굶주려 있으며 늘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는 점에서 포르노에 재현된 여성의 모습은 상당히 능동적이다.

하지만 여성은 자신의 성욕을 스스로 채우지 못한다. 성적으로 그녀가 만족되고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가 필요하다. 물론 대부분의 포르노에서 여성 배우들은 자위행위를 하거나 다른 여자들과 동성애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동성애자'인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포르노

에서 여성들이 자위행위를 하거나 동성애를 하는 장면은 '남자를 기다리는 동안'이나 '남자가 없을 때' 하는 행위로 나온다. 또한 자위 행위를 하거나 동성애를 하는 중간에 남자(들)가 나타나고, 그가 나타나자마자 성행위는 즉각적으로 그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행위로 전환된다. 여자가 성적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포르노에 재현된 여성들은 피동적이고 수동적이다.

포르노에 재현된 여성의 이미지가 성에 대해 적극적이라는 것은 실제 여성에 대한 이미지와 충동을 일으켜서 혼란스러움을 가져다준다.

재신 : 자기의 욕구와 창조정신(성행위를 하는 것)이 너무 과하게 행해지는 것이 아닌지.

인상 : 처음에 포르노를 봤을 때는 그냥 여자 몸이 저렇게 생겼구나, 여자 성기는 저렇게 생겼구나하는 것만 보면서 흥분했었어요. 포르노가 아니면 볼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포르노를 자주 보다 보니깐 여자들이 성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소리 지르는 것도 그렇고, 허구한 날 그 생각만 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남자가 해주면 좋아 죽을라 그러고... 그런데 실제로 여자애들이 그렇게 적극적일 것 같지는 않아요. 해본 애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도 처음에 하면 다들 '아프다'고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빨간마후리에도 여자애가 '자궁! 자궁!'하면서 아프다고 하는 것도 나오고요. 그냥 포르노는 보는 사람한테 흥분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여자들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인상뿐만 아니라 인터뷰에 응했던 대부분의 아이들은 포르노에 나오는 여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점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 포르노나 음담패설과 같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수동적이고 나약한 존재인데 포르노에 나타나 있는 여자들의 모습은 이런 기존의 이미지와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성의 영역에서 여성의 이미지는 당하는 존재로 묘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자는 성적으로 흥분되거나 성을 원하더라도 한번쯤

은 빼거나,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런데 이에 반해 포르노에 그려진 여성은 한번도 빼는 법이 없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성을 즐긴다.

이런 반감에서 아이들은 '포르노는 포르노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포르노에 그려진 여자의 이미지는 단지 포르노에서만 그렇게 나타날 뿐이다. 이런 이미지들은 성적 자극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포르노에 재현된 행위나 이미지들이 '진짜'라고 믿는 것은 포르노를 보는 초기의 일에 불과하다고 아이들은 말한다. 어느 정도 포르노를 보고 나면 포르노에서 재현된 대부분의 이미지들이 성을 구경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때문에 아이들은 포르노에 나오는 여자들 사이 사실은 포르노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먹고살기 위해서 그럴 뿐이라고 생각한다. 포르노에서 그려지는 여자와 포르노에 출연하는 여자를 구분한다. 전자는 다른 영화들처럼 후자가 하는 '연기' 일 뿐이다.

연구자 : 포르노에 나오는 여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지?

종태 :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여자들은 단지 남자들의 성충동을 해소시켜 주려고 하지만 그 여자들도 그게 직업이니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가슴 크고, 신음 소리를 내고 뭐 이런 정도...의 여자 아닌가?

인상 : 얼마나 먹고살기 힘들면 저러면서 먹고살까! 동정심이 생긴다.

일건 : 풍만하다. '저렇게 큰 게 들어가?'라는 생각마저 든다. 심지어 저런 여자만 있으면....하는 충동이 들기도 한다. 한마디로 그런 여자는 단지 포르노를 위해 존재한다. 포르노가 없다면 살 가치가 없다.

종훈 : 포르노에서 그들의 행위에는 진정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 육체적 쾌락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런지 불쌍해 보인다. 물론 볼 때는 나도 같이 흥분되지만.

형석 : 돈을 벌기 위해 자기 몸을 판 창녀....no good이다.

상석 : 정신 나간 여자들이다.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그렇지 자기 몸을 그렇게 함부로 굴리다니...

여기서 아이들의 반응은 둘로 갈라져 있다. 종훈이나 종태, 인상이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니깐 할 수 없겠지만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하고 생각한다. 상석이나 형석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래도 '몸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되다며 굉장히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일건은 다른 아이들하고는 달리 좀 더 가혹하게 그런 여자는 '포르노'를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런 아이들의 판단은 포르노 배우들에 대해 좀 더 동정적이나 도덕적이나 하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지, 실질적으로는 '몸을 파는 여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 판단에 준거해 있다.

결론적으로 아이들은 포르노에서와 같이 성적으로 남성을 늘 유혹하는 적극적인 여성에 대해서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단지 포르노 텍스트 '안'에서만 존재한다. 이런 여성은 현실이 아니라 단지 허구일 뿐이다.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성적 자극을 위해서 지어낸 것에 불과하다. 두 번째로 만약 그런 여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면 그 여성은 창녀이다. 창녀들은 남성을 성적으로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따라서 포르노에 재현된 여성들과 같이 적극적이고 유혹적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의 적극적인 성욕과 성역할에 대하여 아이들은 거부감을 가지며 부정한다. '포르노는 포르노일 뿐'이라는 아이들의 주장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성에 있어서 여성의 적극적인 모습과 이미지에 대한 부정에서부터 시작하며, 동시에 이 부정을 정당화하는 담론이다.

'포르노는 포르노일 뿐'이라는 주장을 통해서 아이들은 현실에서의 성과 상상으로서의 성을 자신들이 잘 구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포르노와 같은 성적 자극을 위한 구경거리화된 성과 실제 부부간이나 애인간에서의 성은 다르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은 어른들의 염려와는 달리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때문에 자신들이 포르노를 본다고 해서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모방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고 따라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우(가명) : 물론 처음에 포르노를 보고는 엄청 흥분되었죠. 충동도 자주 느끼

구요. 길거리에서 예쁜 여자를 보면 따먹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자꾸 포르노가 생각나구요. 하지만 그건 진짜 어릴 때 애기구요. 뭐 그건 그냥 영화랑 똑같은 거니깐, 나중에는 포르노라는 거 거기서 거기니깐 별로 흥분도 안되더라구요. 그냥 보고 즐기는 거죠 뭐. 액션 영화 봤다고 다 흥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처음에는 흥내내고 싶어하지만 지나면 가짜라고 생각하니깐, 그냥 보면서 즐기는 거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1994b)나 김지혜의 연구 결과(1996)도 청소년 비행이나 성폭력과 포르노와의 상관관계는 아주 미미하게 나타나며 오히려 가해자의 또래집단이 무엇이나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한다. 현우(가명)의 경우처럼 대부분의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포르노를 그냥 '보면서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것은 이미 브라운관 이전과 저편이 다른 세계라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여기서도 '포르노는 포르노일 뿐'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은 그런 꾸밈으로서의 성과 실제의 사실적인 성을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포르노를 단지 상상, 혹은 텍스트일 뿐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실제 지금의 자신들의 성을 포르노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실적으로 아이들 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위 행위에 있어서 아이들이 동원하는 대부분의 이미지는 상당히 포르노적이다.

연구자 : 자위 행위를 할 때 하는 여자들에 대한 상상을 좀 말해줄래?

재신 : 약간 당돌하고 성행위를 할 때는 약간 싫어하는 듯 뽀짝이는 여자 스타일요.

중태 : 신음소리를 내고 가슴이 크고 하는 정도... 뭐 그런 거요.

준우 : 포르노에서 주로 나타나는 여성의 모습은 보통 능동적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에 대한 성행위는 보통 수동적인 모습과 짓밟히는 이미지인데 반해 포르노에 나오는 여성들은 거의 굶주려있다. 자신들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남자를 괴롭히는 주의이다. 눈을 감고 있고 입은 동그렇게

약간 벌려져 있다.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만족해하는 모습이고 후회때는 대개 만족해하는 표정이다.

인상 : 비디오와 같은 생각...영화를 만든다...아름다운 미소와 황홀한 표정...

준영 : 아는 사람을 상상한다...아프지만 좋아하는 듯한 모습..

중훈 : 여태까지 본 포르노 중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떠올린다.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물씬 풍기는 가운데 정말 성스러운 얼굴과 행위가 떠오른다.

일건 : 주로 포르노에 대한 장면을 떠올린다. 심지어는 내가 직접 하는 상상도 해본다. 그렇지 않고는 자위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본받을 존재라고 생각한다. 눈을 감고 '아...아...'하는 신음소리를 적나라하게 나타낸다.

형석 : 여자와 성교하는 모습...여자는 희열을 느끼고 있다.

포르노에 나오는 여자들은 단지 포르노에만 나오는 여자들이고, 현실의 여성들은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자신들을 성적으로 만족시켜주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포르노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포르노에 대한 아이들의 태도는 모순적이다. 한편에서 포르노는 단지 '허구'일 뿐이라고 주장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들의 현실적인 성'의 쾌락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된다.

아이들은 이점에 대해 '자위 행위랑 실제 성행위는 다르지 않나?'며 실제 성행위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실제적'인 것이지만 자위행위는 그냥 상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즉 자위 행위, 그 자체도 실제 성행위는 아니며, 오히려 포르노와 같이 상상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여성은 단지 '남성을 위해 성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봉사'하는 이미지의 여성이기 때문에 실제의 여성과는 달라도 된다는 점이다. 실제 여자 친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성적 쾌락'이 아니라 '사랑'이지만, 자위 행위와 같이 단지 성적인 쾌락만을 추구할 때에는 '사랑'보다는 상상과 같이 '성적으로 더 자극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여기에서 아이들이 말하는 실제의 성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남녀간의 성행위에

국한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실제의 성은 남녀간의 성행위이며, 다른 나머지는 '진짜' 성행위는 아니고, 단지 상상이고 허구일 뿐인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성을 남녀간의 성행위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가장 포르노적인 이데올로기이다. 포르노가 끊임없이 남녀간의 성행위만을 지겹도록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것'만'이 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포르노가 성을 남녀간의 성행위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포르노가 생산해낸 것이라기 보다는 근대가 성을 다루는 방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2) 남성 이미지에 대한 교섭적 수용

아이들이 포르노에 재현된 여자들에 대해서 허구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자위 행위를 할 때는 포르노적인 이미지를 동원하는 것처럼 남성들에 대한 이미지에서든 같은 이야기들을 한다. 즉 포르노에 재현된 남성들은 모두다 몸만 변강쇠 같은 놈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랑 같은 것은 없는, 오로지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놈'들이라며 비하한다. 여자들의 경우와 좀 다른 점은 여자들의 경우에는 동정적이든 비판적이든 '먹고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존재로 인식하며 실제 그 여자배우랑은 구분하는데 반하여, 남성들의 경우에는 출연한 배우와 재현된 이미지를 동일시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여성들의 경우가 '어쩔 수 없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성에 관한 한 여성들의 이미지는 항상 피해자로 상상된다 - 반해 남자들의 경우에는 좋아서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구자 : 포르노에 나오는 남자들은 어떠니?

재신 : 할 일없고 몸만 변강쇠 같은 놈들 아네요?

준우 : 대단한 놈들이다. 하지만 부럽지는 않다.

인상 : 뭐..여자들하고 마찬가지로 얼마나 먹고살기 힘들면 저러면서 살까...동정심...

준영 : 역시 싫다..그냥 생각 없이 섹스만 한다...

종훈 : 육체적 쾌락만 추구하고..진정한 사랑은 없는...그런 사람들이다.

일건 : 자지(성기)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들...히히...

형석 : 돈 벌기 위해 몸 파는 것...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다.

상석 : 나쁜 놈들이다. 한때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면서 그런 짓을 하는 게 왠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포르노에 재현된 오로지 '육체적'이기 만한 '변강쇠'와 같은 남성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불쾌감을 표현하면서 '비하'한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자위 행위를 하며 상상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은 포르노에서 재현된 모습과 아주 유사하며 오히려 포르노보다는 '강간 신화'에 더 근접하는 양상을 띠기도 한다.

연구자 : 자위할 때 너네 자신의 모습도 상상할 것 아냐??

재신 : 그 여자를 잡아먹으려는 듯 겁탈하는 모습요.

준우 : 처음에는 보통 여자들이 하는 데로 가만히 있다가 여자들이 극도로 원하면 행동한다. 처음에는 보통 여성들이 굴주려하는 것을 즐기는 느낌이다. 가끔 굴주린 남자들도 보지만 능동적이거나 적극적이지는 않다.

준영 : 전 아무생각 없이...그냥 100m 전력 질주하듯...그렇게 해요.

일건 : 해냈다는 만족감에 쌓여있어요. 마치 오줌을 참다가 갑자기 쏟아냈을 때의 표정 같은 거요...

형석 : 여자들을 기쁘게 해주는 기쁨조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상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하지만 사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허무감만을 느껴요.

아이들이 말하는 이런 이미지는 사실 정확하게 포르노에서 재현하는 남성들의 이미지이다. 보통 대다수의 포르노에서 남성들의 이미지는 대부분 '관찰자'와 '슈퍼맨'이 합성된 모습이다. 남성들은 여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고 실험하는 것처럼 보인다. 카메라는 남성의 손, 성기 등의 움직임에 따라 일어나는 여성들의 반응을 세세하게 관찰하듯이 훑어 내려가며 비춘다. 카메라 자체가 이렇게 남

성의 시선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포르노에서 남성들은 성행위 전체를 리드하고 조직한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주체'이지만 정욕에 흠여 넘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이것은 포르노의 카메라가 취하는 시선 자체에서 나타나는 효과이다.

여기에 더하여 포르노에서 남성들은 언제 어디서든 여자들이 원하기만 하면 성욕을 채워줄 수 있는 '변강쇠'같은 존재로 재현된다. 포르노는 성행위를 남성의 발기에서 사정에 이르는 남성 성기의 과정에 국한하여 재현하지만, 그것을 통해 성적 만족을 취하는 것은 남성이라기 보다는 여성들이다. 이런 점에서 대다수의 포르노는 남성들이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는 과정을 재현하기보다는 남성들이 여성들의 성욕을 만족시켜주는 과정을 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때 여성의 성욕은 철저하게 남성적 관점에서 해석된 것이다. 여성의 몸의 반응과는 상관 없이 여성의 성적 만족은 남성의 사정과 더불어 최고조에 이르고, 성취되는 것으로 묘사한다. 때문에 포르노에서 여성의 성욕은 남성적 관점에서 해석된 남성의 전도된 성욕이다.

준우와 일건, 형석의 말은 이런 일반적인 포르노의 남성 이미지와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준우의 말은 여성의 몸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것을 '즐기는' 관찰자의 시선을 취하고 있다. 그 관찰자의 시선은 새디즘적인 시선이다. 여자가 스스로 정욕에 이기지 못해 '쑤서 달라고' 애원할 때까지 기다리며 그것을 즐긴다. 이것은 여성을 정욕의 화신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여성은 남성을 통해서만 성욕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여성의 성욕은 피학적이라는 관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형석과 일건 또한 비슷한 관점을 취한다. 남성은 자기 성욕을 채우기도 하지만 여성을 만족시켜줄 때 비로소 완전히 만족하는 것이다. 여성의 만족을 통해서만 남성의 최종적인 성적 쾌락은 달성되는 것이고, 이것은 '여성의 밀도 끝도 없는 정욕을 정복하는 것이 진짜 남자'라는 남성들의 보편적 신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재신은 직접적으로 '강간 신화'를 수용하고 있다. 여자는 강간당하고 싶어한다는 신화는 역으로는 강간을 통해서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 싶은 남성들의 성욕의 전도된 표어이다. 재신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강간하는 장면을 통해서, 여자를 정복한다는 것에서 포르노적인 성적 쾌감을 느낀다고 이야기

한다.

3) 포르노적인 성행위에 대한 교섭적 수용

포르노는 성을 가시화 하여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성기 중심으로 성행위를 묘사한다. 다양한 체위가 나타나고, 오럴 섹스, 애널 섹스, 그룹 섹스, 자위 행위, 동성애, 수간, 기구 사용, 사도-마조히즘적 등 다양한 성적 쾌락의 활용 방식이 나타나지만 거의 대부분의 포르노는 성기를 비추고, 특히 남자 성기에 초점을 맞추어 발기에서 사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즉, 포르노의 전체적인 구조는 아주 유사하며 제한적이다. 때문에 포르노를 자주, 많이 본 아이들은 포르노에 질린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자 : 포르노에 질려 본 적이 있나요?

준우 : 있다. 보고 있다 보면 너무 그런 것만 보여주면 질릴 때가 있다.

일건 : 처음에는 보고 싶은 충동이 며칠 갔었다. 저건 어떻게 저렇게 되지? 저건 또 뭐야? 하는 등의 질문을 던져 보기도 하였다. 그때부터 테크닉을 중심으로 보고, 순서를 자세히 보았다. 몇 번 이런 식으로 보고 나니까 포르노에 대한 패턴을 파악하게 되었다. 단순히 벗기고, 빨고, 넣고(쑤시고), 싸고 하는 것이 눈에 흰하게 들어왔다. '재미없어'라는 생각이 어느덧 들었다. 그때부터 특별한 일(주로 딸딸이) 없는 한은 포르노에 대한 충동이 없어졌다. 한마디로 질렸다.

형석 : 볼 때마다 질렸다. 내가 생각하는 성과는 달라서.

인상 : 질려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자주 보지 않기 때문에.

준영 : 없다. 그냥 모든게 다 그런 것 아닌가.

종훈 :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서 질린 적은 없다. 볼 때마다 새롭다.

재신 : 없다. 보면 그냥 재밌다. 똑같으면 흥미가 없을 수도.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종태 : 가끔, 아주 가끔 봐서 질리지는 않는다. 그냥 생각이 날 때는 보고 싶다.

포르노를 자주 보지 않는 인상이나 준영, 종훈이나 재신, 종태는 별로 포르노에 질리지 않는다고 말을 한다. 자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볼 때마다 새롭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준우와 일건처럼 포르노를 많이 본 아이들은 포르노의 구조가 너무 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건의 말처럼 포르노의 패턴은 이야기가 있건 없건 간에 너무 단순하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그래서 보통의 포르노들이 다 '시시하다'고 이 구동성으로 말한다.

연구자 : 포르노에서 제일 시시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뭐니?

재신 : 처음부터 끝까지 신음소리로 끝나는 행위요.

종태 :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성행위만 하고 끝나는 거요.

준우 : 너무 섹스 하는 장면만 보여주는 스토리 없는 반복적인 영화요.

인상 : 내용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섹스하기만 하는 거요.

준영 : 앞 뒤 내용 없이 속전속결로 끝나는 거요.

종훈 : 만나자마자 벗고 하고 끝나는 것...근데 다 그렇던데요.

일건 : 똑같은 내용이 되풀이 될 때 재미없다.

형석 : 다 시시하다. 너무나도 단순반복이기 때문에...

상석 : 다 시시하고 재미없을 것 같다.

따라서 이 아이들은 자위 행위를 할 때 어떤 성적 자극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포르노를 봐야겠다거나 보고 싶다는 생각은 거의 안 든다고 말을 한다. 포르노를 보고 자위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위 행위를 할 때 포르노를 보게 되는 것이며, 이때 포르노는 사실 그 자체로 성적 자극이 된다고 보다는 '나는 포르노를 보고 있다'는 것이 자극을 주는 것이 된다.

이 아이들에게 특별히 흥미나 자극을 유발하는 포르노는 '특이한' 것들이다. 지금까지 못 본 특이한 체위가 나온다거나, 배경이 유별나다거나, 동성애나 사도-마조히즘처럼 쉽게 구하지 못하는 성적 쾌락 방식이 흥미를 유발시킨다.

준우 : 그렇잖아요. 자주 보면 질리죠. 매일 똑같은 것만 보여주니깐. 사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발기도 제대로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럼 좀 특이한 걸 찾게 되죠. 동물이랑 하는 것도 그렇고, 남자들끼리 하는 것도 그렇고. 뭐 그렇게 특이하고 이상한 거. 한마디로 변태적인 것을 찾죠. 그런 건 자극이 되니깐. (동성애나 동물이랑 하는 게 성적 자극이 되니?) 글세, 그게 좀 그래요. 처음에 동성에 볼 때랑 동물이랑 하는 것 볼 때는 더럽고 역겨웠거든요. 흥분은 안되구요. 그런데 좀 보다 보니깐 묘하게 그게 또 자극적이더라구요. 모르겠어요. 그게 왜 자극적인지는. 제가 변태도 아닌데. 전 그런걸 할 생각은 없거든요. 그냥...뭐 다른 게 워낙 지겨우니깐 특이한 걸 찾는 거죠.

준우처럼 '변태적'인 포르노를 보는 아이들이 특별히 '변태적' 성욕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준우의 말처럼 다른 게 워낙 식상하고 지겹기 때문에 변태적이거나 하드코어 포르노들이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런 하드코어 포르노들이 성적인 욕구를 자극한다기보다는 식상함에 대한 반작용으로써,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다.

연구자 : 그럼 너희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좋았거나 흥분되던 포르노는 어떤 거였니?

재신 : 일본 만화 포르노... 별별 희한한 장치와 방식으로 흥분을 한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과연 그런 것으로 흥분과 쾌감을 갖는지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사람을 음식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먹으면서 여자를 자극하는 행위였어요.

준우 : 일본의 포르노 만화. 사실성은 조금 멀어지지만 완벽한 사운드와 획기적인,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체위와 관계 등이 나오기 때문에...

준영 : 모두다 똑같은 것 같다.

종훈 : 별로 그렇게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고, 그냥 각 장면이 생각이 난다. 처음에 봤을 때 이런 체위도 있었구나...하고 감탄했다.

준영이처럼 지금까지 본 포르노가 다 고만고만한 아이들은 '포르노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이 아니냐'고 말을 하지만 재신이나 준우, 종훈과 같이 일본 애니메이션 포르노를 본 친구들은 상당한 매력을 느낀다. 실제로 애니메이션 포르노는 실사 영화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채워라든가, 상황설정을 통해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많이 연출한다. SF물과 결합된 것도 있으며, 오락 '동급생'처럼 학교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엮어진 것, 공포물처럼 처리된 것 등 다양한 스토리를 가미하고 있다.

따라서 아이들이 이 경우에 흥미로워하는 것은 '성적으로 자극'되기 때문이 아니라 '성'을 저런 방식으로 다룰 수도 있고, 저런 상상력도 가능하구나하는 것에 대한 감탄이다. 다른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는 방식과 그렇게 틀리지 않다. 다만 그것이 '성'을 중심으로 설정된 담론적 장치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흥분을 받는 것이다. 즉, 아이들이 이런 성에 대한 특이한 텍스트를 보고 자위행위를 하는 것은 내용 자체에서 어떤 자극을 받는 것이라기 보다는 '성에 대한 이미지를 보고 있다'는 상황, 즉 성에 대한 담론과 이미지로 세팅된 공간으로부터의 영향이라고 봐야 한다.

4) 소결

결국 아이들은 포르노에 나타난 남성과 여성, 그리고 그들의 행위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교섭적 수용을 한다.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도 않으며, 단지 구경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조작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성을 다룸에 있어서는 상당히 포르노적인 이미지에 근접하고 있음을 자위 행위에 대한 이야기에서 드러내고 있다. 비록 이들 스스로 자위 행위 역시 포르노와 마찬가지로 실제의 성행위와는 다르다고 말을 한다. 그러나 청소년기 아이들의 섹슈얼리티에서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위행위라고 하였을 때 아이들의 섹슈얼리티는 상당히 포르노적인 이미지들을 통하여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이 곧 '포르노가 아이들의 섹슈얼리티'를 구성한다는 인과론적인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실제 포르노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에서 '교섭적' 해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질적으로는 포르노적인 이미지를 수용하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즉 아이들이 포르노적 이미지를 실질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주위의 조건이나 담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음란물의 유해성과 그 규제 실태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a)의 분석이 상당히 시사적이다. 연구자들은 '비폭력적이고 성적으로 인격을 격화시키지 않는 표현물의 행위 효과는 무의미하다고 할지라도, 성적으로 폭력적이고 품위 저하적인 표현물에 대한 접촉은 1) 강간 신화와 여성 적대적인 폭력에 대해 더 쉽게, 크게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2) 피해자가 폭력과 무력의 사용을 즐기는 것으로 묘사될 때, 그 효과는 점점 더 분명해지며, 3) 특히 강간범과 특정 남성들을 자극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a: 45)고 분석한다.

특히 2번과 관련하여 이들은 잔인한 음란물을 보면서 정상적 남자들이 흥분을 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은 피해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점이며, 피해자-여성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갈 때 가장 크게 흥분하며, 대부분의 잔인한 음란물의 서사구조가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a: 35)고 말한다. 사실 이것은 지배적인 강간 신화의 서사 구조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들은 시중에서 흔히 구하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비디오 에로물과 불법으로 유통되는 포르노 테이프를 비교해 봤을 때 역설적으로 이러한 강간 신화에 더 근접하고 있는 것은 합법적인 비디오 에로물임(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a: 85)을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밝히고 있다. 연구자들은 우리 사회가 표현의 문제에 있어서 음란함에 대해서는 그토록 엄격하면서 폭력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다며 놀라워한다.³⁹⁾ 결국 이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강간신화

39) '그 반면에 우리 문화에서 상대적으로 폭력의 묘사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방비하며, 심지어는 좀 더 '관용적'이기까지 한가에 대하여 새삼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전쟁, 폭력, 살인 등으로 인간을 파괴시키고 제거시키는 행위를 매우 '멋진' 것으로 묘사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로 삼지 않으면서도, 몇 백년 이래로 인간의 성적 활동

를 유포시키고,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성관념을 갖게 하는 것은 포르노라기 보다는 폭력적인 비디오 에로물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런 점들을 살펴보았을 때 포르노적인 이미지가 아이들의 섹슈얼리티에 수용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위 연구 결과에서처럼 오히려 포르노보다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성담론과 관념이 더 남근 중심적이며, 더 폭력적이고 여성비하적이다. 우리 사회야말로 일반적인 포르노보다 더 하드코어적인 포르노적 성담론으로 둘러싸여 있다. 포르노를 봄으로써 성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고 보다는 성에 대한 지배적인 우리 사회의 담론을 거쳐서 포르노적인 이미지가 수용되는 것이다.

연구자 : 쉬는 시간 같은 때 모여서 떠들 때 성에 대해서 어떤 걸 떠드니?

일건 : 뭐.....쉬는 시간에 하는 얘기는 날나리같은 애들이 여자 따먹은 이야기 해주고...(어떤 이야기야?)그런 거...해줬더니 여자애가 좋아 죽을라 그러더라...몇 시간을 했다.....힘들어 죽을뻔 했다...우 몰려서 이야기들을 때는 이렇게 좀 과장되고 잘난 척 하는 이야기나 웃기는 음담패설이구요.....친한 친구한테서 잔 얘기 들을 때는 좀 사실적인 것 있잖아요....여자애가 아프다고만 하더라.....금방 끝났다...그런 거...근데 사실 음담패설 같은 것은 수업시간에 졸리거나 따분하면 선생님이 해줘요...분위기 반전하는 차원에서...군대 있을 때 이야기같은거나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거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포르노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르노는 포르노일 뿐이다'라는 말이 포르노에 대해서 비판적인 독해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다. 아이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포르노를 교섭적으로 해독한다. 첫 번째로 아이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지배적인 성담론을 통하여 포르노를 해독한다. 여자들의 성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을 표현, 묘사하는 것을 '음란'으로 규정하여 범죄로 삼은 것은 상당히 역설적으로 보인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a: 90)

있으며, 강간당하는 여자를 상상하고, 여자를 정복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배적인 성담론의 산물이다. 이 지배적인 성담론과 충돌하는 포르노의 코드는 탈락된다. 두 번째로는 자기 주위 아이들의 성경험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 narratives이다. 인상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자들이 성행위를 할 때 별로 쾌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해 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이다. 당연히 포르노에서 섹스를 할 때마다 성적 쾌감에 젖는 여자의 모습이라는 포르노의 코드는 탈락되는 것이다.

2. 청소년의 성적 지향성

아이들은 포르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신들이 지향하는 성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 해준다. 아이들은 성이란 본질적으로 성기나 성감대에 대한 자극을 통해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라는 설명에 동의한다. 하지만 자신들의 삶에서 성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성은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친밀성을 생성해 가는 과정이다. 친밀감은 행위로 보여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표정이나 분위기를 통해 느껴지는 것이다. 아이들은 친밀감을 형성해 가는 과정, 즉 분위기와 표정이 담긴 낭만적인 이야기가 있는 성을 원한다.

1) 이야기가 구성된 성 : 리얼리티와 강간 신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이들은 시종일관 성기만 비추고 있는 포르노에 대해서 지겨워하고 있다. 아이들은 성sexuality이라는 것이 단지 섹스sex나 성행위 sexual intercourse를 넘어선 그 무엇이 되기를 바란다. 성sexuality이 포르노처럼 보여지기 위해서는 성행위로만 재현 된다고 하더라도, 그 성행위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맥락이 있기를 바란다. 그 성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연구자 : 어떤 포르노가 만들어졌으면 하니?

재신 : 좀 더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같은 그런 거요. 지금까지 본 포르노는 모두 우리랑은 다른 슈퍼맨과 옥녀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 말고.

종태 : 내가 생각하기엔 모든 것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지겨울 것 같다. 그래서 그냥 한번에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전 빨간마후라가 가장 생각나는데 어린 여자아이들이 섹스를 하고 신음소리를 내고 이상한 욕을 할 때....그때 묘하게 흥분되고 인상적이었어요.

준우 : 빨간마후라처럼 우리 또래의 학생들이 나오는 포르노요. 그런 거 사실 감 있으니까 진짜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인상 : 실제로 부부들이 할 때는 어떤지 그런 게 비디오로 만들어 졌으면 좋겠어요.

준영 : 내가 아는 사람이 나오는 포르노요. 딴 애들이 말한 거랑 같아요. 아는 사람이 나오면 좀 더 사실적이니깐요.

포르노에서 성이 보다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기를 바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이다. 하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부부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행위 과정을 가감 없이 그대로 찍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포르노는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성기를 드러내면서 성행위를 한다. 포르노에서 배우들은 수많은 체위들을 통해 가장 잘 성기를 보여줄 수 있게끔 자세를 잡는다. 때문에 어떤 체위들은 너무나 비사실적이며 아이들 표현을 빌리면 '요기대행진'같은 것일 때가 많다.

두 번째로 현실적이기를 바라는 것은 체위뿐만 아니라 포르노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실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신의 말처럼 보통 포르노에는 용녀와 변강쇠만 나오기 때문에 도무지 '내일'같은 느낌이 안 들고 특별하고 예외적인 일로만 비춰진다. 남자들은 하나같이 거대한 성기를 가지고 있고, 여자들도 비정상적일 정도로 유방이 크다. 성을 밝히는 것이나 정력 또한 보통 사람이랑은 달라 보인다. 그들의 성행위가 비사실적인 것처럼 그들 또한 비현실적인 존재로 보인다. 때문에 포르노가 보다 더 현실적이

기 위해서는 실제 부부라던가, 빨간마후라처럼 내 또래의 아이들이라던가, 내가 아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때문에 딱 한번 포르노를 본 적이 있다는 성수(가명)가 물어 본 것이 '진짜 부부간에도 포르노처럼 그렇게 성행위를 하나?'는 질문이었다. 특히 오럴 섹스를 하는 것은 충격이었다고 말을 한다. 준영 또한 보통 사람들도 포르노처럼 성행위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한다.

또한 좀 더 현실적인 포르노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은 종훈이나 재신이 말한 것처럼 성행위에 이르기까지가 그림직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아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은 성행위가 사실적인 것도 있지만, 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 두 사람이라면 사실이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즉, 성행위가 사실적이고 현실적인가 아닌가는 성행위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중요하지만, 또한 성행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현실적이고 사실적인가 아닌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성행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그럴싸해 보이는 것이 그 둘 사이의 성행위에 그것이 일어나기까지의 맥락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자 : 너넨 어떠니?

종훈 : 무조건 섹스 하는 것만 아니라 내용이 있는 포르노요. 섹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나오는 그런 포르노요.

재신 : 맞아요. 섹스가 나타나게 되는 과정이 나오는 걸로. 인간들은 한 순간의 느낌보다는 다소 아쉬운 듯하며 지속적인 느낌을 중시하는 것 같아요. 마치 여자가 한꺼번에 옷을 벗는 것보다는 하나씩 벗는 것같은...(에로티시즘?) 예. 그런 거요.

준우 : 맞아. 그런 거.

재신과 종훈, 준우는 지금까지 본 포르노는 뜬금없이 한꺼번에 확 벗겨버리고 다 보여주니깐 처음에는 자극적인데 좀 지나면 식상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포르노에는 왜 그 여자가 옷을 벗는지, 그리고 왜 그 남자랑 만나는지, 그리고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냥 만나자마자 벗고 섹스를

하는 것이다. 가끔 스토리가 있는 것을 보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도 영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에 비해 내용이 있는 포르노는 에로티시즘과 어떤 의미에서는 통하는 것이 있다.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로티시즘은 절대 마지막 선을 넘어서지 않는다. 그 때문에 욕망의 시간은 항상 뒤로 연기된다. 재선은 사람들은 바로 그 욕망의 순간이 지연되는 것을 중시한다고 본다. 이것은 영화에서 이야기가 형성되는데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다. 에로티시즘에 이야기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욕망의 지연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야기가 욕망의 순간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내용이 있는 포르노는 성행위를 하게 되는 것까지의 과정이 나오면서 성행위는 미루어지게 된다. 즉 에로티시즘과 달리 포르노는 욕망의 순간이 결국 나타나게는 되지만 그 순간은 그럴싸한 스토리를 갖추게 되어 지연되는 효과는 가지게 된다. 재선은 사람들은 그런 지속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일견과 형식은 좀 더 드라마틱하고 자극적인 포르노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을 한다. '강간'과 같은 보다 강력한 이야기가 포르노에 삽입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일견 : 남자나 여자 한사람만 원해서 그것을 성취해나가는 과정요. (강간 말이 지?) 예. 그런 거죠.

형식 : 저도 같아요. 강간당하는 그런 류의 포르노요. 내가 본 포르노들은 여자들이 너무나 노골적이고 능동적이어서 재미가 없었다. 반항하는 여자, 그리고 그것을 제압하려는 남자. 어쩌면 남자의 정복 의식이 담겨져 있는 내용을 필요로 한다

일견과 형식은 성에 대한 이야기로서 '강간 신화'를 수용하고 있다. 일견은 자기가 이제까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흥분되었던 포르노는 '내용이 그냥 서로 벗기고 빨고 넣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한 남자가 여자를 성폭행 하는 장면인데 남자가 저항하는 여자의 옷을 벗기고, 그의 성기를 입에 집어넣는 것'이었다며 '이처럼

물에 박힌 내용이 아닌 혁신적인 내용이 더 자극적'이라고 말한다. 형식 역시 지금까지 본 포르노는 '홍분이 되거나 잔뜩있던 것은 없으며' 다들 '내용이 없고 처음부터 벗고 나오니까 흥분이 안되더라'고 말한다. 때문에 둘은 강간당하는 것과 같이 자극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자들이 강간을 당할 때 사실 좋아한다고 믿는 남자들은 사실 강간과 같은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서 쾌감을 얻는 것이다. 즉 여자들의 성욕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자신의 성욕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둘은 여자들이 강간을 당할 때 흥분할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들은 그런 장면을 볼 때 흥분될 것이라고 말을 한다.

이것이 강간 신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1994a)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강간과 같이 폭력적인 성행위장면을 볼 때 사람들이 흥분을 느끼는 것은 피해자의 반응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반항을 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다, 점차 폭력에 순응하며 긍정적인 태도로 돌아서며 쾌감을 느낄 때 사람들은 더 큰 쾌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a: 35)

강간 신화는 성행위에 보다 강력한 이야기를 부여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성행위 자체가 무매개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성행위를 맺는 두 사람 사이에 '강간'이라는 드라마틱하고 강력한 이야기 구조가 형성되기를 바라며 그것이 더 큰 사실감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강간은 설정되는 것이다. 어떤 포르노를 만들고 싶으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형식은 '한 여자가 강간당하는 그런 포르노'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이 '성을 지나치게 드라마틱하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성에 대한 것은 자기가 결정'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강간 신화를 수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 성담론의 일반적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처럼 대다수의 비디오 에로물들은 강간 신화를 수용하고 있으며, 많은 수의 음담패설은 강간신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성폭력 상담소의 조사 결과(김준호·김혜원, 1997: 37)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 중 강간신화나 여성의 피학적 성욕을 수용하고 있는 비율은 21.2%

정도이다. 공공연히 남성들 사이에서 '바늘이 밑에서 마구 뒤흔드는데 실이 어떻게 꿰어지냐'40)며 '여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한다면 강간은 일어날 수 없다'(김지혜, 1997: 10)고 이야기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아이들의 이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형식이나 일견에게서 드러나는 문제는 강간 신화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보다는 남자를 흥분시키기 위해 설정되는 이야기가 왜 하필이면 '강간'으로 상상되는가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특정한 이야기 구조가 보다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접근한다면 그 문화적 코드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성담론이 형성되는 담론적/비담론적 장치와 경로를 검토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하겠다.

2) 친밀감이 구성된 성: '자극-반응' 모델에 대한 거부

대다수의 포르노에는 표정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포르노에서 남성들은 사정하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으며 신체 또한 잘 나타나지 않는다(김지혜, 1997: 9). 여성들의 경우에도 얼굴보다는 주로 성기나 유방 등 넓은 의미에서의 여성 성기가 주로 비취진다. 여성들의 얼굴은 남성에 비해 자주 비취지지만 그것도 주로 오럴섹스를 할 때 남자 성기와 함께 비취주며, 간혹 쾌감에 젖은 모습이 비취질 따름이다. 전체적으로 포르노는 남자와 여자의 표정을 포착하는 데는 인색하다. 때문에 아이들은 포르노에서 표정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연구자 : 포르노를 찍을 때 카메라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니? 여자배우한테는 어떤 걸 요구하겠어? 남자 배우는?

40) 연구자의 경우 처음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중학교 때 남자 사회 선생으로부터였다. 그 이후로도 연구자는 이런 이야기를 고등학교 때에도, 대학교 때에도 남자들끼리 모여서 시시덕거릴 때 곧잘 들곤 하였다.

재신 : 얼굴 표정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음..여자 배우한테는 좀더 자극적이고 섹시한 몸매와 표정, 정숙하고 교양적인 말 솜씨..그런 거요....(포르노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글썽요....남자배우한테는 자기 자신이 진정 한 여자와 사랑을 한다는 리얼리티한 표정...그런 거요...

종태 : 남녀 모두의 몸과 모습들. 주로 여자 몸만 나오고, 그것도 표정이나 모습은 잘 안 나오잖아요. 섹스 하는 행위의 자세와 모습요.

준우 : 성기간의 접촉보다는 표정과 주변 배경과의 조화에 주 초점을 맞출 것이다. 배우들의 특히 여자의 표정 연기와 소리 연출에 신경을 쓸꺼예요. 거기다가 여자 배우는 적절한 절제도 필요하겠죠. 남자는 능동성과 여성을 압도하는 듯한 위엄(?)있는 표정과 행동요.

인상 : 표정을 중심으로 찍고 성기를 종종 보여준다. 사람의 표정과 배경 음향 효과의 절묘한 조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중훈 : 여자 배우의 육체와 얼굴에(난 남자니깐...) 신경을 주로 쓸꺼예요..

일건 :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보지! 사실 그게 포르노죠. 인위적인 도구. 예를 들면 인공자지나 촛농 등등... 여자 배우한테는 성기를 부러뜨릴 정도의 식가치(오랄 섹스)를 요구하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일건이 혼자이며 나머지 아이들은 '분위기'나 '표정'과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 사실 일건은 자기를 가장 흥분시키고 좋아하며 즐기는 섹스 스타일은 오랄섹스라고 이야기한다.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대다수의 포르노가 지나치게 '성기 중심적 섹스'에 치중하여 성행위와 성과정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르노에 배우들이 표정이 아주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포르노 또한 흔히 구할 수 있는 조잡하게 만들어진 것과 '목구멍 깊숙이'와 같이 잘 만들어졌다고 평가받는 포르노사이에는 3류영화와 예술 영화의 차이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같은 3류 포르노라고 하더라도 배우들의 표정을 처리하는 방식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만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보편적인 포르노에서의 표정 처리가

상당히 스테레오타입화되어 있다고는 말할 수 있다. 이런 포르노들에서 남자의 표정이 나타나는 때는 주로 여성이 오럴섹스를 할 때와 사정하는 순간의 얼굴 표정을 잡았을 때 정도이다. 남자의 얼굴 표정이 나오는 대다수에서 남자는 여자를 '관찰하듯이'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으며, 눈을 감고 입을 벌리면서 쾌락에 젖어있는 것은 드문 편이다. 주로 남자의 시선은 '웅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여성의 표정은 '전기에 감전된 듯 격렬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오럴섹스를 하고 있을 때 여자는 남자를 '관찰하듯' 쳐다보고 있지만, 남자가 여자를 오럴섹스할때와는 달리 아주 '계절스럽게' 묘사된다. 일견이 말하는 것처럼 남자 성기를 부러뜨릴 듯이 덩벼들면서 탐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항문 성교나 질 성교를 하는 장면에서도 여자들의 표정은 상당히 과장되어 있는 편이다. 여자들은 항상 큰 소리를 지르며 - 상대적으로 남성은 사정하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별로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 몸을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다. 남자 배우의 시선이 여자를 바라보고 있다면, 여자 배우는 주로 눈을 감고 입을 벌리고 쾌락에 젖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렇게 대다수의 포르노에서 묘사하는 여성과 남성의 시선과 표정, 몸짓은 제법 큰 차이가 난다. 이것을 게이 포르노에서 남성을 묘사하는 방식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게이 포르노에서는 이성애 포르노에서와 같이 격렬한 몸짓이나 표정 등은 잘 처리되지 않는다. 특이한 것은 성행위의 전후에 '키스'를 하는 장면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며 표정이나 몸짓이 이성애 포르노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가죽leather 복장 성도착 게이 포르노의 경우에도 행위가 아니라 몸짓이나 표정이 여성의 그것보다 부드러운 편⁴¹⁾이다.

이것은 단지 포르노가 여성과 남성을 재현해내는 방식의 차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포르노가 성을 이해하고 다루고 설명하는 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포르노에서 성은 전형적인 자극-반응 모델을 취한다.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나 항문에 삽입되면 여성은 성적으로 흥분한다. 그리고 남성의 사정과 함께 여성 또한 오르가즘에 도달한다. 포르노는 성적 욕구의 해소과정을 설명함에 있어 육체의 기계적인 과정, 그 이상도 이하도 필요하지 않다는 신화를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포르노에는 실질적으로 '얼굴'이 필요하지 않다⁴²⁾. 포르노에서 성은 두 행위자들이 서로를 유혹하며 만들어 가는 '게임'이 아니라 리비도라는 성에너지가 나타나서 해소되는, 자극이 있으며, 투입된 만큼 산출되는 '경제학'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Boudrillard, 1996: 61). 때문에 포르노에서의 표정과 몸짓은 '얼굴'을 통해 의미를 드러내는 '상징'이 아니라, '얼굴 없는 몸'을 통해 나타나는 '이윤'이 된다.

아이들이 말하는 표정은 자극에 따라 산출되는 반응, 즉 이윤으로써의 표정과 몸짓이 아니다. 아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하는 것같은 그런 표정', 즉 반응하고 있음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음이 드러나기를 바란다. 그것은 자극-반응이 이야기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교감의 표정이다.

연구자 : 아이들이 말하는 표정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니?

준영(대) : 처음에 볼 때야 야..여자들이 해주면 그렇게 흥분하는구나...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말한 것처럼 해 본 아이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깐 그게 아니잖아요. 아프다고만하구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자꾸 보다 보니깐 포르노에서 여자들이 짓는 표정이나 몸짓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되더라구요. 쑤신다고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그러니까 표정이나 몸짓이 진짜로 할 때처럼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 때는 어떤 표정을 짓는지...그리고 그

41) 물론 이것 역시 게이 포르노들의 일반적 양상이라고 하기에는 연구자가 접한 것이 지나치게 협소하다. 연구자는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 게이 포르노를 구해보고자 했지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주로 인터넷 웹사이트들을 통해서 접하였다.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이트들을 찾아보며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느꼈지만 다른 매체들까지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레즈비언 포르노나 기타 다른 성적 소수자들의 것들과도 비교해보아야 할 것이다.

42) 보드리아르는 이것을 '가상의 전반적인 문화 속에서는 육체와 얼굴이 구별되지 않는 데 반하여, 의미의 문화 속에서는 육체와 얼굴이 구별되고 있다. (여기서 육체는 엄청나게 눈에 띄는 것이 되고 욕망이라고 불리는 괴물의 기호가 된다) 그리고 포르노에서는 외설스러운 육체가 완전히 승리를 거두게 되어 얼굴이 없어지는 단계에까지 이른다. 그러므로.....포르노배우들은 얼굴이 없다. 그들은 아름다울 수도 추할 수도 없고 표정이 풍부할 수도 없다.'(Boudrillard, 1997: 54)라고 말한다.

표정이 '아프다' 아니면 '죽인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다', '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랑 사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표정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야 하는 사람도 사실 기본이 나지 않아요. 서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아무하고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한다는 느낌도 들거구...

그러나 이 얼굴⁴³⁾의 표정이 드러나는 것은 단지 배우의 사실적인 연기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아이들은 얼굴의 표정이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배경 음악과 공간,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말을 한다. 표정과 소리, 배경, 음악 등등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고, 그럴 때 사람의 표정은 '느껴지는 것'이다. 아이들은 성행위에서 이 '표정'이 드러나기를 바란다.

3. 모순적으로 구성된 섹슈얼리티의 혼종 양상

1) 성기중심주의와 에로티시즘⁴⁴⁾

43) 윤리의 문제를 얼굴에서 드러낸 것은 레비나스의 철학이다. 레비나스의 논지를 빌리면 타자의 얼굴과 표정을 보고자 함은 상대방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각성하고자함이다. 윤리적 책임을 각성함은 일방적으로 상대를 지배하고 소유함으로써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말하는 '얼굴과 표정'이 보고 싶다는 말은 상대방에 대한 윤리적 책임에까지 이르지 않지만, 포르노가 얼굴을 삭제함으로써 언제나 성을 상대에 대한 지배와 소유로 일방적으로 환원하는 것에 대한 거부로 볼 수 있다.

44) '성기 - 포르노'와 '얼굴 - 에로티시즘'은 아이들이 모순적으로 원하는 성을 다루는 두 가지 방식을 표현한 것이다. 보드리야르는 기능화된 육체, 그 중에서도 완전히 분해되어 '크게 벌어져 있거나 발기한 성기'를 포르노가 성을 다루는 방식의 결과로 본다. 특히 이 '크게 벌어져 있거나 발기한 성기'는 하이퍼섹슈얼리티속에서 하나의 기호이다(Baudrillard, 1996: 53) 이에 반해 보드리야르는 직접적으로 에로티시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얼굴 - 에로티시즘'은 에로티시즘이 '성기'라는 해부학-실연이 아니라 베일이라는 표면을 통하여 놀이한다는 점에서, 보드리야르에게 있어 육체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포르노에 나타난 성은 성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그럴싸한 '사랑'이라는 맥락이 제거되었으며, 성행위에서도 역시 '교감이 제거된 자극 - 반응'이라는 '행위'로서의 성일뿐이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각자의 '성욕'을 충족시키는 과정만이 나타나 있다. 즉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려고하는 모습만 보인다. 성의 본질에 대한 포르노의 이데올로기인 리비도의 경제학이 이야기를 파괴하고, 교감의 부재를 낳고, 얼굴을 삭제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 역시 포르노에서 이야기가 나타나고,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포르노적인 성의 재현방식은 어쩔 수 없이 리비도의 경제학에 따른 '성기 중심적'인 재현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자 : 잘 만든 포르노란 어떤 것인 것 같애?

준영 : 정말로 남녀사이의 사랑이 보여져야 하지만 어차피 상업적으로 찍는 거라면 사랑이 있을 수 없다.

종훈 : 스토리, 시나리오의 전개과정. 그냥 섹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내용이 들어있는 포르노. 그런데 그런 것은 한번도 본 적이 없다.

일건 : 나는 포르노는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한다.

상석 : 잘 만든 포르노도 따로 있나?

준영은 포르노에서 얼굴이 삭제되는 것은 성을 '상업화'하고 '구경거리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한다. 포르노는 보는 사람, 특히 남성을 흥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장적인 몸짓과 표정을 취할 수밖에 없다. 뭐든지 상품화되면 실제의 모습이랑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종훈은 그런 포르노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자기가 본 것이 그렇지 않은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한다. 포르노를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상석은 포르노에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포르노는 섹스를 보

대비되는 개념으로써의 얼굴과 짝을 이룰 수 있다.

여주는 것만이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포르노를 아주 많이 본 일건은 스토리가 있건 없건, 분위기가 좋건 안 좋건간에 '포르노는 어쩔 수 없이 포르노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더라도 포르노는 발기해서 삽입하고, 사정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건은 성을 성욕화한 포르노적인 섹슈얼리티를 대체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성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포르노가 성을 재현하는 방식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은 표정과 이야기가 있는, 사실적이고 상호적인 교감이 있는 포르노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리비도의 경제학에 입각한 '성기 중심적'인 것이 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포르노가 성을 재현하는 것이라면, 다른 무엇보다도 포르노는 '성기'를 보여주어야 하고, '성행위'가 묘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연구자 : 이게 들어가야 포르노는 포르노다워진다고 생각되는 것은 뭐니?

재신 : 내용이 죽이고(스토리가 있고) 우연적인 한순간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종태 : 남녀가 서로 흥분하면서 섹스 하는 것. 잘 모르겠다. 암튼 그것이다.

준우 : 여성과 남성의 테크닉과 만족도 등

종훈 : 사람들이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대리 만족 시켜준다. (그룹 섹스 같은 거)

형석 : 없다. 그냥 남자와 여자가 섹스 하는 것이다.

재신의 말처럼 포르노는 내용이 죽이고 스토리가 박진감이 넘치고 분위기가 잘 묘사되더라도 어쨌든 '절정의 순간'을 '보여줘야' 한다. 종태와 형석은 남자와 여자가 섹스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포르노는 포르노가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한다. 이것은 국가 기관이 음란물, 즉 포르노를 규정하는 방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⁴⁵⁾

45) 아이들은 '검열 기관'이 규정하는 포르노와 음란물에 대한 규정을 실질적으로는 '어기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개념 그 자체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위반과 수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이 '포르노'를 보면서 위반하는 것은 지배적 성개념의 경계가 자신들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이지, 그것을 해체하는 것은 아닌 것이

본질적으로 포르노적인 성에서 얼굴을 통해 드러나는 느낌과 표정은 중요하지 않다. 포르노적인 성은 단지 행위로서의 성이다. 일건의 말처럼 포르노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 '표정과 느낌'은 포르노가 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에로티시즘'의 몫이 된다.

에로티시즘과 달리 포르노에서 행위의 주체들을 '자기의 욕망만을 충족시키는 단절적인 존재'로 나타내는 것은 '성'을 구경거리화 하는데 있어서는 필수적이다. 포르노는 사실 성행위나 성기를 구경거리화하기 보다는 보는 사람을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이것이 포르노의 사용가치이다. 따라서 포르노는 '성적으로 흥분된 상태'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포르노의 화폐이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성적으로 흥분된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때문에 포르노의 최대 목표는 배우가 '성적으로 흥분되고 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시화 된다. 따라서 배우는 자기가 '성적으로 흥분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연히 - 사도마조히즘일 경우라도 - 최대한 능동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성의 모습이 성에 굶주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게걸스럽게 달려드는 것처럼 묘사되는 것은 포르노의 가치 생산 체계 내에서는 필연적인 귀결이 되는 것이다.⁴⁶⁾

여기에 더하여 포르노는 '성적으로 흥분되는 과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다. 아이들 속에서 검열 기관이 규정한 개념은 그대로 재생산된다. 즉 '누가 볼 수 있고, 보아서는 안 되는가'라는 검열 기관의 규정은 실천적으로 어기고 있지만 '무엇이 포르노인가'라는 규정은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46) 포르노에서 여성이 이렇게 묘사되는 것은 단지 가부장제 속에서 남성적 성욕을 목표로 한다는 점때문만이 아니다. 이것은 성욕의 생성과 해소를 가시화하고자하는 근대적 성장치로서의 포르노로서는 당연한 귀결점이 되는 것이다. 남성과 달리 여성은 자신의 성욕으로 충만해있음(발기), 해소되었음(사정)을 가시화할 수 있는 육체적 증거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육체 그 자체만을 가지고 가시화하기가 힘든 것이다. 때문에 여성은 남성과 달리 포르노가 약속한 잉여가치, 즉 쾌락을 자기가 흥분을 느끼고 있고, 그것이 해소되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몸으로, 표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처럼 포르노에서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과 달리 '어쩔 수 없이' 몸전체가, 얼굴이 쾌락의 징표가 되는 것이다. 근대가 성을 가시화 하는 파국적 양상인 포르노에 있어서도 여성의 얼굴을 완전히 삭제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희하는 힘으로써의 여성(Baudrillard, 1996: 30)은 살아남는다.

성적으로 흥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은 성욕이나 성적 흥분을 '실체화'하는 것이다. 물질화될때만이 가시화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르노에서 성적으로 흥분되는 과정은 결국 성행위를 보여주는 과정으로 귀결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성행위 중에서도 성기에 집중적인 포커스가 맞추어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성을 가시화하고자하는 '성기 중심적' 성sexuality에서, 실제로 가시화된 성욕의 달성은 당연히 남성의 사정으로 재현된다.⁴⁷⁾

따라서 아이들이 처음 포르노를 보면서 흥분하는 것은 성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이다. '저렇게 하는구나', '저런 채워도 있구나', '여기서는 왜 이렇게 되지' 등 일견이를 비롯하여 인터뷰를 하였던 아이들이 처음 포르노를 보았을 때 '흥분'했던 것은 '저것이 성행위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실체화된 성은 분위기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된다. 때문에 아이들이 말하는 성의 실체란 결국은 성기를 말하는 것이며, 성행위를 말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사정'을 향한 성기중심적 성행위는 아이들의 말처럼 곧 지겨워진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실제적인 성은 성기간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그 이상이다. '저것만 있는 것은 아닐텐데'라며 아이들은 화면 가득히 나온 성기간의 마찰밖에 있는 '표정'과 '배경', 즉 얼굴과 분위기를 보고 싶어한다. 카메라가 '성'을 공간적으로 좀 더 넓게 잡아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에로티시즘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난다. 성기가 아니라 자세, 반응이 아니라 표정, 좁은 성기가 아니라 넓은 배경과의 조화 속에서 성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고양된다. 하지만 에로티시즘에서는 결코 성이나 성욕이 '실체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들추어보고 싶다. 왜 빨리 카메라가 허리 밑으로는 안 내려가는지 조바심 친다. 끝내 신음소리와 음악, 표정 속에서 베드신이 끝날 때 아이들은 '배신감'을 느낀다. 따라서 에로티시즘의 경우 아이들은 허리 아래 화면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한다. 카메라가 '그곳'을 '줌으로 확 땅겨' 비춰주기를 바란다.

47) 보드리야르는 따라서 서구 근대 문화가 조루의 문화(Baudrillard, 1996: 59)라고 이야기한다. 포르노는 언제나 남자가 사정하는 장면으로 쾌락이 완성되었고, 욕망이 실현되었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포르노는 '욕망의 즉각적이고 강제적인 실현'(Baudrillard, 1996: 59)을 보여주기 위해 '사정'을 향해 돌진한다.

결국 '분위기'라는 실체화될 수 없는 무엇과, '그곳'이라는 실체화된 육체라는 장소사이의 깊은 단절 속에서 아이들은 부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단절은 과연 극복될 수 있는 것일까? 이 단절을 뛰어넘어 '그곳'을 보여주면서도 '그것'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포르노는 바로 이런 딜레마에 빠져있다.

에로티시즘은 상징화이다. 결코 실체화되어 보여줄 수 없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느끼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로티시즘에는 성을 결코 성기나 성행위로 실체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에로티시즘에서 성적인 느낌은 '그곳'이라는 한정된 장소로 고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분과 부분이 서로 엮물리면서 서로들 속으로 미끄러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로티시즘에는 베일이 필요하다. 에로티시즘은 '가리는' 것이다(Baudrillard, 1996: 54). 그러나 포르노는 성적인 느낌을 '그곳'을 통하여 실체화한다. '그곳'을 통하여 성적인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얼굴-에로티시즘은 가리는 것이며 '베일'을 통해 성을 어떤 실체로 고정하지 않고 느끼게 하며 유혹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기-포르노는 벗기는 것이며, 성을 어떤 실체로 고정하여 보이게 하는 것이다. 얼굴-에로티시즘에서 성은 유혹의 대상이며, 성기-포르노에서 성은 용시의 대상이 된다.

아이들은 성을 다루는 이 상이한 두 가지 방식을 통합시키고자 한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포르노를 보면서 '얼굴'을 느낄 수 있는 에로티시즘적인 것이다. 결국 아이들은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된 형태의 이야기를 원한다. 성을 다루는 이 두 가지 상반된 방식을 통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이 통합이 포르노처럼 성을 과장하지 않고 실제적인 것으로 다룸으로써 가능하다고 말한다. 자신들이 찍고 싶은 포르노가 바로 그런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포르노이며, 이런 포르노에는 얼굴-에로티시즘이 보여주는 느낌과 교감과 성기-포르노가 보여주는 실체로서의 성이 조화를 이루어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

48) 초기저작에서부터 보드리야르는 기호와 상징을 끊임없이 대치시킨다. 포르노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보드리야르는 포르노 세계의 외설스러움은 그 어떤 것도 가상이나 우연에 맡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필연적인 기호로 만들고 있다(Baudrillard, 1996: 55)고 말한다.

고 믿는다.

포르노가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성을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다루지 않고 상품화하여 구경거리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포르노에 나타난 배우들의 표정은 구경거리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장되어 있는 것이고, 포르노에 나타난 배우들의 성행위는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된 것이거나 진짜 성과는 별개의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지금까지의 포르노와는 달리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성을 재현할 수 있다는 말이다.⁴⁹⁾

아이들은 이런 '실제적인' 포르노의 예가 바로 '빨간마후라'라고 이야기한다. 성기를 다 드러내고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Live)'포르노가 다른 포르노에 비해서 더 성적으로 흥분을 주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준우는 이 차이는 바로 립싱크와 라이브 음악의 차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또한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그것을 사실적인 것으로,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이 느껴지는 것으로 떠올리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 '사실적인' 포르노를 둘러싸고 있는 담론이나 이미지이다. 많은 포르노들은 제목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침실을 훔쳐보기'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를 범했다' 등등의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까한 것으로 묘사를 하려고 한다'. 여기에 카메라 기법이 있다. 카메라를 숨김으로써 몰래카메라와 같은 효과가 나게 하는 것. 8mm 가정용 캠코더로 찍기 등등.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배우들의 연기력이다. 포르노 시장에서 '빨간마후라'나 '이대생 화장실 몰래 카메라', '이용경 포르노'가 유행하는 이유는 그 이미지에 '의미'가 부착되기 때문이다. 특히 '생포르노'들이 인기를 끄는 것은 사실감을 살려주는 '아마추어리즘' 때문이다.

49) 보드리야르는 이것 또한 포르노의 효과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포르노는 사실 아무 것도 숨기지 않는다. 그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사물이다. 즉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진실의 효과인 것이다. 포르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포르노가 바람직한 성의 기묘한 묘사인 이상, 어딘가 바람직한 성이 있다는 것이다.'(Baudrillard, 1996: 57)

그러나 성을 구경거리화하는 것에 반대하든, 찬성하든 성이 '그 자체로' 실체화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성이 '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⁵⁰⁾한다. 그것은 그 자체로 재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부부간의 성행위를 찍어놓은 것이든, 배우들이 과장되게 연기를 하는 것이건, 보여질 수 있는 것은 단지 '성행위'과정일 뿐이다. 성은 육체-쾌락-욕망이라는 근대적 순환 고리 속에서 리비도의 경제학으로 고정되고 본질화된다. 사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변적 요소이다. 성기간의 자극-반응은 여전히 성sexuality의 중심이다. 이 중심에서 욕망은 실현될 수 있는 것이 된다. 욕망의 실현과 더불어 유혹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얼굴-에로티시즘과 성기-포르노의 갈등은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성을 보여줌으로써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⁵¹⁾ 그것은 성을 불가역적이고 직선적이며, 가시화될 수 있는 실체로 고정하는 리비도의 경제학을 넘어서는 것이 가능하다. 성을 구경거리화한 것과 함께 벗은 몸을 욕망과 쾌락으로 기능화한 것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다. 보드리야르는 이것을 '권력의 이면에, 혹은 권력의 중심에, 그리고 생산의 중심에 있는 것은 빈 공간'(Baudrillard, 1996: 70)이라며 중심을 비워버릴 것, 혹은 성의 충만에 사로잡혀 있는 전체에 빈 공간의 문제를 제기(Baudrillard, 1996: 74)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살펴본 것처럼 근대적 성담론 체계 내에서 아이들의 섹슈얼리티는 이 지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일견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포르노처럼 성을 완전히 성욕화한 것은 아니지만, 근대적 성담론의 지배 내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섹슈얼리티는 성을 다루는 이 두 가지 상반된 방식이 모순적으로 접합되어져

50) 즉 성은 재현하는 주체에 의해 투명하게 재현되는 그 무엇, 사물화된 그 무엇이 된다. 이것은 재현하는 시선을 절대화/중립화하는 것이다. 주체/객체에 대한 근대적인 이분법적 논리이다. 재현하는 주체에 의해 재현되는 대상은 투명하게 그려질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51) 보드리야르는 이것을 '어떤 영화들은 성교의 기초도면에 근거한 내장의 음향효과에 지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육체까지도 엄청난 부분적인 사물들 속으로 사라지거나 흩어져버린 것이다. 그 어떤 얼굴이라도 부적당하다. 왜냐하면 얼굴은 외설스러움을 파괴하기 때문이며, 성의 과도함과 무가치의 현기증 속에서 모든 것에 의해 의미가 소멸되려고 할 때, 얼굴은 의미를 다시 만들어내기 때문이다.'(Baudrillard, 1997: 55)라고 말한다.

있는 것이다.

2) 쾌락 추구와 관계 형성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표정-얼굴'의 제거는 곧 교감하는 두 행위자 사이의 '관계의 제거'를 의미한다. 아이들은 여기에 근거하여 포르노는 단지 포르노일 뿐이라고 판단한다. 아이들에게 성은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인 동시에 관계를 '맺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포르노적인 성은 성의 반쪽에 지나지 않는 행위이다.

연구자 : 여자를 '성적으로 만족'시키는데 가장 키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언제 여자아이들이 남자들한테 황홀해할 것 같니? 너네 남자들은?

종태 : 테크닉이 중요하다고 봐요. 남자가 성적 충동을 느끼듯이 여자도 그런 것을 원하고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여자를 가장 만족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황홀한 것은...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줄 때 만약 섹스를 원할 때는 섹스를 하고 키스를 원할 때는 키스, 단지 안아주었으면 할 때 따듯이 안아주는 뭐 이런 것들...남자의 경우에는... 모든 남자들이 생각하는 게 비슷할 것 같은데 큰 가슴, 몸매에 그리고 얼굴이 이런 것에 많이 신경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황홀한 것은...성적 충동을 채울 때 같아요. 내 입장에서 섹스는 좀 그렇지만 키스라든지 뭐 그런 것.

준우 : 성적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큰 성기와 완벽한 테크닉, 그리고 사랑이라고 봐요. 아무래도 여자는 남자가 압도적으로 이끌어갈 때 황홀해하지 않을까요? 남자의 경우에는 순종하면서도 남자를 잘 이해해 주는 여성이 황홀하겠죠?

인상, 준영, 종훈, 형석 :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재신 : 그 여자를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황홀한 것은...진정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가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

해 준다고 느낄 때..

일건 : 성은 쑤서 넣는 것이죠. 여자는 자기 입에 키스보다는 남자의 성기를 갖다 넣었을 때 황홀해할 것 같고, 남자의 경우도 역시 오랄 섹스라고 생각한다. 남자는 보일 듯 말 듯이 하는 유방이나 팬티를 보았을 때 황홀해하지 않을까요...

성을 전적으로 쾌락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일건의 경우이다. 일건은 인터뷰 내내 성욕화된 성의 관점을 일관되게 보여주었으며, 다른 아이들이 낭만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유치하다'거나 자기 내면을 속이는 '기만'이라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포르노를 보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자기는 한번도 보지 못했으며, 그것은 '순거짓말'일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재신, 인상, 종훈, 준영, 형석은 성적 쾌감이나 관계에서의 황홀함 모두에 있어서 남녀를 불문하고 사랑이라는 느낌과 교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형석은 순수하게 성을 쾌락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것은 형석이 포르노를 보지 않은 이유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형석은 '포르노를 보지 않기 때문에' 성을 쾌락으로 이해하는 것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이라기 보다는, '성을 전적으로 쾌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불쾌하기 때문에' 포르노를 보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른 아이들은 포르노를 가끔씩 보는 편이며, 형석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성은 사랑이라는 맥락 하에서 가능한 것이며,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준우와 종태의 경우에는 쾌락과 관계로 이분화된 보편화된 성관념을 대부분 수용한 편이다. 이들은 일건처럼 성을 완전히 '성욕화'하여 바라보지도 않지만, 전적으로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성적 쾌락에서는 '테크닉'이라든가 '큰 성기'라든가 하는 도구와 행위 같은 것이 중요하지만, 관계의 문제에서는 '원하는 것'이라는 교감과 소통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이들에게서 이 테크닉은 '관계의 기술'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성교의 기술'에 더 가깝다. 물론 성교의 기술 그 자체도 상대에 대한 관찰과 세심한 배려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아이들에게서는 변장이나 카사노바의 이미지에 더 닿아 있다. 여기에 더하여 준우와 종태의 이야기에서

는 능동적인 남성과 수동적인 여성이라는 지배적인 성이미지가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쾌락으로서의 성과 관계로서의 성의 이분화는 단지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어른들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성sexuality은 아이들의 이해처럼 성욕화를 통한 쾌락의 문제이자 동시에 관계의 문제로 설정되어 있다. sex는 인간의 본능 중의 하나인 성욕을 충족시키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이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 즉 '타자'와 관계를 맺는 행위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회에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엄밀하게 제한⁵²⁾되어 있으며, 관계맺음의 방식 또한 규범화⁵³⁾되어 있다. 따라서 성적 쾌락의 추구에 있어서 이 '타자'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타자와의 관계에 따라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 양식은 허용되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비난되기도 하며 특정하게 양식화⁵⁴⁾된다.

따라서 각 사회는 역사적으로 성적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타자'를 구성하며, 그 타자에 따라 특정한 행위 양식을 구성한다. 우리 사회와 같은 이성애중심주의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적 관계맺음의 대상은 '이성'이어야 하며 '합법적인 부부'이어야 한다. 부부외적인 성관계는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는 자위행위⁵⁵⁾나 매춘, '하룻밤의 섹스', 혼전 경험 등등이 모두 포함된다.

52) 근친상간에 대한 프로이트의 이론과, 레비스트로스의 인류학 이론들은 성의 터부에 대한 많은 사례와 분석을 제공한다. 또한 푸코(Foucault, 1990b; 1990c)는 성적 관계맺음의 대상이 결혼한 부부간의 관계로 이전되며, 욕망의 해석학으로 구축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53) 서구에서는 최근까지도 '동성애'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섹스'인 경우에도 오럴 섹스나 항문 섹스는 비도덕적인 일로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아직도 성도착증을 범죄로 다스리고 있다(Amend, 1995: 184).

54) 푸코(Foucault, 1990c: 203-270)는 고대 그리스에서 소년애가 문제가 된 것은 성적 쾌락의 '대상'이 부부외적이고 동성이었다는 점 때문이 아니라, 둘 사이의 관계 그 자체였으며, 이 관계는 '소년'이 커서는 '자유민'이 될 것이라는 사회적 문제 때문에 파생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은 '쾌락' 그 자체가 아니라 '쾌락을 활용하는 방식'의 문제이다.

55) 자위 행위의 경우에는 사실 쾌락을 추구하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무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상 자위행위에 대한 비난은 생식외적인 성적 쾌락을 통한 에너지 낭비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왔으며, 이 생식을 위한 성이라는 개념과 욕망의 해석학이 성을 부부간의 행위로만 한정짓게 되는

아이들 역시 매춘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며, 대다수 자신들은 그런 관계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한다.

연구자 : 매춘 여성에게는 어떤 것 같애?

재신, 종태, 준영, 종훈, 상석 : 사랑 없이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 없다.

준우 : 합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인상 : 길거리에서 만난 여자랑 비슷한데...참 피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건 : 못 먹는 감 찢어나 보듯이 똑같이 한다. 단지 남자는 여자를 원할 뿐이다.

형석 : 모르겠다.

역시 일건과 인상을 제외하고 다른 나머지 아이들은 자신들은 절대 매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유는 '사랑 없는 관계'는 싫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매춘이 싫다고 말하지만 역시 '사랑'이라는 맥락이 제거된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인 '하룻밤의 섹스'에서는 엇갈리는 이야기를 한다.

연구자 : 길거리에서 하룻밤 우연히 만나서 즐기는 여자에게는?

일건 : 포르노에서의 한 장면을 떠올리며 그대로 모방할 것이다.

재신 : 재미있을 것 같다. 서로 아무 것도 모르는 상대에서의 쾌감도 새로운 것 같다.

인상 : 처음 보는 여자면 뒷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 여자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별 생각이 없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재미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슬프다. 사랑이 없으니깐 진지함이나 감정이 없을 것 같다.

종태 : 내가 조금 컸을 때는 그냥 하룻밤을 보내고 한번 섹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켰다.

종훈 : 쇼킹은 하겠지만, 후회할 것 같아서 하기가 싫다.

준우, 형석 : 합의 없는 성관계는 하고 싶지 않다. 합의가 되면 할 수도 있다.

준영, 상석 : 싫다. 사랑이 없이는 있을 수 없다.

절대 매춘은 하지 않을 것이고, 별로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말하던 재신, 인상, 종태, 종훈, 준우, 형석 모두 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아이는 준영과 상석뿐이다. 사랑 없이 순수하게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인데도 확연한 차이가 느껴진다. 매춘에 대한 거부감은 '하룻밤 섹스'에 대한 거부감보다 훨씬 더 강하며 후자에서 아이들은 확연하게 '끌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사랑 없는 섹스'에 대한 아이들의 거부감이 모순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하룻밤 섹스'는 매개체가 '돈'이 아니라 '쾌락'이라는 점에서 매춘과 완전히 다르다. '돈'으로 매개됨으로써 일방적인 자극-반응 배설 모델에 불과한 매춘과는 달리 '하룻밤 섹스'는 훨씬 더 소통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매춘은 '돈으로 매개된 합의'라는 점에서 완전히 '관계 외적'이지만 '하룻밤 섹스'는 '서로의 의사에 의한 합의'라는 점에서 순수하게 '관계 내적'이다. '하룻밤 섹스'에 대해 자신들이 관용적인 것은 그것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합의된 성관계'이기 때문이라고 정당화한다. 여기에서 성적 쾌락의 활용과 성적 쾌락의 목적은 일치된다. 때문에 여기서는 충분히 포르노처럼 다양한 성적 테크닉이 용인되며 실험된다.

'매춘'과 '하룻밤 섹스'에 대한 이러한 태도에서 아이들이 '사랑 없는 쾌락'에 대해서 인지적 수준에서는 비판적이지만 실천적으로는 흥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인지적 수준에서는 '시간적 지속' 내에 위치하는 합의된 섹스만을 인정하지만, 실천적으로는 상호간에 '합의'만 된다면 '시간적 지속' - 사랑 - 없이도 순수하게 성을 즐길 수 있다고 용인하는 것이다.

이처럼 아이들은 이 타자와 맺는 관계의 양상에 따라 '자위행위-매춘-하룻밤의 섹스-연인'이라는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을 분할한다. 관계 맺음의 양상은 타자와 자신을 이어주는 '매개고리'가 관계 내적인가 외적인가라는 기준과 그 관계

의 시간적 지속성, 그리고 그 관계에 따르는 윤리적 책임의 정도에 따라 가치판단적으로 분할된다. 그리고 각각에서 성적 쾌락의 활용은 다른 양상을 띠는 것이다.

자위 행위와 다른 것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타자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이다. 자위행위에서 강간을 비롯하여 '포르노적인 상상'이 가능한 것은 실제적인 타자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아무런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상상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성'과는 분리되고 '포르노적인 상상'은 허용된다. 매춘은 매개체가 관계 내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 외적'인 '돈'이기 때문에 다른 행위들과 구분된다. 매춘에서는 포르노적인 행위들이 가능하지만 섹스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고 불결한 배설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예 부정된다.

'하룻밤 섹스'와 '연인간의 섹스'는 모두 다 '합의'와 '상호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만 된다면 둘 다 얼마든지 포르노적일 수 있지만 아이들 스스로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인간의 관계'보다는 '하룻밤 섹스'가 훨씬 더 용이하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하룻밤 섹스'는 순수하게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만남이지만, '연인간의 관계'에서는 '쾌락'보다는 사랑이라는 지속적인 감정적 유대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이다.

3) '규범적 관계'와 '순수한 관계'

위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우리 사회와 같은 이성애중심주의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윤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정당한 성'은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간의 성', 즉 제도화된 성뿐이다. 하지만 최근의 남녀 평등의 점진적 진전과 성개방(Giddens 1996: 35-50), 그리고 조형적 섹슈얼리티의 출현(Giddens, 1996: 27-30, 66)은 성관계의 규범과 윤리적 판단을 점차 결혼이라는 '제도'보다는 상호 주관적인 '합의'에서 찾고 있다.

연구자 : 여자 친구에게 포르노에서 너네가 가장 흥분된다고 느꼈던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겠니?

재신 : 여자도 원한다면...나도 한번 비디오처럼 연출할 수 있을지는 궁금하다.
그러나 여자가 싫다면 안 한다.

종태 : 내 나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지만 난 내 여자친구를 사랑한다.
그만큼 아낀다는 뜻이다. 여자 친구가 좋다고 하기 전에 지금은 생각이
전혀 없다.

준영 : 적어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요구하지 않겠다.

종훈 : 글썄...서로 사랑한다면 그런 것은 장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싫다면 안 하면 된다.

일건 : 강요는 않겠다. 하지만 같이 포르노를 보겠다. 남자는 성기를 가진 존재
이고, 여자는 성기를 받아들이는 기능을 가진 존재인 이상 별 수 있을
까? 남자와 여자가 다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다.

준우 : 없다. 포르노와 진짜 성관계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상 : 별로 요구할 것 같지 않다. 다르다는 생각이 나지 않을 것 같다.

형석 : 절대 생각하기 싫다. 내가 생각하는 성은 좀 낭만적이다.

상석 : 절대로 안 그러고 그럴 배짱도 용기도 나에겐 없다.

자위행위를 하며 자신들이 상상하는 성에 대한 이미지와 비교해 볼 때 아이들
은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신, 종태, 준영, 종훈의 경우에는 '원할 경
우'에만 시도해 보겠다고 말을 한다. 특히 '강간'을 포르노에 담고 싶으며, 자위 행
위에서 자주 강간을 떠올리는 형석의 태도도 '생각하기 싫다'고 말할 정도로 바뀌
었으며, 가장 뚜렷하게 성욕화된 성애관을 가지고 있는 일건도 '강요'는 하지 않겠
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관계에 있어서 아이들의
태도는 뚜렷하게 '상호 주관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아이들이 말하는 '연인간의 관계'는 감정의 '지속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서 기든스가 말하는 '순수한 관계pure relationship'적 양상을 보여준다. 기든스에
따르면 순수한 관계는 '사회적 관계가 그 목적으로 - 즉 개인이 다른 사람과 나누
는 지속적 교제에서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을 목적으로'하며 '그것이 그 관계에 들어
가 있는 각 개인에게 충분한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는 한에서만'(Giddens, 1996:

111) 유지된다. 때문에 순수한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협상(Giddens,
1996: 226)이다. '원할 때에만 한다'는 아이들의 언어에는 순수한 관계에서 나타나
는 '협상'의 측면이 존재한다.

물론 아이들의 '순수한 관계'에 대한 지향성이 기든스가 말하는 '일상적인 성적
실천의 수준에서 성찰성의 가속화'(Giddens, 1996: 68)에 이른 것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4장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 '일상적인 성적 실천'은
대부분 자위 행위를 의미하며 그것이 충분히 '포르노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섹슈
얼리티의 영역으로부터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성찰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아이들에게 자위행위는 '섹스도 아닌 심심풀이 장난질'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찰할 '일상'이 부재한 것으로 인식된다.

기든스의 주장과는 달리 '상호 주관성'과 '신뢰'는 조형적 섹슈얼리티와 순수한
관계에 고유한 것은 아니다. 푸코는 오히려 서구에서 성에 대한 윤리적 문제 설정
이 소년애라는 '파트너간의 불균형'(Foucault, 1990b: 257)에서 파생된 연애술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대칭적이고 상호적인 관계'(Foucault, 1990c: 255)사이의 문제
로 전환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즉 '상호주관성'과 '신뢰'의 문제는 '성적 활동의 부부
화'와 더불어 발생한 것이다.

푸코에 따르면 '성적 활동의 부부화'에서는 '성적 쾌락의 활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의 해석학'이다. 그러나 '부부내의 성관계'는 단지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권리의 귀결이자 표명(Foucault 1990c: 206)만은 아니다. '성적 활동의 부
부화'는 단순한 육체관계나 육체적 결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감정, 필요,
상호적인 관계, 상호교제(Foucault, 1990c: 203)라는 일련의 관계들 안으로 위치한
다. 즉 성적 쾌락은 '부부간의 애정표현의 유희에서 도구이자 담보'이다. 따라서 쾌
락의 활용과 쾌락의 목적은 분리된다(Foucault 1990c: 206). 때문에 성에서 도덕적,
윤리적 관심의 대상은 부부간의 신의이며, 상호주관성(Foucault 1990c: 255)이다.

부부간의 '상호주관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관계의 독점'(Foucault, 1990c:
184-206)이다. '사랑, 동정, 결혼은 하나의 전체'를 이루며 사랑하는 두 사람은 결
혼 전까지 '육체적인 동시에 정신적인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할 결합의 순간까지
그들의 육체적 순결뿐만 아니라 마음의 순결도 지켜야'(Foucault, 1990c: 255)한다.

아이들 역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정신적 순결'의 문제이다. 다수의 아이들은 결혼이라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육체적 순결'에 대해서도 집착을 보이지만 아이들은 '그것까지는 바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간의 사랑이 지속되는 시간 속에서의 '마음의 순결'이라고 이야기한다.

순결에 대한 토론

준호 : 남자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나는 순결하지 못하더라도 내 마누라나 여자친구는 순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별로 육체적 순결을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육체적 순결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순결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자 : 정신적 순결이라는 게 뭐니?

준호 : 비록 몸은 망가졌지만(다들 웃음) 나랑 사랑하는 동안에는 나하고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정말 사랑 하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새는 서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룻밤의 쾌락을 위해서 그냥 자고 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전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던 남자가 있어서 잔 거야 어쩔 수 없지만요. 이런 정신적 순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연구자 : 그건 서로 얼마나 사랑하나하는 것의 문제잖아. 그런데 왜 거기다가 순결이라는 말을 꼭 붙여야 하지?

준영 : 사실 그렇잖아요. 요새 그냥 한번 자는 거는 그냥 하는 말로 한강에 배 지나가는 것하고 똑같은데.(다들 웃음) 표도 안 나잖아요. 자기가 처녀라고 우기면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순결'이라는 게 무의미한 것 같아요.

준호 : 그런데 순결이라는 말을 안 하면 너무 문란해지잖아요.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자면서 나보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우습잖아요. 서로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란 자아된다는 거에서 정신적 '순결'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연구자 : 그래서 만약 니 여자친구나 마누라가 육체적으로 순결하지 않으면?

다들 : (웃으면서) 재수 없지만 어쨌어요. 그냥 살아야죠.

연구자 : 만약 결혼해서 살다가 마누라가 바람 피면?

다들 : (이구동성으로) 그걸 그냥 내버려둬요. 죽어버리지.

아이들의 말하는 '정신적 순결'은 결국 교과서적인 낭만주의 신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한 남자와 여자를 향한 철저한 헌신과 신뢰, 그리고 그 신뢰의 표징으로서의 처녀성에 대한 집착의 변형된 형태이다. 다만 그것이 성개방이라는 사회적 조건의 변화와 함께 '육체적 처녀막'에서 '정신적 처녀막'으로 옮겨진 것뿐이다. 이것은 결국 부부 바깥의 성, 결혼 제도 바깥의 성을 불안전하고 불완전한 것으로 불온시하고 부정하는 것이다. 성은 여전히 '관계의 순수성을 확인'하는 것이며 결혼이라는 제도로 매듭 지워진다.

이것은 성관계를 갖는 상대와의 관계를 '해야한다/해서는 안 된다'는 이분법적 규범의 문제로 환원시킨다. 푸코(1990c)가 말하는 호혜성과 신뢰에 입각한 규범화된 부부관계의 성개방 시대의 변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호혜성과 신뢰를 강조하는 것이 그릇된 것인가 옳은 것인가라는 점에 있지 않다. 이 신뢰와 호혜성이 해야 한다/해서는 안 된다는 이분법 속에서 규범화되어 각질화 됨으로써 자기와 타자를 배려하는 새로운 양식의 윤리학이 출현할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편 이 '정신적 순결'에 대한 강조 또한 기든스의 맥락에서는 '순수한 관계'의 한 양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순수한 관계'는 '과거에 있었던 관계, 그리고 성적이전 아니건 간에 개인이 관여했던 다른 모든 관계로부터의 분리'(Giddens, 1996: 225)이다. 순수한 관계에서 신뢰는 관계 외적인 것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으며, 오로지 친밀성에 기반해서 만들어지며, 기든스에게는 푸코의 '성적 독점권'이라고 불리던 것 또한 '불가피한' 배타성이며 신뢰를 다져주는 자극(Giddens, 1996: 228)으로 이해된다.

'정신적 순결'에 대한 아이들의 집착이 '순수한 관계'의 양상을 띠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 실천의 부부화'의 현대적 변종에 지나지 않은 것인지는 사회적-실천적

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성은 결혼 제도 바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같은 성도덕 속에서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규범위반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연인 관계 내에서의 성행위'는 실질적으로 '부부 중심의 제도화된 성'에 대한 위협이며 상호 병렬할 수 없는 모순적 관계이다.

그러나 이 양자 사이에서 아이들의 입장은 아주 애매모호하다. '정신적 순결'에 대한 강조와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에 대한 비난이 기든스가 말하는 '순수한 관계'의 양상을 띄는 것인지, 아니면 푸코가 말하는 '성적 실천의 부부화'라는 제도적-규범적 양상을 띄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순수한 관계가 성적인 정결(Purity)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데도(Giddens, 1996: 111) '자기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동정을 지키겠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육체적, 성적 정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신적으로 순결'하다면 '육체적 처녀성'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자기 여자는 처녀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혼전순결', '처녀성'이라는 육체적 '징표'에 대한 강한 집착이,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간의 합의'와 '사랑'이라는 상호간의 '과정'에 대한 강조가 혼종되어 있다. 아이들이 말하는 '정신적 순결'이란 '관념'은 제도화된 규범과 비제도적 상호 합의라는 두 가지가 뒤엉켜 있는 것이다.

V. 마무리 : 분열된 주체, 파편화된 삶의 공간의 극복을 위하여

우리 사회의 청소년 성문화는 최근 들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단지 과거보다 많은 아이들이 섹스를 하고 있고, 포르노가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도 '노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섹스를 하는 아이들은 있었고, 교실에서 포르노는 책이나 만화의 형태로 돌아다녔으며, 음담패설은 공공연하게 이야기되었다.

현재 우리 사회 청소년 성문화가 보여주는 가장 큰 변화는 성에 대해 '듣기만 하던'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을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빨간마후라'까지 가지 않고 포르노를 보는 것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비록 성찰적 주체로는 나아가지 못하지만 아이들은 인지적 주체로는 성장하였다. 이것은 성에 대해 듣기만 하던 아이들이 자신들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 대해 평가하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미성년과 학생'으로만 분류되어 섹슈얼리티 자체가 완전히 부정당하던 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을 열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혼육과 규율을 통해 몸을 길들이던 관리 체제를 벗어나 자기들만의 '자치구'(조한혜정, 1998: 33)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몸에 대한 관리권을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이들이 이 몸에 대한 관리권을 난잡하고 문란하게 마구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른들의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성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생활세계로 들어오면서 아이들은 이를 자신들의 몸과 삶, 관계를 만들어 가는 문화적/언어적 자원으로 사용한다. 아이들은 성을 쾌락의 도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관계를 만들고 친밀성을 생성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들은 성 자체는 '본능이고 쾌락'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쾌락만을 쫓기보다는 사랑과 합의를 중요시'여기고 싶어하며 여자 친구가 원하지 않는다면 '절대 안 할' 것이라고 말한다.

서로를 괴롭히지 않으면서 친밀성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외려 더 도덕적이고 금욕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런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내면을 이루고 있는 언어나 행동은 대부분 어른들의 것을 빌려온 것이다. 부정당하기만 하던 자신들의 '몸'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그 몸을 구성하는 아이들의 언어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언어와 이미지의 짜집기이다. '빨간마후라' 역시 남성중심적/성기중심적인 코드로 꽉 차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포르노와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어른들의 것을 흉내내서 보여주기에 급해서 더 남성중심적/성기중심적이기까지 하다. 비단 '빨간마후라'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아이들 이야기의 대부분은 이렇게 어른들의 언어로 어설프게 지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아이들의 이야기와 삶이 이율배반적이고 상호모순적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분열과 모순을 극복할 시간과 공간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며 분열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아무리 성과 사랑에 대해 '근사한' 꿈을 꾸더라도, 결국은 어른들의 '별 볼일 없는' 성기중심적/남성중심적인 도구화된 성문화에 포섭되어 가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담론적 구성력을 미치는 언어의 공간이 삶의 공간과 유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들의 몸이 속한 장소place와 아이들의 몸을 만드는 공간space이 분리되어 있는 것⁵⁶⁾이다. 실제로 아이들이 살아가는 학교나 가정 같은 삶의 장소place와는 단절된 대중 음악과 영화, 포르노 등의 이미지와 메시지

56) 물론 이 글에서는 장소place와 공간space이라는 개념을 이분법적으로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는다. 장소pace 역시 사회 과정social process이며 사회적 구성물이다. 사실 근대 사회에서 학교는 몸을 구성하는 공간이자 몸이 속한 장소였다. 그런데 근대의 가속화는 시공간의 분리(Giddens, 1991)속에서 시공간의 압축(Harvey, 1994; 1995; Lash, 1998 참조)을 발생시켰으며, 이것은 '몸이 속한 장소' - 전통적으로 몸을 구성하는 공간이었던 - 와 '몸을 구성하는 공간'사이를 급속도로 단절시키며, 전자를 해체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장소와 공간, 정체성의 문제를 다룬 글로는 Keith와 Pile(1993)이 편집한 「Place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Morley와 Robins(1995)의 「Space of Identity」를 참조하라.

가 아이들의 몸을 실질적으로 구성해가는 정체성의 공간space이다. 아이들이 터하고 있는 삶의 장소와는 단절된 공간의 담론과 이미지들이 아이들의 몸을 '원격적'으로 구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 속에서 학교와 가정은 성적 정체성 형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쓸모없는 공간⁵⁷⁾이 되어버렸다.

그나마 아이들이 '입을 여는 순간'은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이다. 학교안에서 아이들에게 삶의 공간으로 만드는 시간은 쉬는 시간 10분, 점심 시간이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이 시-공간은 입시라는 체계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에도 딱딱한 '자투리' 시간이다. 자기나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성찰하고 언어화하면서 배려하기에는 너무나 '모자란' 시간이다. 그러니 여기에서 성찰적인 언어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삶의 공간으로 아이들의 활용하는 이 시간은 너무나 짧다. 따라서 자신들이 발견한 성과 몸에 대한 인식이 '시간 때우기'식의 오락 수준을 넘거나 새로운 주체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조한혜정, 1998: 33). 새로운 언어가 생성될 연속적인 시-공간의 절대적 부족 속에서 아이들은 기존 어른들의 언어와 이미지로 자신의 몸과 성을 구성해 날림공사로 구성해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 이 공간의 언어는 '분열적으로 구성된 몸'이고, 의사소통의 방식은 '몸으로 때우기'이다. 오토바이 폭주족에서부터 빨간마후라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삶에 대한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그것을 공유하고 소

57)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 학교는 때에 따라 포르노적인 성담론이 적극적으로 유통되는 공간이 되기조차 한다. 남자 학교의 경우에는 점심시간 이후 졸린 시간이나 아이들이 '늘어질'때쯤 선생님들이 적절하게 음담패설을 늘어 놓으면서 '분위기'를 전환한다. 교육 공간에서부터 성이 친밀감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생각되기 보다는 스트레스를 푸는 분위기 전환용으로 도구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도구화된 남성중심적/성기중심적 담론을 '선생도 역시 그런'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익숙해진다. 때문에 포르노보다 오히려 공공연하게 음담패설을 수업시간에 해주는 선생들과 교육공간이 더 문제일 수 있다. 교과서를 통해서도 '성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아름다운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막상 아이들의 성은 완전히 부정한다. 그러면서 또 한 편에서는 성을 공부로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수단으로 공공연하게 도구화하고 있다. 가정이나 학교가 정체성 형성의 기반이 되기는커녕 아이들의 몸을 원격적으로 구성해가는 담론들을 알게 모르게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공간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통하는 것은 몸으로 배우는 것 말고는 거의 없다. 언제든 도망갈 준비를 해야하는 피난민 문화가 그렇듯이 편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서 '성적 친밀성과 관계 맺음을 통한 성숙한 자아 인식'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조한혜정, 1998: 33)는 것이다.

그러나 성이 이분화되고 모순적으로 구성된 것은 비단 아이들만의 특징은 아니다. 오히려 어른들의 경우에는 이분화가 더 심하고 복잡하며 이중적인 양상을 띠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가 성을 다루는 아주 일반적인 방식이다.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최근 설문 조사(뉴스메이커, 1998년 4월 2일자, 제266호)에 의하면 성인들은 성에 대해 상당히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라는 기사처럼 자신들은 사랑이 없어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으나 타인의 혼전 성관계는 금기시하는 성향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 규범은 남자와 여자, 자기와 타자, 어른과 아이 등 이분법적 논리에 따라 분할되어 있다.

이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장 시급한 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다. 그들을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 인정하고, '시민'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 '자유권과 책임감'을 부여해야 한다. 다행히 신정부의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1998)에서는 이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 '미래의 주역'으로서가 아니라 현재 '삶의 주인'이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청소년들을 바라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하지만 아직 시민권, 혹은 인권의 개념⁵⁸⁾으로 전진하지는 못하고 있다.

성-사랑과 관련하여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실제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이성교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는 그들을 '성적인 주체'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아이들을

58) 1989년에 제정된 '유엔 아동·청소년 권리 조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에도 시민적 자유권인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프라이버시·통신·명예·신망의 보호, 매스미디어에의 접근권 등을 권리로서 인정하였다. 한국은 이 조약에 1991년 12월 가입하였다.

문화와 삶이 있는 '청소년'이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삶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그들 나름대로 삶,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그런 인정속에 뒤따르는 책임에 대해서 일러주어야 하는 것이다.

'빨간 마후라'와 같은 사건도 '아이들이 포르노를 찍었다'는 점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의 실천적 의미 맥락을 살펴보아야 한다. 아이들은 이미 성적인 주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이 어떤 언어와 방식으로 자신들을 형성해가고 있는가를 봐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언어가 부재한 청소년들의 현실 속에서 '빨간 마후라'는 몸을 통한 말하기 - 표현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 '빨간 마후라'나 'dear note'(조한혜정, 1998)에서 주목해야하는 것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아이들이 자신들을 표현하고 대화하는 방식을 생산/모방해 내고 있다는 점이다.

단절적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해 두 번째로 주목해야하는 것은 아이들이 몸담고 있는 장소가 실제로 아이들의 몸을 구성하는 담론적 공간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나 가정과 같은 아이들의 일상적인 삶의 장소가 성적 주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만나고 관계를 맺는 바로 옆에 앉아있는 여성부터 '이성'으로 배려하고 대해야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몸이 있는 장소가 몸을 형성하는 공간이 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교육현장에서는 아이들의 무성적인 존재로 취급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서로 성에 대해 토론해 볼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알팍한 정보일망정, 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떠들고 보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며 성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반해 실제로 아이들은 여자 아이들과 성에 대해 이야기해본 경험이 없는 것⁵⁹⁾이다.

그러나 성에 이런 정보들조차도 사실은 오로지 동성간에서만 폭발적으로 이야

59) 인터뷰에 응했던 고등학생,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의 강의실에서 만난 1000여명의 학생들중에서 이성파 성과 몸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말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기되고 유통된다. 놀라운 것은 이성간에는 비공식적인 시공간에서조차 성이 별로 이야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섹스를 경험해봤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조차 '신기할 정도로' 성적 상대와 성에 대해 이야기해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한다. 또한 남녀공학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은 서로에 대한 환상이 깨어졌다고 불평⁶⁰⁾하고 있다. 이것은 이성에 대한 이미지가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장소'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며 아이들의 몸을 구성하는 담론의 장은 장소로부터 단절되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내 옆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여자 동료들과 머리 속에서 그려지는 성적 상대로서의 여성은 전혀 다른 존재로 분열되어 있다. 아이들의 섹슈얼리티가 분열된 이유는 결코 정보의 부족 때문이 아닌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사회의 성교육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성교육자체가 단절적 이분법을 극복하는 '장소'가 되지 못하고 단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주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교육은 여자아이들에게는 '순결 교육'과 '위기시 대처 능력 -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교육을 위조로 한 - '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생물학-해부학적인 지식 전달이 성교육의 중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일수는 없다. 이것은 초보적인 지식으로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 - 포르노나 대중 문화에서 그려지고 있는 성과 사랑에 대한 궁금증 - 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성과 사랑에 대해 아이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치밀한 조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아이들의 몸을 구성하는 담론적 공간인 포르노나 대중 매체의 이미지와

60) 서로의 몸과 그 이미지를 구성하는 담론의 공간과 실제 몸이 속한 공간의 단절이 가장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남녀공학을 하는 학교의 교실 현장이다. "여학생들도 아무때나 먹고, 많이 먹어요.", "남자라고 용감한 것 아니예요"(우리교육, 1998년 4월호 특집 '한 교실속의 남과 여' 참조) 등의 이야기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남녀 공학 현장에서 이런 '통속적 환상'이 깨어지면서 오히려 '무성적' 친구로서의 이성과 '성적' 상대로서의 여성이라는 이분법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 교실 현장에서 교사들이 단지 아이들을 성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그저 '친구'로만 지내게 하는 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생리중인 여자급우가 예민해지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같이 서로를 성적인 존재로 대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다.

언어에 주목하여 성교육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과 사랑에 대한 아이들의 언어는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 대중 음악 등 대중 매체로부터 기인한 것이 많다. 이 대중 매체들이 성과 사랑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와 아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를 통하여 어떻게 주체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없이 아이들의 삶으로부터 동떨어진 성교육이 되기 싫상인 것이다. [인어 공주]나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은 영화와 [남자 셋, 여자 셋] 등의 드라마, 신승훈 등의 노래를 가지고 아이들과 토론을 벌여야 하고 이것들과 아이들의 성적 주체 형성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성교육은 '수준별/섹션별 교육'이 되어야 한다. 현재는 반이나 강당같은 곳에서 '실전 경험'이 있는 아이부터 포르노를 한번도 안 본 아이들까지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강의 내용이나 토론 수준이 너무 어정쩡하여 그누구도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성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궁금증을 중심으로 수준별, 섹션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교육은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시켜 따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서로 자신들의 성에 대해 자유롭게 서로서로 물어보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성에 대해 '선생'으로부터 듣는 것만큼이나 자기 또래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를 성적으로 존중해주는 태도를 키울 필요가 있다. 머릿속에서 이미지화된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여성을 성적인 존재로 대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장소를 생산적인 삶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자기 몸을 이야기하고, 또 성에 대한 자기들의 이야기를 성찰할 수 있는 자율적인 시간과 공간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 시간과 공간이 주어져지 않는 한 아이들에게 성에 대해 어떠한 새로운 '정보'를 주더라도 그것은 다른 정보들과 연결되지 못하고, 파편적인 정보로서만 남아있게 될 것이다. 대중 문화와 음담패설 등의 피상적이고 상투적인 정보를 넘어선 성에 대한 건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부재 속에서는 단지 또 하나의 '주입식' 정보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국내 단행본 및 논문, 자료집]

- 강명구, 1993, 『소비대중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 서울:민음사.
- 고학성, 1998, 「청소년 유해간행물의 음란 폭력성 실태와 대책」, 『음란 폭력성 간행물과 청소년 보호』 자료집, 서울: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구본용, 1997, 「청소년 문제와 상담」, 『청소년 이데아』, 서울:영산원불교대학교.
- 구훈모, 1997,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2」, 『청소년 이데아』, 서울:영산원불교대학교.
- 국제사회주의자들, 『성폭력, 포르노, 자본주의』, 서울:불법간행물.
- 김상환, 1996, 『해체론 시대의 철학』, 서울:문학과 지성사.
- 김성기, 1995, 『포스트모더니즘과 비판사회과학』, 서울:문학과 지성사.
- 김성애, 1997, 「청소년 성문화 및 성상담」, 『청소년 이데아』, 서울:영산원불교대학교.
- 김수기, 1992, 「포르노에 대한 다른 시각」, 『섹스, 포르노, 에로티즘 : 쾌락의 악몽을 넘어서』, 서울:현실문화연구.
- 김옥순, 1996, 「청소년 시기의 특성과 성문화를 위한 대책」, 『청소년 성문화를 통해 본 성폭력 실태 및 대책』 자료집, 서울:한국성폭력상담소.
- 김은실, 1998, 「대중문화와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재현」, 『한국여성학』, 제14권 1호.
- 김준호·김혜원, 1997, 「음란물과 청소년 비행」,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 창출을 위한 서울 시민 대토론회 - 성문화와 성폭력에 미치는 음란물의 영향』 자료집, 서울:한국성폭력상담소.
- 김지혜, 1996, 「청소년 성문화를 통해 본 성폭력 실태」, 『청소년 성문화를 통해 본 성폭력 실태 및 대책』 자료집, 서울:한국성폭력상담소.
- _____, 1997, 「슬라이드 : 인터넷, 만화, 비디오에 나타난 음란물」,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 창출을 위한 서울 시민 대토론회 - 성문화와 성폭력에 미치는

음란물의 영향』 자료집, 서울:한국성폭력상담소.

- 김창남, 1994, 『문화 연구와 문화실천』, 서울:한울.
- 김현미, 1997, 「여성주의 성교육을 위한 모색」, 『한국 여성학』 제13권 2호.
- 김혜숙, 1995, 『인간과 성』, 서울:에드텍.
- 또하나의 문화, 1991a, 『새로 쓰는 성 이야기』, 서울:또 하나의 문화.
- _____, 1991b, 『새로 쓰는 사랑 이야기』, 서울:또 하나의 문화.
- _____, 1995a, 『평등한 부모, 자유로운 아이들』, 서울:또 하나의 문화.
- _____, 1995b, 『누르는 교육 자라는 아이들』, 서울:또 하나의 문화.
- _____, 1997a,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1』, 서울:또 하나의 문화.
- _____, 1997b,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2』, 서울:또 하나의 문화.
- 마광수, 1992, 『즐거운 사라』, 서울:청하.
- _____, 1994, 『사라를 위한 변명』, 부산:열음사.
- _____, 1997, 『성애론』, 서울:해냄.
- 미메시스, 1993, 『신세대 : 네 멋대로 해라』, 서울:현실문화연구.
- 백지숙, 1997, 『짬뽕 - 백지숙의 문화읽기』, 서울:푸른미디어.
- 안혜성, 1997,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문화」, 『청소년 이데아』, 서울:영산원불교대학교.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 1997,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을 중심으로』, 서울:내일을 여는 책.
- 엄연수, 1997, 「로맨스문화를 통해 본 여고생의 성의식 형성과정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학생회, 1995, 『마광수는 옳다』, 서울:사회평론.
- 영산원불교대학교, 1997, 『청소년 이데아』, 서울:영산원불교대학교.
- 윤자영, 1998, 「포르노 재현물에 대한 여성의 경험 연구」,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윤진, 1991,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경미, 1997,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1」, 『청소년 이데아』, 서울:영산원불교대학

교.

이광래, 1989, 『미셀루코-광기의 역사에서 성의 역사까지』, 서울:민음사.

이명아, 1998, 『청소년의 성상담』, 『청소년의 심리상담과 이해』, 서울:영산원불교대학교.

이숙경, 1997, 『청소년 성문화 어떻게 볼 것인가?』, 『청소년이데아』, 서울:영산원불교대학교.

이재현, 1997, 『포르노리즘과 에로그라피』, 이매진 창간호, 서울:이매진.

_____, 1997, 『나는 뼈끼다』, 서울:푸른미디어.

_____, 1997, 『포르노그라피와 에로그라피』, 서울문화이론연구소 제 5회 정기 포럼, 미간행.

이정우, 1994, 『담론의 공간』, 서울:민음사.

_____, 1996, 『가로지르기』, 서울:민음사.

이지연, 1992, 『십대의 성을 찾아서』, 『섹스, 포르노, 에로티즘:쾌락의 악몽을 넘어서』, 서울:현실문화연구.

_____, 1995, 『뼈뼈(무선호출기) 이용을 통해 본 청소년 하위문화 연구』, 서울:연세대학교 석사 논문.

이진경·신현준 외, 1992, 『철학의 탈주』, 서울:새길.

이태동, 1998, 『음란 폭력성 간행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음란 폭력성 간행물과 청소년 보호』 자료집, 서울: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송재희, 1997, 『비행청소년을 위한 변명』, 『청소년 이데아』, 서울:영산원불교대학교.

장수입, 1995, 『한국 사회의 성매매와 남성이데올로기』, 『지배 문화 남성문화』, 서울:또하나의 문화.

장정일, 1992a, 『아담이 눈뜰 때』, 서울:미학사.

_____, 1992b, 『너에게 나를 보낸다』, 서울:미학사.

정대현, 1995, 『성문화의 오늘과 내일』, 『지배 문화 남성문화』, 서울:또하나의 문화.

정신문화연구원, 1997, 『한국청소년문화』, 서울:정신문화연구원.

조윤정, 1995, 『여성의 성적 주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연세대학교 석사논문.

조애리 외, 1994, 『페미니즘과 대중문화의 만남, 뿌리내리기』, 『여성과 사회』 제5호.

조(한)혜정, 1992a, 『청소년의 성문화』, 『청소년 문화론』, 서울:한국청소년연구원.

_____, 1992b, 『탈식민지시대 지식인의 삶읽기와 글읽기 1』, 서울:또 하나의 문화.

_____, 1994, 『탈식민지시대 지식인의 삶읽기와 글읽기 2』, 서울:또 하나의 문화.

_____, 1994, 『탈식민지시대 지식인의 삶읽기와 글읽기 3』, 서울:또 하나의 문화.

_____, 1996,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학교』, 서울:또 하나의 문화.

_____, 1998, 『청소년 성문화 : 성적 주체로서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 여성학』, 제14권 1호, 서울:한국여성학회.

청소년 교육 선교회, 『청소년 기사 자료집 2』, 서울:예루살렘.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3, 『청소년의 삶, 고민과 대화』, 서울:청소년 대화의 광장.

최창섭, 1992, 『대중매체와 청소년』, 『청소년 문화론』, 서울: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기독교 청소년 선교회, 1997, 『10대청소년의 의식과 삶에 대한 조사 보고서』, 서울:한국기독교청소년선교회.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1993, 『컴퓨터와 청소년 문화-컴퓨터 음란영상물 접촉 실태와 영향』, 서울:한국청소년 문화 연구소.

한국청소년연구원, 1990, 『청소년 위해 환경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청소년 유해 환경 규제 기능의 강화』, 서울:한국청소년개발원.

한준상, 1997, 『동승동의 아이들』, 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a, 『음란물의 유해성과 그 규제 실태에 관한 연구』, 서

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_____, 1994b, 「음란물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현대 산업사회연구회 편, 1992, 「탈현대 사상의 궤적」, 서울:새길.

_____, 1997,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여성의 경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외국 저서]

Ament, Gunter, 1995, 「섹스북」, 서울:박영출판사(ger, 1993).

Amit-Talai, Verd and wulff, Helena, 1995, *Youth Cultures*, Routledge.

Arcand, Benard, 1993, *The Jaguar and The Anteater : Pornography Degree Zero*, London:Verso.

Baker, Peter, 1992, "Maintaining Male Power : Why Heterosexual Men use Pornography", Itzin, Catherine(ed.), *Pornography : women, violence, and Civil Liberties*,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Barthes, Roland, 1996, 「신화론」, 서울:현대미학사(fr. 1970).

_____, 1996, 「텍스트의 즐거움」, 서울:동문선(fr. 1973).

Bataille, Georges, 1996, 「에로티즘」, 조한경 역, 서울:민음사(fr. 1957).

Baudrillard, Jaen, 1991, 「소비의 사회」, 이상률 역, 서울:문예출판사(fr. 1970).

_____, 1992, 「시물라시옹」, 하태환 역, 서울:민음사(fr. 1981).

_____, 1996, 「유혹에 대하여」, 배영달 역, 서울:백의(fr. 1979).

_____, 1998, 「보드리야르의 문화위기」, 배영달 편저, 서울:백의.

Bernauer, James, 1988, "Michel Foucault's ecstatic thinking", James Bernauer & David Rasmussen(eds.), *The Final Foucault*, MIT Press.

Cameron, Peborah & Frazer, Elizabethe, 1992, "On the Question of Pornography and Sexual Violence : Moving beyond Cause and Effect", Itzin, Catherine(ed.), *Pornography : Women, Violence, and Civil Liberties*,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Deleuze, Gilles, ---, 「플뢰즈의 푸코」, 군영숙, 조형근 역, 서울:새길(fr. 1986).

_____, 1996, 「영화 1」, 1996, 주은주, 정원 역, 서울:새길(fr. 1983).

Dworkin, Andrea, 1992, "Against the Male Flood, Censorship, Pornography and Equality", Itzin, Catherine(ed.), *Pornography : Women, Violence, and Civil Liberties*,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1996, 「포르노그래피」, 유혜연 역, 서울:동문선(eng. 1979).

Dreyfus and Rabinow, 1989, 「미셀 푸코: 구조주의와 해석학을 넘어서」, 서우석 역, 서울:나남(eng. 1983).

Eco, Umberto, 1995, 「해석의 한계」, 서울:열린책들(ita. 1979).

_____, 1996 「소설 속의 독자」, 서울:열린책들(ita. 1979).

_____, 1997, 「해석에 대하여」, 서울:열린책들(ita. 1979).

Fiske, John, 1989, *Reading the Popular*, London:.

_____, 1993, *Power Plays Power Works*, London:Verso.

_____, 1997, 「문화커뮤니케이션론」, 강태완, 김선남 역, 서울:한뜻(eng. 1990).

Einstedel, F, Endna, 1992, "The Experimental Research Evidence : Effects of Pornography on the 'Average Individual'", Itzin, Catherine(ed.), *Pornography : Women, Violence, and Civil Liberties*,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Flynn, Thomast, 1988, "Foucault as Parrhesiast", James Bernauer & David Rasmussen(eds.), *The Final Foucault*, MIT Press.

Foucault, Michel, 1980, 「말과 사물」, 이광래 역, 서울:민음사(fr. 1966).

_____, 1988, "The Ethics of Care for The Self as a Practice of Freedom", James Bernauer & David Rasmussen(eds.), *The Final Foucault*, MIT Press.

_____, 1992, 「지식의 고고학」, 이정우 역, 서울:민음사(fr. 1969).

_____, 1990a, 「성의 역사 1-알의 의지」, 이규현 역, 서울:나남출판(fr. 1976).

_____, 1990b, 「성의 역사 2-쾌락의 활용」, 문경자, 신은경 역, 서울:나남출판(fr. 1984a).

- _____, 1990c, 「성의역사 3-자기애의 배려」, 1990, 이혜숙, 이영목 역, 서울:나남출판(fr. 1984b).
- _____, 1993, 「담론의 질서」, 이정우 역, 서울:새길(fr. 1971).
- Geertz, C.,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New York:Basic Books.
- Gordon, Colin, 1991, 「권력과 지식」, 1991, 홍성민 역, 서울:나남출판(eng.1980).
- Hall, Stuart, 1965, *The popular arts*, New York:Pantheon Books.
- _____, 1980, *Culture, media, language : working papers in cultural studies*, London:Hutchinson.
- _____, 1996, 「스튜어트 홀의 문화 이론」, 임영호 편역, 서울:한나래.
- Harney, David, 1994,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희·박영민 역, 서울:한울(eng.1889).
- _____, 1995, 「공간에서 장소로, 다시 반대로」, 「공간과 사회」 제 5호.
- Itzin, Catherine, 1992a, "Pornography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Sexual Inequality", Itzin, Catherine(ed.), *Pornography : Women, Violence, Civil Liberties*,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2b, "A Legal Definition of Pornography", Itzin, Catherine(ed.), *Pornography : Women, Violence, and Civil Liberties*,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2c, "Legislating Against Pornography without Censorship", Itzin, Catherine(ed.), *Pornography : women, violence, and civil liberties*,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 Kappeler, Susanne, 1992, "Pornography : The Representation of Power", Itzin, Catherine(ed.), *Pornography : Women, Violence, and Civil Liberties*,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 Kelly, Liz, 1992, "Pornography and Child Sexual Abuse", Itzin, Catherine(ed.), *Pornography : Women, Violence, and Civil Liberties*,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 Lapsley, Robert & Westlake, Michael, 1995, 「현대 영화 이론의 이해」, 이영재·

- 김소연 역, 서울:시각과 언어(eng. 1988).
- Lyotard, Jean-François, 1993, 「질문에 대한 답변:포스트모더니란 무엇인가?」, 「지식인의 종언」, 이현복 편역, 서울:문예출판사.
- Mackinnon, A, Catharine, 1992, "Pornography, Civil Rights and Speech", Itzin, Catherine(ed.), *Pornography : Women, Violence, and Civil Liberties*,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 Mahon, Michael, 1992, *Foucault's Nietzschean Genealogy - Truth, Power, and Subjec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Morley, David, Robins, Kevin, 1995, *Space of Identity*, London:Routledge.
- Racevskis, Karhc, 1988, "Michel Foucault, rameaus's and the question of identity", James Bernauer & David Rasmussen(eds.), *The Final Foucault*, MIT Press.
- Rubenstein Diane, 1988, "Food for though:Unetonymy in the late Foucault", James Bernauer & David Rasmussen(eds.), *The Final Foucault*, MIT Press.
- Bennett, Tony, 1986, "The politics of the 'popular' and popular culture", Bennet, Tony & Mercer, Colin(eds.), *Popular Culture and Social Relations*, Milton Keyney. Philadelphia: Open Univ. Press.
- Wyre, Ray, 1992, "Pornography and Sexual Violence : Working with Sex Offenders", Itzin, Catherine(ed.), *Pornography : Women, Violence, and Civil Liberties*,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 Zizék, Slavoj, 1995, 「베딱하게 보기-대중문화를 통한 라캉의 이해」, 김소연·유재희 역, 서울:시각과 언어(eng. 1991).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

[우리 교육], 1998년 4월호; 5월호; 6월호; 7월호.

[뉴스메이커], 1998년 4월 2일자, 266호.

[한겨레21], 1998년 4월 9일자, 202호; 1998년 5월 21일자, 208호.

A Cultural Study on Youth Sexuality

: Discourse Analysis of Pornography among Korean High School Teenage Boys

Uhm, Ki-Ho

Department of Sociology

Yonsei Graduate School

This study analyses the discourse of pornography to research youth sexuality in Korea. For this, the research was concentrated on the discourses that compete and articulate about sexuality among high school teenage boys.

In Korea, teenagers are considered as 'sexless beings' bu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that they have much cultural source, including pornography, to manage themselves as 'sexual being'. It is a well known fact that pornography is part of the everyday life of the average teenage boy. It has become a common thing which can be easily acquired through friends anytime that he wants.

This shows that pornography has diverse meanings and functions in their lives. First, pornography is an exit from the stress that comes from school and home. Second, it is a way of showing off knowledge of sex and their manhood. Third, it provides a topic to talk about in the poor youth culture.

Pornography constructs sexual fantasy and knowledge, competing with other sexual discourses and images such as his or others sexual experience, books,

mass media culture and dirty jokes. These components conflict or strengthen each other, showing the contradictions that coexist in youth sexuality.

Teenage boys understand sex as antinomic relations. On one hand, it is an instinct for pleasure through stimulation of the body, especially sexual organs. On the other hand, it is a means of communication, to construct relationships and intimacy. But the two meanings of sex as such is not integrated but contradictory. Similar to adult sexual culture, sexual purity ideology exercises a powerful influence on teenagers and divides sex into pleasure and relationships.

Concluding, the discourses of youth sexuality which contradict and conflict with each other, cross over and compete, concentrating only on a sexuality centered on males and sexual organs. Korean high school teenagers, who are considered only as students studying for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do not have sufficient time and space to change this tendency and form an alternative sexual culture. Moreover, Korean high schools are comparable to 'concentration camps' and therefore they cannot help being sucked into the shallow adult sexual culture.

keyword : pornography, sexuality, teenage boy, discourse analysis,
hyper-realism, competition and articulation, body, pleasure and
intimacy, negotiated decoding, contradictory constructions